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2006. 12

문화관광부

제 출 문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송재호

연 구 진

.....

- 연구책임자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조현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철수(서울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이주연(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관광휴양연구실 연구교수)
- 연구보조원
최보미(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요 약

1) 연구목적 및 내용

□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비서구권(非西歐圈)과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전문인력 양성방안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문화교류 환경과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과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점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세 가지—①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실태 및 외국사례 검토, ② 비서구권 문화예술 교류 및 전문인력 실태파악, ③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문화교류의 실태 및 외국사례 검토에서는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의 핵심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비서구권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거나 교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정보는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물론 단편적인 정보도 노출된 적이 없는 것이다.

□ 개념규정

○ 비서구권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서구권은 상당히 조작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은 모든 지역을 총칭(總稱)한다. 비서구권은 동서유럽,

북미(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같이 (문화)교류를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은 어렵지 않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3세계, 또는 문화교류 비주력국가 등과 같은 용어를 검토하였으나 제3세계란 개념은 냉전의 종식(終熄)에 따라 거의 폐기된 용어이고, 비주력국가는 이해하기 낯설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한 국가들이 서구·구미에 주로 속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서구권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 문화교류

문화교류란 문화를 매개로 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교류 주체의 국가가 다르면 국제 문화교류이며, 동일 국가 내(內)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국내 문화교류이다. 교류의 매개물인 문화는 주로 예술을 의미하며, 협의의 문화와 학술(인문사회 한정)을 포함시켰다. 예술은 창작행위로서의 문학, 미술, 무용, 전통예술, 연극, 무용, 대중예술, 기타창작으로 분류하였다.

○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력—① 비서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자원 ② 해당지역에 접근 가능한 통로를 지닌 인적자원—을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해당지역(국가)에서 1회성 작품발표 경험을 지닌 경우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당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획 및 실행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전문인력에 포함시켰다.

2) 비서구권 교류실태 및 해외사례

□ 교류여건

국내에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기관(단체)은 없다. 따라서 해외주재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등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비서구권에 주재하는 비율은 한국학교를 제외하고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상황이다.

□ 문화교류 실태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양과 다양성은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진행중인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진행된 전체 문화교류 가운데 비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30%정도다.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비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 22건(29%), 2005년에 13건(15%)이다. 곧, 2004년의 71%, 2005년의 85%는 서구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 비서구권과 관련된 경우는 약 9%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의 지원사업 가운데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는 연간 3~5건 정도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비서구권 문화사업은 2003년 3회(13%), 2004년 16회(36%), 2005년 2회(9%)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서구권 문화사업은 2003년 15회(63%), 2004년 20회(44%), 2005년 15회(68%)이다. 또한 채외동포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비서구권지역은 2003년 1개국, 2004년 2개국, 2005년 1개국에 불과한 형편이다.

- ② 교류형태도 공연예술단체가 외국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시 네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공연(무용, 타악, 전통공연)이 주된 교류 장르다. 두 번째로 공연 가운데서도 전통공연이 가장 많으며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로 외국의 공연단체가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끝으로, 계기성 사업, 곧 '대상국가와의 수교 ○○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같은 교류비중, 교류형태, 그리고 교류주기가 지속된다면, 향후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비서구권 지역과의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의 실현이 요구된다. 덧붙여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은 대상지역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의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교류의 방향성이 1회성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대상지역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외국의 인력을 초청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연수를 실시하는 형식, 곧 교류가능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다. 인적자원이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인식의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비서구권 문화교류는 이처럼 인적자원의 충원과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류가 어느 정도 궤도(軌道)에 오른 서구권과는 달리, 비서구권과의 교류에서는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서구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해외사례

외국에서도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일찍이 시작한 일본과 영국에서는 권역별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교류에서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연구와 지적교류에, 동남아시아와 동구에서는 일본어교육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문화교류는 권역별로 목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동, 동아프리카/서아프리카, 남아메리카/카리브지역에서는 ‘호의적 교류’, 근동/북아프리카에서는 ‘국제화’, 남아프리카에서는 ‘장기적 관계’, 중앙아시아/남아시아에서는 ‘창의적 생각’을 문화교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역별로 문화교류 수행 시, 목표 또는 중점사업이 다른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서구권이 단일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에서도 교류가 비활성화된 지역과 문화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비활성화된’ 지역(국가)이라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연구와 지적교류가 북미와 중국/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본어 교육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화교류가 일본의 국익창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교역이 활발하고 국제정치적 관계가 중요한 지역에는 자국연구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향후 교역이 늘어날 지역에는 언어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역시 대상국가가 영국과 앞으로 어떤 관련을 맺을지에 따라 문화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리 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비서구권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그것은 권역별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문화교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서구권은 단일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 또는 권역별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

비서구권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교류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부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류의 비활성화 상태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동반하고, 관련 인적자원 부족은 고급정보의 획득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서구권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관련자료 수집은 관련 인적자원을 찾는 일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3)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실태와 교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조사명 :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단체와 개인이며,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조사 포함)로 진행하였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다. 조사대상 단체(개인)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재외동포재단, 각종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협조)한 국제 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를 수행한 단체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자 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덧붙여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단체) 목록을 검색하고 해당지역(비서구권) 전공자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자 목록에 추가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 1차 목록에서 비서구권과 문화교류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개인)를 추출하여 간략한 정보(이름, 연락처)가 수록된 2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단체와 개인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전문인력 자체는 개인이지만, 실제 교류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본정보를 통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화교류 수행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단체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面接)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피조사자가 면접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팩스와 이메일로 조사표를 발송한 후, 답변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한편, 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관련 전문가(관련 단체)를 추천하는 항목의 답변을 이용하여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이른바 스노우볼링(Snow Balling) 방법을 통해 표본을 확충해 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 조사내용 및 설문항 구성

설문항은 네 가지 영역—단체에 대한 일반정보, 개인에 대한 일반정보, 교류행사, 교류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조사 내용

조사내용		세부내용
일반정보	단체	법적성격, 설립연도, 설립목적, 주된활동, 상근직원, 회원구성, 회원(단원) 수, 예산, 주된 교류지역(국가)
	개인	성, 연령, 학력(출신학교) 및 (세부)전공, 직업, 활동분야, 소속단체, 교류대상 지역(국가), 교류대상 국가 언어사용 여부
교류행사(단체/개인)		행사명, 수행연도, 교류기간,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교류지역, 교류의 주기성, 교류 개시연도, 참여인원(참여자, 관람객), 예산구성 등
교류에 대한 의견(단체/개인)		교류이유, 교류효과, 정보취득원, 교류의 어려운 점, 얻기 어려운 정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력, 양성방안, 교류수행 이후 follow-up 프로그램 운영

□ 조사진행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단체와 개인이다. 이 가운데 응답한 단체는 97개, 개인은 199명, 그리고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단체(개인)는

200개(명)이다. 또한, 응답단체(개인)가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수행한 교류 행사는 모두 416건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단체 97개, 개인 199명, 교류행사 416건, 그리고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단체(개인) 200개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는 통계분석보다 오히려 개인과 개별단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교류행사에 대한 정보 역시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인력의 실태와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지, 교류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분석은 주로 교류에 대한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조사결과

□ 결과요약

○ 교류실태

조사대상 단체, 개인, 교류행사, 그리고 비서구권과의 교류에 대한 단체(개인)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교류지역은 아시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남미가 10~14%, 그리고 아프리카가 1~10% 정도로 나타났다. 아시아 가운데서도 동남아시아와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2> 교류지역 요약 I

단체(97개)	아시아 73.2% > 중남미 10.3% > 아프리카 1.0% 기타/무응답(15.5%)
개인(199명)	아시아 77.4% > 중남미 11.1% > 아프리카 3.0% 기타/무응답(8.5%)
교류행사(416개)	아시아 71.4% > 중남미 14.2% > 아프리카 6.0% 기타/무응답(8.4%)
단체/개인 200개(명)	아시아 73.0% > 중남미 13.0% > 아프리카 9.5% 기타/무응답(4.5%)

<표 3> 교류지역 요약 II

단체(97개)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4.7%, 중동 18.6%, 서남아시아 9.3%, 아시아전체 9.3%, 동북아시아 8.2%, 중앙아시아 3.1% 중 남 미 : 중남미전체 8.2%, 중남미 2.1% 아 프 리 카 : 1.0% 남태평양 : 1.0% 세계전체 : 13.4% 무 응 답 : 1.0%
---------	--

개인(199명)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6.1%, 중동 17.6%, 동북아시아 12.6%, 아시아 전체 9.0%, 서남아시아 6.5%, 중앙아시아 5.5% 중 남 미 : 중남미 전체 7.0%, 중남미 4.0% 아프리카 : 3.0% 남태평양 : 0.5% 세계전체 : 7.5% 무 응 답 : 0.5%
교류행사(416개)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2.6%, 중동 16.6%, 동북아시아 11.1%, 서남아시 아 9.9%, 아시아 전체 6.3%, 중앙아시아 5.0% 중 남 미 : 중남미전체 0.7%, 중남미 13.5% 아프리카 : 6.0% 남태평양 : 0.2% 세계전체 : 5.3% 무 응 답 : 2.9%
단체/개인 200개(명)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31.0%, 동북아시아 16.0%, 중동 13.5%, 서남아시 아 8.5%, 중앙아시아 4.0% 중 남 미 : 13.0% 아프리카 : 9.5% 기타/무응답 : 4.5%

둘째, 교류분야는 학술에 비해 예술창작활동(공연, 미술, 문학, 기타)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예술창작을 부문별로 보면, 단체의 경우에는 공연예술, 문학, 미술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 문화교류 분야 I

단체(97개)	예술창작 47.4% > 문화일반/기타 23.7% > 학술 20.6% > 예술기획/행정/교육 4.1% > 무응답 4.1%
개인(199명)	예술창작 37.7% > 학술 33.7% > 예술기획/행정/교육 11.1% > 문화일반/기타 9.0% > 무응답 8.5%
교류행사(416개)	예술창작 51.2% > 학술 33.4% > 문화일반/기타 13.2% > 예술기획/행정/교육 1.7% > 무응답 0.5%

<표 5> 문화교류 분야 II

단체(97개)	예술창작 : 공연예술 24.7%, 문학 10.3%, 미술 9.3%, 기타 3.1% 학술 : 20.6% 예술기획/행정/교육 : 4.1% 문화일반/기타 : 23.7% 무응답 : 4.1%
---------	---

개인(199명)	예술창작 : 공연예술 18.1%, 미술 10.1%, 문학 8.0%, 기타 1.5% 학술 : 33.7% 예술기획/행정/교육 : 11.1% 문화일반/기타 : 9.0% 무응답 : 8.5%
교류행사(416개)	예술창작 : 공연예술 24.3%, 미술 12.0%, 문학 9.1%, 기타 5.8% 학술 : 33.4% 예술기획/행정/교육 : 1.7% 문화일반/기타 : 13.2% 무응답 : 0.5

셋째, 교류형태는 문화예술활동과 국제회의가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표 6> 교류형태

교류행사(416개)	국제회의 43.8% > 문화예술활동 42.3% > 기타 13.9%
단체/개인 200개(명)	문화예술활동 46.5% > 국제회의 45.0% > 기타 8.5%

넷째, 교류수행 시기는 2000년 이후 시작된 게 과반수를 넘어서, 비서구권 지역과 교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류수행 시작 시기

교류행사(416개)	2000년 이후 65.4% > 1990년대 21.4% > 1980년대 4.6% > 1980년 이전 3.6%
단체/개인 200개(명)	2000년 이후 53.5% > 1990년대 29.5% > 1980년 이전 7.0% > 1980년대 6.5%

다섯째, 교류주기는 단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기적 교류가 75.5%였지만, 교류행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기적 교류가 36.8%에 불과하였다.

<표 8> 문화교류 주기 및 빈도

교류행사(416개)	비정기 50.7% > 정기 36.8%(연간 24.3%, 격년 5.5%, 연 1회 미만 4.1%, 3년에 1회 2.9%)
단체/개인 200개(명)	정기 75.5%(연간 1회 이상 69.0%, 연 1회 미만 6.5%) > 비정기 24.5%

○ 교류에 대한 의견

첫째, 비서구권과 교류이유는 외국문화 수용보다는 우리문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교류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림’(39.5%), ‘공동창작/공동연구’(35.0%),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림’(17.0%)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교류에 필요한 정보는 국내보다는 외국,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 관련정보 취득

	정보 얻음	정보 얻지 못함	무응답	계
국내 공공기관	28.5%	70.5%	1.0%	100.0%
국내 민간기관/개인	51.0%	48.0%	1.0%	100.0%
외국 공공기관	54.0%	45.0%	1.0%	100.0%
외국 민간기관/개인	71.5%	28.0%	0.5%	100.0%

셋째, 교류수행 시 가장 부족한 정보는 ‘해당지역 관련단체와 개인’에 대한 것이었고, 부족한 인력은 ‘문화예술기획자’와 ‘해당지역 언어구사자’로 나타났다. 또한 교류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부족’이었다.

<표 10> 교류진행의 어려움

교류수행 시, 부족한 정보	해당지역 관련단체 및 개인 40.0% > 해당지역 문화시설/문화환경 26.0% > 해당지역 생활문화/관습 11.5% > 해당지역 정치/경제 9.0%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	문화예술 기획자 40.5% > 해당지역 언어구사자 36.5% > 문화예술행사 참여자 13.0%
교류수행 시, 어려운 점	재원부족 57.0% > 전문인력 부족 18.0% > 관련정보 부족 11.0% > 언어문제 7.5% > 해당지역 문화실정 잘 모름 3.5%

넷째, 문화교류를 기획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국제인맥 확보 및 관리능력’이란 응답(30.0%)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민간부문 연구 및 유학지원’(31.5%)이 가장 많았다.

□ 실태조사 시사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과의 문화교류가 가장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문화교류가 지리적 근접성과 물가수준의 차이 등 교류비용의 저렴성과 경제 교역과의 연관성을 변수로 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교류분야에서는 (전통)공연예술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II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교류,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한 교류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비서구권과의 교류가 2000년 이후 비로소 활성화되었다. 서구권 지역과는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겠지만, 이들 지역과의 교류는 시작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부정기교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교류행사의 50.7%), 아직까지 교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류의 목적이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리기’보다는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있었다. 곧, 외국단체를 초청하거나 외국문화를 국내에 알리기보다는 우리의 (공연)단체가 외국에서 (전통) 문화예술을 알리는 것이 가장 많은 형태이다.

이 같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실태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교류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취득이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국내 민간기관/개인’보다 낮고, ‘국내 민간기관/개인’은 ‘외국 공공기관’보다 낮고, ‘외국 공공기관’은 ‘외국 민간기관/개인’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공영역보다 민간영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점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가 정책적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4)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 인력양성 및 교류 활성화

(1)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유관인력 DB 구축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전문인력 내지 전문인력 예비군에 대한 유용한 DB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인 전문인력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 곧 비서구권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지역에 접근 가능한 통로를 지니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 확보 작업은 이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대상자들과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심층 인터뷰, 중복 접촉을 통해 비서구권으로 분류되는 국가 및 지역의 다양성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충분히 소화하여 DB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작업 과정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관심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방안의 개발에도 유용할 것이다.

□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문화권역 탐구 모임 장려, 지원

상기 DB 구축 사업을 통해 파악되는 비서구권 전문인력 내지 전문인력 예비군(대학원생, 실무 지원자 등)의 활동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 비서구권 문화권역에 관한 탐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구 프로그램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시하여, 주한 공관과의 대화, 방한 문화예술계 인사와의 대화 등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초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예술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정례적으로 초청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아시아 이외의 비서구권까지 확장하려고 검토하고 있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탐구 프로그램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탐구모임은 문화예술계에서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학계에서 지역학을 중심으로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 및 사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으로서 교육 아카데미 역할을 하는 정도로 발전될 수도 있다.

□ 문화예술 인력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장학 프로그램

문화예술분야의 인력 역량은 크게 비즈니스 역량(Business Capability), 예술적 역량(Artistic Capability) 및 기술적 역량(Technical Capability)의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비즈니스 역량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기획·조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시장을 개척하고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라면, 예술적 역량은 대상이나 객체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술적 역량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기획에서 문화예술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제반 기술의 보유, 활용 및 개발을 담당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력 역량에 못지 않게 비서구권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화교류는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안의 하나는 문화예술의 각 분야 전문인력이 대학(대학원)의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4년을 요하는 정규 과정보다는 편입을 통한 집중 과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관학교 등의 수료생이 대학에 편입,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에 준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 등이 정비된다면, 문화예술의 분야에 따라 비서구권의 문화예술 해당 분야와 권역의 사정을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체계의 적실성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자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연구학과 과정을 수료한 인력에게는 해당 권역 탐구모임을 통한 활동 이외에도 다음에서 소개하는 ‘문화동반자 II’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활동의 기회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문화동반자 II (비서구권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현재 문화관광부는 2005년부터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지역화, 국제기구 중심의 지역간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높은 경제적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변 국가들에서는 한류의 확산에 따른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한국문화산업의 유입에 대한 경계심리가 등장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식민지 역사의 경험과 경제적 고난을 겪은 국가로서의 공통점을 나누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민주의 대 피식민주의라든지 중심국가 대 주변국가 사이의 일방적인 문화적 지배관계는 지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문화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평등한 교환관계를 전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교류의 촉매자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미 개시된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틀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이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국내로 초청하는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인 반면, 문화동반자 II 프로그램의 경우는 우리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비서구권 지역으로 내보내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특히 문화교류 코디네이터(Cordinator)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비서구권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제안 공모경기의 정기적 개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비서구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는 데 유효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우 실무적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행위에서 비롯되고 창조적 결과물로 결실되는 것이며, 문화교류 역시 창조성에 의거한다. 문화예술은 또한 공개적 경쟁을 통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던 많은 전례를 보여준다. 조형예술 공모전, 문학과 음악 콩쿠르, 건축 설계경기 등을 통해 새로운 표현기법이 발명되거나 뛰어난 예술가가 등장하고, 문화예술의 사조가 바뀌기도 한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풀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폭과 질을 함께 제고하면서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자면,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공모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비서구권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장려, 유인해야 할 것이다.

(2) 교류활성화 방안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교류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류활성화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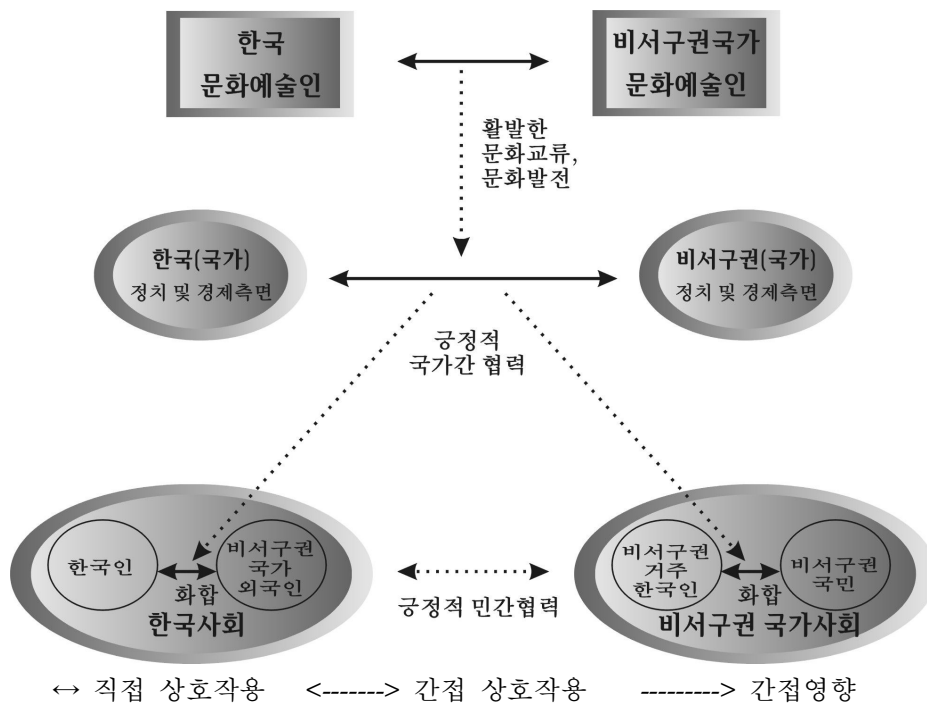
먼저 교류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 측면에서 비서구권 국가와 한국은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자극을 받아 자신의 국가의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 수준에서 비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이 상호 국가의 문화적 이해를 높여 보다 긍정적인 국가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비서구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비서구권 국민들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여 재외 한국인들과 비서구권 국민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한국에 거주하는 비서구권 국가출신의 외국노동자들(또는 결혼이주자들)과 한국인간의 상호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기본방향

□ 교류활성화 방안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교류 관리·운영

- 문화교류 집중 대상국가 선정 (양적 팽창 방안)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규모가 성장해 간다고 추정할 때,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양적 팽창을 지원 및 협력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 기준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원(협력)할 때, 비서구권 국가의 모든 나라들과의 문화교류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정부의 재원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지향 목적을 고려하면, 그 우선순위 기준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상국가가 정치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국가와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둘째, 한국인 이주민이 많이 송출된 비서구권 국가일수록 재외동포와 그 비서구권 국민과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문화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으로 이주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자)들의 출신국가와 문화교류 규모를 늘려 한국인들이 이들 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서구권 국가 문화교류 (질적 성장 방안)

교류실적이 부진했던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follow-up 프로그램의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가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일반대중이 주체가 되고 주된 대상이 되는 교류, 이른바 풀뿌리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 '올해의 문화동반국가' 선정, 집중 교류

비서구권 문화권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를 해마다 '올해의 문화동반국가'로 지정, 문화예술의 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서구권 해당 문화권역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계기로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도록 한다.

-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화예술인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한민족 축제, 세계 한인대회 등 행사나 개별 공연 혹은 전시 등으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일 뿐, 비서구권 문화교류라는 맥락의 교류 프로그램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함께 연구하고 추진하는 주요 자원으로서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다자(多者) 국제교류의 확대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자면 양국관계에 근거한 문화교류 전략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문화교류 전략을 개발하고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자간(多者間) 교류이다. 다자간 교류는 교류 활성화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욱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자간 문화교류란 비서구권 개별국가들과의 교류를 양자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상대국들과 동시에 문화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다자간 국제기구나 제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류 프로그램 주도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교류까지 지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우리의 국제문화교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다자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곧, 현재 많은 국제기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문화교류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략화·특화하여야 한다.

목 차

요 약	i
I. 머리말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및 방법	7
3. 개념규정	8
1) 비서구권	8
2) 문화교류	9
3) 문화전문인력	10
II. 비서구권 문화교류 실태 및 해외사례	12
1. 문화교류의 여건 및 실태	12
1) 국제교류 여건	12
2) 문화교류 실태	20
2. 해외사례	35
1) 일본	37
2) 영국	44
3) 해외사례 시사점	53
III.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55
1. 조사개요	55
1) 조사대상 및 방법	55
2) 조사내용 및 설문항 구성	56

3) 조사진행 및 분석방법	57
2. 조사결과	57
1) 단체현황	57
2) 전문인력현황	63
3) 교류행사 실태	72
4) 비서구권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	82
5)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100
IV.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 인력 양성 및 교류활성화 방안	106
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106
1)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유관 인력 DB 구축	106
2)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문화권역 탐구모임 장려, 지원	108
3) 문화예술 인력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장학 프로그램	112
4) 문화동반자 II (비서구권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115
5) 비서구권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117
2. 비서구권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방안	118
1) 교류의 기본방향	118
2) 교류 활성화 방안	120
2-1) 문화교류 관리 및 운영 방안	120
2-2)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123
2-3) 다자(多者) 국제교류의 확대	124
V. 맺음말	126
참 고 문 헌	130
붙임 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설문	132

표 목차

<표 I-1> 비서구권지역 및 국가	9
<표 II-1> 2005년 국민 출국현황	12
<표 II-2> 2005년 외국인 입국현황	13
<표 II-3> 2005년 재외동포현황	13
<표 II-4> 해외 한국학교 현황	14
<표 II-5> 해외 한국교육원 현황	15
<표 II-6>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16
<표 II-7> 재외동포단체 현황	17
<표 II-8>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현황	19
<표 II-9> 해외 주재 문화교류 거점 현황	19
<표 II-10> 2004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교류협력 사업(비서구권 대상)	20
<표 II-11> 2005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교류협력 사업(비서구권 대상)	22
<표 II-12>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개요	24
<표 II-13> 2005년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세부사업 내역	24
<표 II-14>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참여자 의견	26
<표 II-1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주관기관 준비도	26
<표 II-16>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지원실적	27
<표 II-17> 외교통상부 비서구권 교류사업	28
<표 II-18>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사업 현황	29
<표 II-19>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인사초청 및 파견 현황	29
<표 II-20>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인사초청 (주관 및 지원) 현황	30
<표 II-21> 재외동포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	31
<표 II-22>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급유지 활동지원(2003)	31
<표 II-23>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급유지 활동지원(2004)	32
<표 II-24>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존유지 활동지원(2005)	33
<표 II-25> 주요 국가의 국제문화교류 기관	36

<표 II-26> 2004년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역별 활동내용 구성비	38
<표 II-27>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사업실적액 상위 20개국, 2000-2004	39
<표 II-28> 일본국제교류기금 1972-2004년도 지역별 실적액 비율의 추이	41
<표 II-29> 일본국제교류기금 1972-2004년도 지역별 실적액 비율의 추이(재분류)	43
<표 II-30> 영국 문화원의 서유럽 및 북미지역 문화교류	46
<표 II-31> 영국문화원의 중동지역 문화교류	47
<표 II-32> 영국문화원의 근동 및 북아프리카 문화교류	48
<표 II-33> 영국문화원의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문화교류	49
<표 II-34> 영국문화원의 남아프리카 문화교류	49
<표 II-35> 영국문화원의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문화교류	50
<표 II-36> 영국문화원의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문화교류	51
<표 II-37> 2005-06 비서구권 지역의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실태	52
<표 II-38> 일본과 영국의 문화교류 중점사업/목표	53
<표 III-1> 설문조사 항목	56
<표 III-2> 응답단체의 일반적 속성	57
<표 III-3> 전문인력 응답자 속성	63
<표 III-4> 전문인력의 성별	64
<표 III-5> 전문인력의 연령	65
<표 III-6> 전문인력의 학력	66
<표 III-7> 전문인력의 직업	68
<표 III-8> 전문인력의 교류지역	70
<표 III-9> 전문인력의 언어구사 능력	71
<표 III-10> 교류행사 수행단체의 일반적 속성	72
<표 III-11> 교류행사의 시작 연도	76
<표 III-12> 교류행사 참여인원	77
<표 III-13> 교류행사 관람인원	78
<표 III-14> 교류행사 기간	80
<표 III-15> 교류행사 예산총액	80
<표 III-16> 문화교류 응답단체 속성	82

<표 III-1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주된 교류지역	84
<표 III-1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형태	85
<표 III-19>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주기	86
<표 III-20>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교류장소	87
<표 III-21>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외국 교류장소	88
<표 III-22>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시작연도	90
<표 III-23>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이유	91
<표 III-24>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의 어려운 점	94
<표 III-25>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취약한 정보	95
<표 III-2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	96
<표 III-2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기획 시 필요한 능력	97
<표 III-28>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98
<표 III-29> 문화교류 시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	99
<표 III-30> 교류지역 요약 I	100
<표 III-31> 교류지역 요약 II	100
<표 III-32> 문화교류 분야 I	101
<표 III-33> 문화교류 분야 II	101
<표 III-34> 교류형태	102
<표 III-35> 교류수행 시작 시기	102
<표 III-36> 문화교류 주기 및 빈도	102
<표 III-37> 관련정보 취득	103
<표 III-38> 교류진행의 어려움	103
<표 IV-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화 단계별 주요내용	107
<표 IV-2> 탐구모임 주도 인사에 대한 장려, 지원	110
<표 IV-3>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 내용	111
<표 IV-4>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및 과정 개설 대학 현황	113

그림 목차

<그림 II-1> 해외 한국학교 비율	14
<그림 II-2> 해외 한국교육원 비율	15
<그림 II-3> 해외 한국문화원 비율	16
<그림 II-4> 재외동포단체 비율	17
<그림 II-5>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비율	18
<그림 II-6> 서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46
<그림 II-7> 중동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47
<그림 II-8>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48
<그림 II-9>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49
<그림 II-10>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50
<그림 II-11>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51
<그림 II-12>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52
<그림 III-1> 단체의 법적 성격	58
<그림 III-2> 단체의 설립년도	59
<그림 III-3> 단체의 활동분야	59
<그림 III-4> 단체의 상근직원 수	60
<그림 III-5> 단체의 회원구성	60
<그림 III-6> 단체의 구성원 수	61
<그림 III-7> 단체의 2005년 예산	61
<그림 III-8> 단체의 문화교류 대상지역	62
<그림 III-9> 전문인력의 성별	64
<그림 III-10> 전문인력의 연령	65
<그림 III-11> 전문인력의 학력	66
<그림 III-12> 전문인력의 직업	67

<그림 III-13>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69
<그림 III-14> 전문인력의 교류지역	70
<그림 III-15> 전문인력의 언어구사 능력	71
<그림 III-16> 교류행사의 분야	73
<그림 III-17> 교류행사의 형태	74
<그림 III-18> 교류행사 대상지역	75
<그림 III-19> 교류행사의 시작연도	75
<그림 III-20> 교류행사의 주기	76
<그림 III-21> 교류행사 참여인원	77
<그림 III-22> 교류행사 관람인원	78
<그림 III-23> 교류행사 기간	79
<그림 III-24> 교류행사 예산총액	81
<그림 III-25> 교류행사 예산비중	81
<그림 III-2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성격	83
<그림 III-2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주된 교류지역	83
<그림 III-2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형태	84
<그림 III-29> 문화교류의 주기	85
<그림 III-30>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교류장소	87
<그림 III-31>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외국 교류장소	88
<그림 III-32>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시작연도	89
<그림 III-33>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이유	90
<그림 III-34>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효과	91
<그림 III-35>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정보취득	92
<그림 III-3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의 어려운 점	93
<그림 III-3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취약한 정보	94
<그림 III-3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	95
<그림 III-39>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기획 시 필요한 능력	96
<그림 III-40>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97
<그림 III-41> 문화교류 시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	99
<그림 IV-1>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기본방향	119

I. 머리말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비서구권(非西歐圈)과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전문인력 양성방안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¹⁾ 이것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문화교류 환경과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과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점이다.

2) 연구배경

(1) 새로운 문화교류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으로 인하여 많은 신생국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존재를 규정하기 위하여 여러 용어들이 생겨났으며, ‘신생국’이라는 어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신생국으로 분류되곤 하는데—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국가라고 주장하지만—이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의 흐름에 편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신생국들은 다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국들의 지원과 노력에 의하여 곧 그들과 동등하게 발전된 국가로 성장하리라 믿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의 국제정치적인 지형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미국과 영국을 위주로 한 그들의 이념과 영향력의 영역에 편

1) 비서구권(非西歐圈)에 대한 개념규정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연구에서 이 용어는 매우 조작적이다. 말그대로 서구(西歐)는 서구라파(西歐羅巴)의 준말이므로 서유럽을 가리키며, 서구권(西歐圈)은 서유럽 지역(국가)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서구권은 서유럽지역(국가)이 아닌 모든 지역(국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서구권은 포괄적이다. 이 연구에서 비서구권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서양국가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을 총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겠지만, 연구의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일러두고,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입되어 있는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발전과 이념을 위주로 세계의 국가들을 구분하기 시작한 용어는 이래서 생겨났다. 우리는 미국과 영국 등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제1세계,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 그리고 주로 신생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산업발전에서 뒤쳐져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3세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우리는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간에 제3세계에 포함되었으며 1960년대 근대화를 향한 노력은 제3세계에서 제1세계 국가군에 포함되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하여 전 국민의 염원이 발현된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민소득 100여 불 안팎의 국가에서 곧 2만 불을 바라보는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더욱이 냉전체제라 불리었던 제1세계와 제2세계간의 긴장관계가 제2세계의 몰락으로 인하여 종식되었으며, 전 세계는 소위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에서 OECD에 가입하는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서 제1세계 국가에 근접하게 성장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의 원조로 연명하던 입장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물론 몇몇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모범적인 산업성장국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한 국가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1988년 올림픽 개최, 2002년 월드컵개최 및 4강 신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자신감 역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과거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주로 국가이미지로 표현되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우리에게 대한 인식은 월드컵 이후 잠시 변화를 보였다가 다시 이전의 인식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류(韓流)와 같은 이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류라는 새로운 현상은 한반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비록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 문화가 하나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정책과 행동 방식은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수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바로 그러한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정책으로서의 문화교류는 근대적인 외교정책의 산물이다.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는 인류역사 이래 시작된 것이지만 적어도 국가의 정책으로서 근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국가간 문화교류는 나폴레옹 전쟁이후 문화교류를 외교정책의 하나로 택한 프랑스의 정책에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치 무대에서 문화교류가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가 된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공보원, 영국의 영국문화원, 프랑스의 프랑스문화원과 알리앙스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 등은 소위 제1세계에 속하는 선진국의 문화교류 정책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들에 비해 뒤쳐지기는 하였지만 국제교류기금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문화교류전략을 구사하는 일본을 비롯하여 최근에 부쩍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전략을 강조하는 중국 등이 그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엔(UN)에도 가입하지 못한 국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에도 소외되어 있던 국가로서 오직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대화를 추진하고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존재를 과시하려한 점도 일견 타당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권위주의와 같은 어두운 측면을 가리고 정당화하려한 점 등은 우리의 교류전략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는 문화교류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선진국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내용도 주로 정부정책 및 우리의 발전상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였으며 당연히 상대국의 각종 매체에 보도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외부적으로는 냉전 체제하에서 북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고,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에 우리의 업적을 알리는 방식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접근에 대한 반성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네 곳의 문화원이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문화중심의 교류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곳 문화원이 위치한 국가들이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업적을 알리는 공보중심의 홍보정책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 하에서 문화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으며 문화교류는 위축되거나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문화교류 정책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한류(韓流)라고 하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있다. 일본과 중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게도 우리 대중문화가 상대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동남아 국가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선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교류 전략의 결과가 아니다. 또한 그동안의 공보(公報) 중심의 우리 홍보 전략과도 별로 관련이 없다. 단지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및 대중문화상품이 상업적 차원에서 오고가는 동안에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리고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이 교류정책 및 전략의 핵심이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전달 및 상대 문화 독특성의 수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가능하도록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류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앞서 먼저 성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문화교류 대상이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문화교류 정책의 대상은 주로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선진국이었던 반면, 한류의 성공적 결과는 (물론 일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문화교류의 핵심 대상국이 아니었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국의 편중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교류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문화의 전달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 걸쳐 동포를 갖고 있는 국가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는 중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이주민을 송출한 국가이다. 물론 우리 동포들은 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20세기 초의 식민지적 상황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에 상당수의 동포거주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문화교류정책에서 이러한 재외 동포에 대한 정책이 커다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보정책이 아닌 문화교류 정책에서는 동

포들도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2세 혹은 3세에게 우리 문화를 알려 이들이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이들을 거점으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요한 문화적 매개역할을 하는 동포들의 거주 지역, 그리고 이같은 동포들은 문화교류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류 정책은 그 전개방향과 내용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문화다양성의 추구는 국제 문화교류 정책에서도 하나의 변화를 요구한다. 문화다양성 추구의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협약을 만들어 국제법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미 2005년 10월에 유네스코(UNESCO)에서 국제문화다양성 협약을 통과시킨 것은 그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더욱이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해,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영역에 도움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지구화 되어가는 문화현상에 맞서 창조적 역량의 근원이 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적 지형의 변화는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문화교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다양성을 추구한 정책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과 같은 문화지원 정책을 통해 새로운 교류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비서구권에 대한 문화교류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경제규모 1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가이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한류와 같은 문화적 현상을 주도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외국의 원조로 연명하며 수출을 바탕으로 한 산업입국을 통해 기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때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으며 일방적으로 문화를 유입 받던 입장에서 여러 나라가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문화교류는 따라서 당연히 과거 서구선진국 대상의 공보 중심에서 비서구권 국가 대상의 문화교류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서구권 대상의 문화교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

의 문화적 특성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교류정책을 찾아야 한다. 그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해당지역과의 교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교류방식을 터득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교류의 방식과 내용을 찾아야 한다. 비서구권과의 교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서구권과의 교류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들일수록 자신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적합한 교류내용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국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관련 인프라의 확충, 재정지원,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1의 여건은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있다. 문화교류는 다른 형태의 교류와 달리 유형의 물질적인 교류가 아니라 (유무형의) 문화를 통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소통가능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지역)와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이른바 비서구권과는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관련 전문인력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지역)와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재에, 전문인력의 부족은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른바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가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서구권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물론 교류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²⁾ 따라서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실태와 전문인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문화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국가)과 관련해서도 교류실태와 전문인력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단체와, 교류 상대국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세 가지—①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실태 및 외국사례 검토, ② 비서구권 문화예술 교류 및 전문인력 실태파악, ③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문화교류의 실태 및 외국사례 검토에서는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의 핵심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비서구권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거나 교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정보는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물론 단편적인 정보도 노출된 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서구권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문화교류의 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곧, 최근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관련 지원을 신청한 단체,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밖에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재외동포재단, 각종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협조)한 국제 문화교류 현황 및 단체(개인)를 파악하였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단체) 목록을 검색하여 해당지역 전공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둘째, 비서구권 지역과 문화교류를 수행한 단체(개인), 수행했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단체(개인), 그리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개인)의 기본정보(이름, 연락처, 홈페이지, 교류행사명, 전공분야)를 수집하였다.

셋째,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 경험자(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단체와 개인의 상세정보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류현황, 그리고 교류경험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상세정보까지는 향후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프로파일 형태로 제시하였고, 교류경험자의 응답내용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다른 문헌자료 연구를 통하여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개념규정

연구목적은 앞서 살펴본 대로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의 양성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 가운데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비서구권

서구(西歐)는 서유럽을 뜻하는 서구라파(西歐羅巴)의 준말이다. 또한 서구권(西歐圈)은 서유럽지역(국가)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서구권은 서유럽지역(국가)이 아닌 모든 지역(국가)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좇으면, 미국이 비서구권에 속한다.

그런데 언중(言衆)의 언어감각에 따르면 서구는 유럽대륙과 아메리카대륙(또는 미국)을 뜻하는 구미(歐美)와 혼용·혼돈되는 측면이 있다. 혼용 또는 혼돈되는 배경에는 서구(西歐)가 단순히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를 의미하던 동구(東歐)와 대비되는 개념, 곧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서(東西)가 유럽 내(內) 지역적 개념인 동시에 사회체제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서구는 자본주의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자본주의(민주주의)의 표본(標本)인 미국까지도 포함해서 이해했던 측면이 있다. 곧, 언중의 감각에 따르면 서구는 이른바 제1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언어감각에 따르면 비서구권은 제1세계를 제외한 지역(국가)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서구권은 상당히 조작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은 모든 지역을 총칭(總稱)한다. 비서구권은 동서유럽, 북미(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같이 (문화)교류를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은 어렵지 않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3세계, 또는 문화교류 비주력국가 등과 같은 용어를 검토하였으나 제3세계란 개념은 냉전의 종식(終熄)에 따라 거의 폐기된 용어이고, 비주력국가는 이해하기 낯설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한 국가들이 서구·구미에 주로 속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서구권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서구권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서아프리카, 남동아프리카, 중미, 남미, 남태평양으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권역설

정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국가는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이다.

<표 1-1> 비서구권지역 및 국가³⁾

지역	국가
① 동남아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② 동북아시아	마카오, 몽골, 대만, 홍콩
③ 서남아시아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티베트, 파키스탄
④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⑤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터키
⑥ 북서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적도 기니,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콩고공화국
⑦ 남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세이셸,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지부티, 케냐,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⑧ 중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⑨ 남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⑩ 남태평양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2) 문화교류

문화교류란 문화를 매개로 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교류 주체의 국가가 다르다면 국제 문화교류이며, 동일 국가 내(內)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국내 문화교류이다.

교류의 매개물인 문화는 주로 예술을 의미하며, 협의의 문화와 학술(인문사회 한정)을 포함시켰다. 예술은 창작행위로서의 문학, 미술, 무용, 전통예술, 연극, 무용, 대중예술, 기타창작으로 분류하였다. 이 같은 분류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3년

3) 국제적으로, 서남아시아는 남아시아(South Asia)로, 중동은 서아시아(West Asia)로 명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화관광부 국제교류권역 구분을 존중하였다.

주기 실태조사인 「문화향수실태조사」와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분류에서 건축과 영화를 제외한 결과다. 건축 자체를 예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건설(建設)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영화는 수출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교류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다.

이것은 연구에서 의미하는 교류의 특성을 말해준다. 교류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며, 상호작용의 매개는 ‘인력’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와 비서구권 국가사이의 문화 교류는 ‘인적인 왕래’와 ‘대면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다. 문학발표회부터 대중예술까지는 모두 특정 공간에서 우리와 비서구권 지역국가의 사람이 접촉을 하는 행위다. 따라서 교류행위는 문화예술활동, 국제회의(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활동이기는 하나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문화일반으로 칭하여 교류에 포함시켰고, 학술까지를 포괄하였다. 학술교류가 문화교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광의의 문화개념에 학술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술교류가 문화교류에 포함된다면 관광, 체육 등의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대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관광과 체육보다 오히려 학술을 포함시킨 것은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전문인력 개념과의 연관성에서 비롯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전문인력은 해당국가의 문화예술 전공자와 해당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학계 인사들은 후자(後者) 곧, 해당지역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술을 문화교류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3) 문화전문인력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개념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인력이란 개념은 인적자원⁴⁾ 가운데서 특화된 능력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비서구권과 문화교류를 하는 데 특정한 능력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전문인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해당지역(국가)의 문화예술을 전공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류를 위해 해당지역(국가) 일반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해야 한다.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해당지역(국가) 예술 전공자 또는 이와 같은

4) 인적자원은 사람에 체화된 지식, 정보, 기술, 기능, 경험과 지혜 등에 의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김장호 편저(2005), 「한국의 인적자원-도전과 새 패러다임」, 법문사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비서구권 예술 전공자뿐 아니라 비서구권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해당지역(국가)에서의 예술창작과 발표경험 자체가 전문인력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술발표행위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떤 무용가는 비서구권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서구권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해당지역 학술전공자 또는 유학 및 거주 경험자다. 비서구권 문화교류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언어와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언어능력과 네트워크를 지녀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교류에서 학술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학술교류에서 인력은 관련학회 소속원—교수, 연구원 중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지역(국가) 관련 학술단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당지역(국가)의 박사학위 취득자 전체를 검색(학술진흥재단)하고, 이 가운데 세부전공상 학술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력—비서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지역에 접근가능한 통로를 지닌 인력—을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해당지역(국가)에서 1회성 작품발표 경험을 지닌 경우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당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획 및 실행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전문인력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같은 전문인력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한정하였다.⁵⁾ 해당지역(국가)에서 우리와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인력(외국인)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불 제외하였으며, 이것은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 다만, 실태조사에서 Snow Balling 방법을 통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국거주 한국인(단체)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단체)이 목록에 추가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비서구권 문화교류 실태 및 해외사례

1. 문화교류의 여건 및 실태

비서구권 문화교류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부처별로 또는 관련기관별로 지원사업 목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한편, 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해당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 비서구권 지역의 출입국 현황과 비서구권 지역에 존재하는 관련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해외에 존재하는 우리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기관과 단체의 총수(總數)는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이들 기관과 단체의 빈도를 서구권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대상기관(단체)은 해외 주재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등이다.

1) 국제교류 여건

(1) 출입국 및 교포현황

2005년 기준으로 출국자는 95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연구에서 지칭하는 비서구권 지역으로 출국한 사람은 약 287만명으로 전체 출국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표 II-1> 2005년 국민 출국현황

권역	대상국가(비서구권)		비 대상국가(서구권)		전체(명)
	출국자(명)	비율(%)	출국자(명)	비율(%)	
아시아	2,637,010	35	4,875,763	65	7,512,773
아메리카	17,277	2	884,705	98	901,982
유럽	0	0	589,293	100	589,293
오세아니아	184,729	40	281,539	60	466,268
아프리카	30,527	100	0	0	30,527
계	2,869,543	30	6,631,300	70	9,500,843

자료 : 출입국관리국(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재정리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약 600만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비서구권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약 144만명으로 입국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표 II-2> 2005년 외국인 입국현황

권역	대상국가(비서구권)		비 대상국가(서구권)		전체(명)
	입국자(명)	비율(%)	입국자(명)	비율(%)	
아시아	1,396,106	30	3,267,672	70	4,663,778
아메리카	23,493	3	702,306	97	725,799
유럽	0	0	512,690	100	512,690
오세아니아	5,344	6	80,592	94	85,936
아프리카	18,760	100	0	0	18,760
계	1,443,703	24	4,563,260	76	6,006,963

자료 : 출입국관리국(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재정리

2005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약 664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의 교포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교포의 약 9%에 해당한다.

<표 II-3> 2005년 재외동포현황

권역	대상국가(비서구권)		비 대상국가(서구권)		전체
	재외동포(명)	비율(%)	재외동포(명)	비율(%)	
아시아	472,666	12	3,340,679	88	3,813,345
오세아니아	1,551	1	115,816	99	117,367
북미	0	0	2,285,666	100	2,285,666
중남미	107,162	100	0	0	107,162
유럽	0	0	299,974	100	299,974
중동	4,770	100	0	0	4,770
아프리카	10,054	100	0	0	10,054
계	596,203	9	6,042,135	91	6,638,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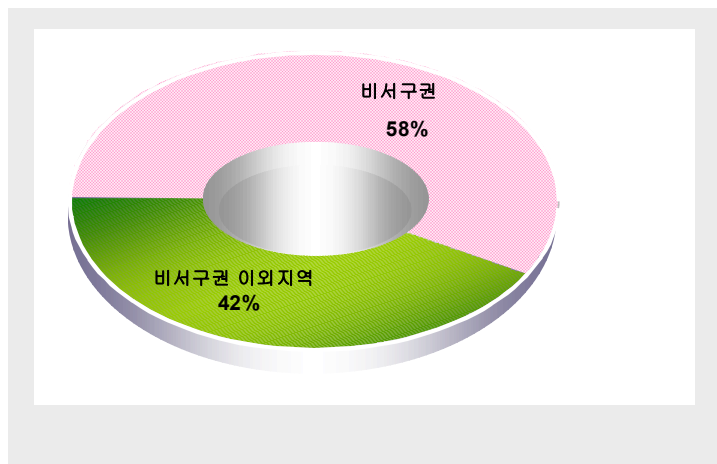
자료 : 외교통상부(2005), 「재외동포현황(2005년도)」 재정리

이처럼 비서구권지역은 출국자의 30%, 입국자의 24%, 그리고 교포의 9%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것은 비서구권과의 인적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 해외주재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① 한국학교

2006년 11월 기준으로 한국학교는 모두 26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의 한국학교는 총 15개로 전체의 58%다.



<그림 II-1> 해외 한국학교 비율

한국학교는 중국에 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에 4개, 러시아에 1개가 있다.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대만,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에 각 2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란, 이집트에 각 1개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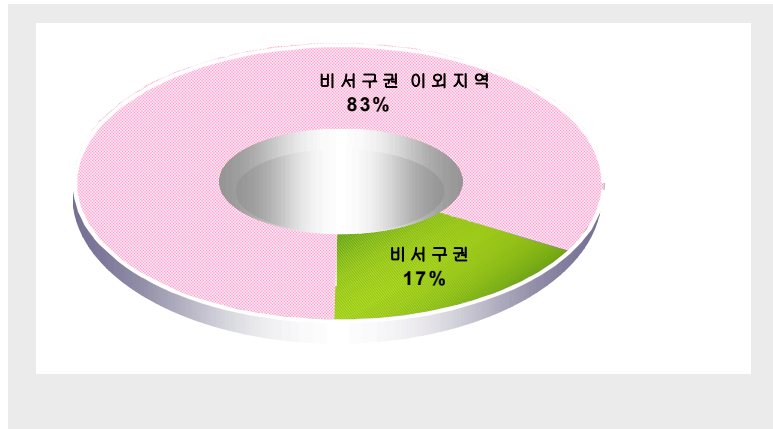
<표 II-4> 해외 한국학교 현황

지역	국가	개수	소계
동북아시아	일본	4	13
	중국	6	
	대만	2	
	홍콩	1	
동남아시아	베트남	2	5
	싱가포르	1	
	인도네시아	1	
	태국	1	
남미	브라질	1	3
	아르헨티나	1	
	파라과이	1	
유럽	러시아	1	1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2	3
	이란	1	
북서아프리카	이집트	1	1
계			26

자료: www.kosnet.go.kr(2006. 11. 기준)

② 한국교육원

2006년 11월 기준으로 한국교육원은 모두 35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의 한국교육원은 총 6개로 전체의 17%다.



<그림 II-2> 해외 한국교육원 비율

한국교육원은 일본에 1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국에 6개, 러시아에 4개,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에 각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각 1개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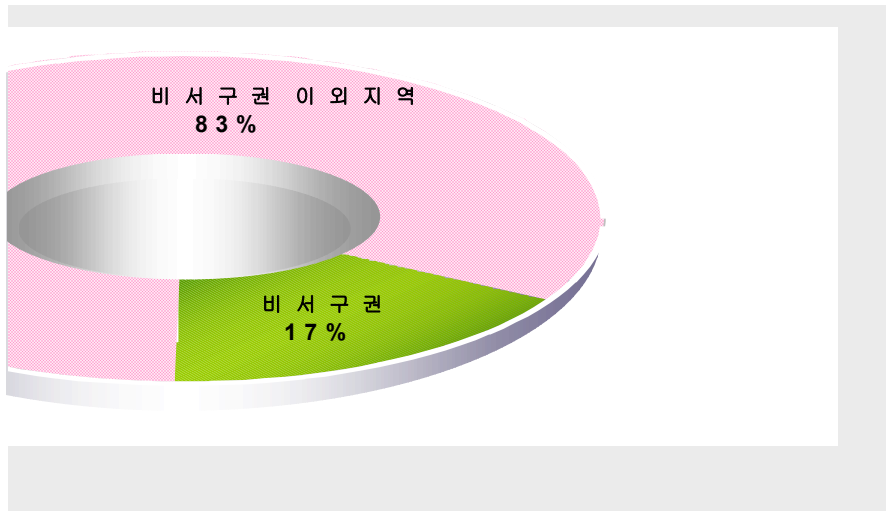
<표 II-5> 해외 한국교육원 현황

지역	국가	개수	소계
동북아시아	일본	14	14
북미	미국	6	7
	캐나다	1	
남미	브라질	1	3
	아르헨티나	1	
	파라과이	1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	3
	카자흐스탄	1	
	키르기즈스탄	1	
유럽	독일	1	7
	영국	1	
	프랑스	1	
	러시아	4	
오세아니아	호주	1	1
계			35

자료: www.kosnet.go.kr(2006. 11. 기준)

③ 한국문화원

2006년 11월 기준으로 한국문화원은 모두 12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의 한국문화원은 총 2개로 전체의 17%다.



<그림 II-3> 해외 한국문화원 비율

한국문화원은 일본, 중국, 미국에 각 2개가 있으며,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에 각 1개가 있다.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과 아르헨티나에 각 1개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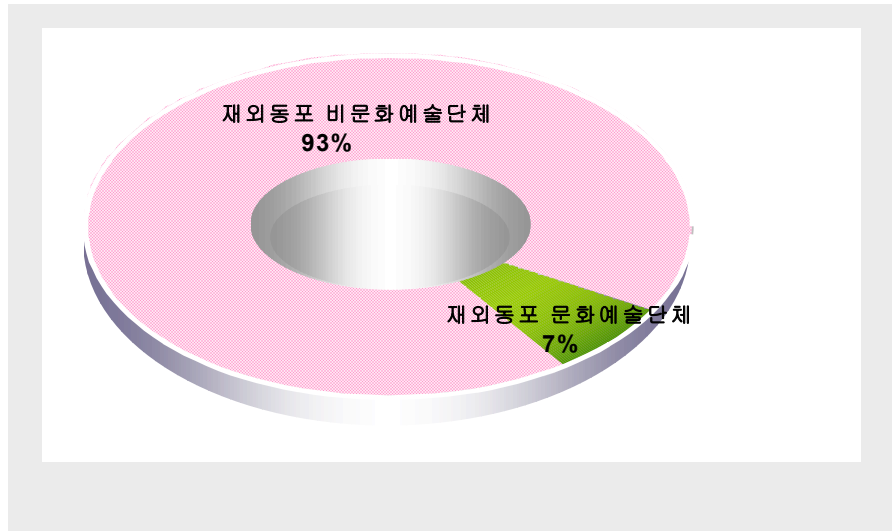
<표 II-6>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지역	국가	개수	소계
동북아시아	일본	2	4
	중국	2	
동남아시아	베트남	1	1
북미	미국	2	2
남미	아르헨티나	1	1
유럽	러시아	1	4
	독일	1	
	영국	1	
	프랑스	1	
계			12

자료: 문화관광부(2006. 11. 기준)

④ 문화예술단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외동포단체는 모두 2,467개⁶⁾가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는 총 169개로 전체의 7%다.⁷⁾



<그림 II-4> 재외동포단체 비율

재외동포단체는 북미에 1,23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럽에 419개, 동북아시아에 283개, 오세아니아에 132개, 남미에 118개, 중앙아시아에 82개, 동남아시아에 60개, 중미에 37개, 북서아프리카에 30개, 서남아시아에 28개, 중동에 23개, 남동아프리카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7> 재외동포단체 현황

지역	전체단체	문화예술단체	비서구권 국가 문화예술단체	
동북아시아	283	1	0	
동남아시아	60	0	0	
서남아시아	28	0	0	
북미	1,238	82	0	
중미	37	0	0	
남미	118	6	브라질	5
			아르헨티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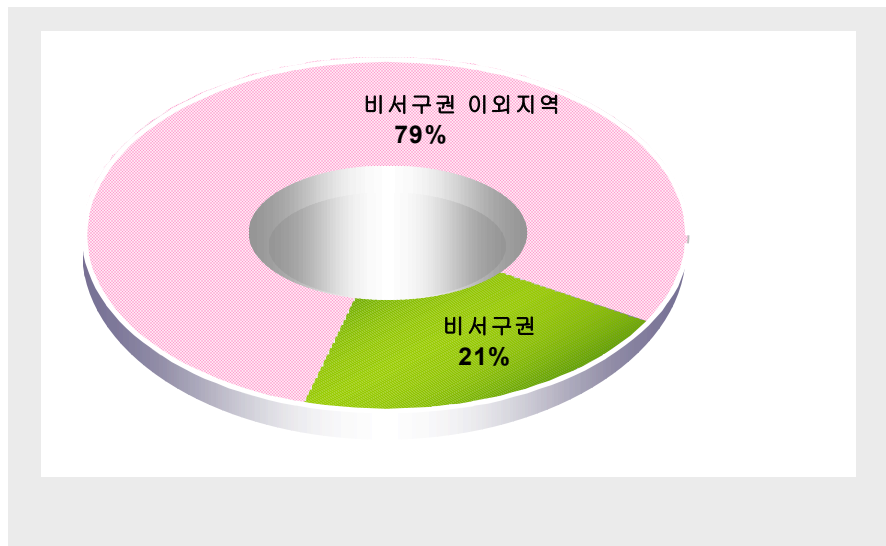
6)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2,616개임

7) 관련 자료를 보고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추출하였다.

중앙아시아	82	30	우즈베키스탄	30
유럽	419	39	0	
중동	23	0	0	
북서아프리카	30	0	0	
남동아프리카	17	0	0	
오세아니아	132	11	0	
계	2,467	169	36	

자료: 외교통상부(2004), 「재외동포단체조직현황」 및 관련자료 재정리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169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총 36개로 전체의 21%다.



<그림 II-5>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비율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는 우즈베키스탄에 3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브라질에 5개, 아르헨티나에 1개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8>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현황

지역	국가	전체단체	문화예술단체
동북아시아	중국	68	1
북미	미국	1,021	62
	캐나다	217	20
남미	브라질	55	5
	아르헨티나	32	1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44	30
유럽	독일	176	14
	프랑스	23	1
	러시아	89	22
	우크라이나	19	2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52	4
	호주	68	7
계		1,864	169

⑤ 해외 문화교류 거점 현황의 시사점

<표 II-9> 해외 주재 문화교류 거점 현황

구분	비서구권 현황	비율
한국학교	15개	58%
한국교육원	6개	17%
한국문화원	2개	17%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36개	21%

국내에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기관 및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 주재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문화예술단체의 존재는, 비서구권과의 교류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해외 문화교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기관이 비서구권에 주재하는 비율 역시 한국학교를 제외하고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특히,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의 비서구권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다.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문화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은 재정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영역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비서구권에 진출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민간영역에서 설립한 세종한글학교 같은 기관이 상당한 정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구권 지역에 산재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강구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문화교류의 여건이 마련된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 문화관련 기관의 설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문화교류 실태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자료를 통해 비서구권 문화교류 현황을 정리하였다.

(1) 문화관광부

① 일반 교류사업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에서 2004년에 수행·지원한 사업은 총 77개인데, 이 가운데 비서구권지역과의 교류는 22건으로 29%이다. 2005년에 수행·지원한 사업은 총 88개인데, 이 가운데 비서구권지역과의 교류는 13건으로 15%에 불과하다.

<표 II-10> 2004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교류협력 사업(비서구권 대상)

행 사 명	행 사 개 요
수교 기념 등 계기 디딤무용단 중동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오만, 한·카타르 수교 30주년 계기, 이슬람권에 대한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 기간/장소: '04.2.16~2.27/오만(머스캣), 카타르(도하) ○ 내용: 한국무용 “한국, 천년의 춤” 공연 ○ 공연단체: 국수호디딤무용단
사라바트만-아프리카 3개 거점도시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국문화예술 해외 진출 지원 ○ 기간/장소: '04.4.1~5.5/남아공, 모잠비크, 케냐 ○ 내용: 사라바트만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진혼곡 형식을 빌려 연극
이스라엘 아동청소년 연극 축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인형극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예술 소개로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 기간/장소: '04.4.6~4.9/이스라엘(하이파) ○ 내용: 한국의 춤과 음악을 인형극으로 표현한 작품과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춤과 음악이 담긴 흥겹고 세련된 인형극 공연

전통예술단 북아프리카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국문화예술 해외진출 지원 ○ 기간/장소: '04.5.18~5.30/모로코, 리비아 ○ 내용: 부채춤, 사물놀이, 피리독주, 장고춤, 판굿 등 ○ 주최: 문화관광부, 주모로코·리비아대사관
패션아트 홍콩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패션문화의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양국간 문화교류 추진 ○ 기간/장소: '04.7.5~7.11/홍콩 디자인센터 ○ 내용: 한국 작가 패션아트 50여점
베네수엘라 세계드럼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국제적 문화교류행사 참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베네수엘라 및 축제참가국 예술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국가문화이미지 제고 ○ 기간/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4 / 카라카스 Teresa Carreno 극장 - 6.26 / 휴양지 마거리따섬 옥외 공연 - 6.29 / 카라카스 역사유적지 단독 옥외 공연 ○ 내용: 사물놀이, 판굿 등 4종의 공연물을 3회에 걸쳐 공연
국립극장 우루왕 튀니지 칼타쥐 축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국 문화예술 해외진출 지원 ○ 기간/장소: '04.7.15/튀니지 칼타쥐 야외 원형극장 ○ 내용: 총체극 '우루왕' 공연 ○ 주최: 튀니지칼타쥐축제 조직위, 국립중앙극장
브루나이, 레바논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국 문화예술 해외진출 지원 ○ 기간/장소: '04.6.24~7.4/브루나이 베가완, 레바논 베이루트 ○ 내용: 태초의 소리, 여명의 산하, 구정놀이, 아침연꽃, 한량무, 복의 대합주 등 전통춤 공연
한·몽국제장애인 문화교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몽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활동 등을 통한 우리문화 이미지 제고 ○ 기간/장소: '04.8.2~8.7/몽골리아 울란바토르 ○ 내용: 장애시설 및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 활동 및 국악공연 등 ○ 주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인니 수교 31주년 기념 한국 미술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 한인니 수교 31주년 기념 한국미술전시회를 통한 우리문화 이미지 제고 ○ 기간/장소: '04.8.18~8.29/인도네시아 상그릴라호텔 및 국립박물관 ○ 내용: 백자민화전 (90점), 한국풍경화(10점) 등 ○ 주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서울시
이지영 가야금 협주곡 이스라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04.10.18~10.24/이스라엘(텔아비브) ○ 내용: 가야금 협주곡 'Clash and Reconciliation in Memory Culture' 공연 ○ 주최: 이스라엘작곡가연맹
한·태 수교 46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가족 돕기 자선콘서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04.8.26-8.30 ○ 내용: 한·태 인기가수들의 대형콘서트와 한류연예인들의 봉사활동
한·케냐 수교 40주년 기념 오늘의 한국미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9.28~10.7/케냐 나이로비 ○ 내용: 동양화 (수묵 채색)50점 전시 ○ 주최: 문화관광부, 주케냐 한국대사관
한국영화 외국어 자막 프린트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8월~10월 ○ 내용: -동경국제영화제 계기 한국영화 주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권택 감독 회고전 계기 MoMa 에 영어자막 프린트 기증 - 멕시코 한인이미 100주년 사업 등 남미지역공관 한국영화상영회

HIGH FEST 국제연극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10.2-10.9/ 아르메니아 예레반 ○ 내용: 연극 '기차' ○ 주최: HIGH FEST 국제 연극제 조직위원회
전통예술단 중남미 순회공연 '천년의 전통, 한국의 춤과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 2004.9.7-9.28 ○ 내용: 시나위, 장고춤, 강강술래, 판굿 등 전통음악 및 무용8작품 ○ 주최: 문화관광부/국립민속국악원
ASEM 정상회의 계기 난타 베트남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9.24-10.1/ 하노이 ,호치민 ○ 내용: '난타'공연 ○ 주관: 주베트남대사관
한·케냐 수교 40주년 계기 전통예술단 동아프리카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10.1-12/ 케냐, 이디오피아, 남아공 ○ 내용: 태평무, 사랑가, 설상고춤, 동래한량무, 부채춤, 대금솔로, 터울림21 ○ 주최: 문화관광부, 주케냐· 이디오피아· 남아공 대사관
인도 2004 Korea Week 기념 연극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11.21 - 11.30/ 인도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 내용: "연 Karma " ○ 주최: 주인도대사관, 문화관광부
ANMC 자카르타 총회 계기 전통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 11.22-11.24/인니 자카르타 ○ 내용: 창작 전통무용(북울림, 한국여인의 향기, 갈등, 기상, 부채춤, 사물놀이) ○ 주최: 인니 자카르타
「한·우즈베키스탄 송년 친선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12.28/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 목적: 한국문화예술 해외진출 지원 ○ 사업내용: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회
「한·베트남 우호 친선을 위한 송년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4.12.29/베트남 호치민시(오페라하우스) ○ 공연단체: 행복을 뿌리는 관 ○ 사업내용: 한국민요, 퓨전음악, 가곡, 아리아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4 문화정책백서」

<표 II-11> 2005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교류협력 사업(비서구권 대상)

행 사 명	행 사 개 요
국립국악관현악단 베트남 푸토성, 하노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5.4.13~18 /베트남 푸토성, 하노이 ○ 공연내용: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곡 및 우리가락 모음
한국전통예술단 이집트, 알제리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5. 4. 15~22/ 이집트, 알제리 ○ 목적: 산조합주, 부채춤,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한.이집트 수교10주년, 한·알제리 수교15주년 기념 양국간 문화교류에 기여 ○ 공연단체 : 정동극장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5.4.23~24/ 인도네시아 반둥 ○ 공연내용: 전통의상 패션쇼, 호관무, 여인검무 등 ○ 공연단체: 가인무용단
멕시코 한인이주100주년기념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한국의 신명 樂.歌.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2005.5.5~10 / 멕시코시티 외 ○ 공연내용: 줄타기, 경기민요, 강강술래, 살풀이 등

멕시코한인이주100주년기념 한국민화도자화 순회전	○ 기간/장소: 2005.5.12~6.2 (멕시코국립석유공사전시실), 2005.6.28~7.12 (에콰도르중앙국립박물관) ○ 사업내용: 현대백자 위에 재현한 조선민화 전시(61점)
멕시코한인이주 100주년기념 충남국악관현악단 멕시코초청공연	○ 기간/장소: 2005.5.3~15/멕시코시티, 엘살바도르 외 ○ 공연내용: 관현악합주, 대취타 연주 등 7개 작품
한·몽골수교15주년기념 <천년의 전통, 한국의 춤과 예술>	○ 기간/장소: 2005.5.18~23/몽골 ○ 공연내용: 민속음악, 무용 등 9개 작품 공연(2회)
개도국지원 청년문화봉사단 파견(스리랑카)	○ 기간/장소: 2005.6.22~9.22 / 스리랑카 ○ 전수내용: 국악부문(가야금, 판소리, 대금, 피리)
한·미얀마 수교30주년기념 현대한국화전	○ 기간/장소: 2005.7.20~28 / 미얀마 랑군 ○ 전시내용: 동양화(수묵 및 채색화) 50점 전시
중남미수교 및 이민40주년 기념공연	○ 기간/장소: 2005.9.3~15/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공연내용: 문정근 산조전통무용단 중남미공연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인도네시아실 오픈 기념 초청공연	○ 기간/장소: 2005.10.26~29 ○ 내용: 인도네시아 전통공연, 전통춤 배우기
한·라오스 수교10주년기념 라오스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 기간/장소: 2005.10.27~28/ 국립극장 ○ 내용: 라오스 국립 예술단 초청 공연
한·중앙아시아 친선 및 고려인 위문 송년음악회	○ 기간/장소: 2005.12.22~30/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내용: 한국서양성악가와 현지 서양음악가 합동공연, 남도소리 및 재 즈양상블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5 문화정책백서」

②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문화교류협력 사업만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비서구권 문화교류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역점사업(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전문가들을 관련기관(국립문화시설, 산하유관기관, 지자체)으로 초청하여 6개월 이상 연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실무연수,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이며,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2015년까지 연간 1,000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 제고 및 (아시아 각국) 인력 풀 증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 곧,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12>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15 (2005년 시범사업)

○ 총사업비 : 1,253억원

(단위: 억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예산	12	32	86	100	120	130	150	160	180	190	200	1,360
인원	103	395	500	600	750	900	1,000	1,200	1,300	1,450	1,680	9,878

○ 사업규모 : 매년 1,000명씩 10년간 만 명 초청, 지원기간 1년

○ 분야 : 문화정책, 전통·현대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 수행기관 : 국립문화시설, 산하유관단체

○ 초청대상 :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 관광, 체육인

자료: 홍기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중간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16쪽.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번역원 등 11개 기관이 12개 사업에서 78명을 초청했다. 10월에는 3일간 전주를 방문하여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했으며, 12월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표 II-13> 2005년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세부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해당국	초청 지수	주요사업내용
문화예술정책 연구인력연수	10.10~1.31	○ 미얀마, 베트남	2	- 문화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대상국 문화자료 DB 구축 - 연세대 어학당 한국어 연수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연수	9.1~2.28	○ 인도네시아	2	- 전시시설 및 수장고 시스템 교육 - 유물 보존처리 기법 교육 - 박물관 인도네시아실 유물 전시 -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연수
유망작가초청 작품활동지원	9.4~12.24	○ 몽골, 베트남, 터키	6	- 한국문학인과 정기 교류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작업 지원 -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연수
문화기관 종사자 행정 연수	9.7~1.31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스리랑 카	5	- 위원회 각 부서(시설) 행정연수 - 참가자 문화행정교류 워크숍 -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 연수
근현대 큐레이터연수	12.20~4.20	○ 인도	1	- 한국 미술 이해 및 작가연구 - 아시아 큐비즘 기획전 참여
민족음악인 공동창작	10.4~1.31	○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8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합동 연습 및 공 연 참가 - 동국대 어학원 한국어 연수

무대기술 스텝 초청	10.4 ~ 1.31	○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8	- 국립극장 공연제작 참여 - 공연관람 및 시설 견학 - 동국대 어학원 한국어 연수
전통공연 예술가 국악연수	10.1 ~ 1.31	○ 우즈베키스탄, 몽골	2	- 한국전통 음악/무용 강습 -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연수
예술계 유학생 유치	9.1 ~ 12.31	○ 태국, 라오스,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중국, 인니, 캄보디아	20	- 해당전공 수업 참여 (영화과, 디자인과, 애니과, 창작과 등) -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연수
스포츠과학 관계자연수	10.4 ~ 1.16	○ 베트남	1	-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 - 전공분야 교육연구 프로젝트 참여 - 한국외대 어학당 한국어 연수
체육관계자 초청 연수	10.4 ~ 11.25	○ 베트남, 대만, 몽골, 시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1	- 체육교류 방안 공동 모색 - 대회참관 및 스포츠 시설 견학 - 이화여대 어학원 한국어 연수
태권도 관계자 연수	9.26 ~ 11.19	○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우즈베크	12	- 경희대 태권도 아카데미 교육 -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

자료: 박영대(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제정리, 65쪽.

2005년 시범사업 참가 후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 ‘한국을 미래의 협력국가로 인식’, ‘한국의 문화산업 경쟁력’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사업 참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대폭 늘었다.

둘째, 다른 아시아 참가자들과의 정보 공유, 교환 및 관련 분야 아시아 전문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오히려 줄었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절차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8) 자료: 홍기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중간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17~37쪽.

<표 II-14>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참여자 의견

구분	사업참가 이전	사업참가 이후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	긍정(31명), 알 수 없음(17명), 부정(4명)	긍정(41명), 알 수 없음(9명), 부정(0명)
한국을 미래의 협력국가로 인식	긍정(40명), 알 수 없음(9명), 부정(4명)	긍정(50명), 알 수 없음(1명), 부정(0명)
한국문화산업 경쟁력	긍정(34명), 알 수 없음(15명), 부정(4명)	긍정(42명), 알 수 없음(5명), 부정(3명)
다른 아시아 참가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교환	긍정(44명), 알 수 없음(5명), 부정(4명)	긍정(43명), 알 수 없음(6명), 부정(2명)
관련 분야 아시아 전문직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긍정(40명), 알 수 없음(9명), 부정(4명)	긍정(34명), 알 수 없음(13명), 부정(5명)
프로그램 내용	긍정(41명), 알 수 없음(11명), 부정(1명)	
프로그램 참여 절차	긍정(34명), 알 수 없음(10명), 부정(1명)	

자료: 홍기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중간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17~37쪽.

한편, 이 사업을 진행한 8개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준비 및 체계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유보적인 평가가 많았다.

<표 II-1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주관기관 준비도

주관기관의 준비성	긍정(1개), 보통(6개), 부정(1개)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의 체계성	긍정(2개), 보통(5개), 부정(1개)

자료: 홍기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중간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17~37쪽.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9개 사업에 대해 14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며 담당기관도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간 초청인원을 총 9,700여명으로 목표(총 1만명)하고 있으며, 총 40여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현 유엔가입 191개국중 아시아 48개국) 또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온라인 월간지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지원조직 설치 및 관련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문화도시(Culture Capital City of Europe) 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⁹⁾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지원단체, 사업내용, 사업장소 정도가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비서구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추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업명 또는 사업장소가 비서구권인 경우를 임의로 추출해 본 결과, 비서구권 교류지원 사업은 전체 문화교류사업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지원실적¹⁰⁾

	비서구권		서구권 및 대상국가 불분명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004년	14건	9%	145건	91%
2005년	20건	9%	201건	91%
2006년	24건	9%	250건	91%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내부 자료 재정리

(3)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는 매년 3~5건 정도가 수행되고 있다. 곧, 2002년 5건, 2003년 4건, 2004년 3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3년간 진행된 사업 12건은 모두 공연예술단이 외국에 가서 공연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9) 박영대(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61~69쪽.
- 10) 2004~2005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목록의 몇 가지 카테고리(2004년 14종, 2005년 15종, 2006년 12종) 중 국제교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포함하였고, 2006년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로 더 다양한 지원장르에서의 지원대상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17> 외교통상부 비서구권 교류사업

연도	관련사업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장(콜롬비아, 이베로 아메리카 연극제, '우루왕' 참가, 3월) - 국립국악원(칠레 등 중남미 5개국, 4월) - 베트남 수교 10주년 기념 문화행사(7-12월, 사물놀이, 판소리, 영화제 등) - 금호 현악4중주단, 현대조형작가전(이란, 10, 12월) - 국립무용단(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8-9월)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신자무용단(페루,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10월) - 국립국악원(인도, 4월) - 가야금 앙상블 '사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9월) - 국수호 디딤무용단(미얀마, 12월)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경순 예전무용단(네팔, 6월) - 국수호 디딤무용단(브루나이, 6월) - 우리춤 예술원(우루과이, 10월)

(4)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지원(한국학 및 한국어), 연구 장학, 문화예술교류, 인적교류 및 한국관련 자료출판 등의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비중이 높은 해외 한국연구지원사업은 한국학에 대한 현지의 수요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전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미국과 서유럽에 사업 편중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점차 비서구권 지역으로 한국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학자 및 전문가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장학사업은 지역적 안배를 통해 비서구권 인사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별 대상지역이나 국가를 특화함으로써 지역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곧, 문화예술교류, 해외인사초청사업은 미국 외 지역과의 교류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외교관연수프로그램, 동남아교육자연수프로그램, 아중동차세대, 서남아 차세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은 비서구권 지역을 대상으로 2005-2006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다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문화예술교류사업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13%, 2004년에 36%, 그리고 2005년에 9% 정도이다.

<표 II-18>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사업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8월 현재)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비서구권	3회	13%	16회	36%	2회	9%
서구권	15회	63%	20회	44%	15회	68%
국내	6회	25%	9회	20%	5회	2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2005),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 재정리

3개년 평균은 약 19%에 불과한데다 연도별 편차가 심해서 비서구권 대상 문화 예술교류사업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피지원 단체들이 서구권을 선호하며 재단 기획 사업은 해마다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는 2005년 개관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센터는 쌍방향 문화교류를 표방하고 외국의 다양한 문화, 특히 그동안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외국문화의 소개에 힘쓰고 있다.

국제 인사초청이나 파견에 대한 자료를 보면, 파견하는 경우에는 서구권에 집중되어 있지만(94%),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서구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05년에는 초청인사의 75%가 비서구권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구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재들이 그들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지만, 비서구권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발전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초청을 많이 한 결과로 보인다.

<표 II-19>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인사초청 및 파견 현황

		주관초청			파견인사		
		인원	비율	소계	인원	비율	소계
비서구권	2004	13명	39%	57%	4명	8%	6%
	2005	9명	75%		1명	4%	
서구권	2004	20명	61%	43%	45명	92%	94%
	2005	3명	25%		27명	96%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2005),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 재정리

한편, 인사초청을 주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비서구권 비중이 2003년 14%, 2004년 24%, 2005년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 지역의 다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20>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인사초청 (주관 및 지원) 현황

사업	초청인원(명)			비율
	서구권	비서구권	계	
2003	85	14	99	14%
2004	81	25	106	24%
2005	79	52	131	40%
계	245	91	336	27%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5)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넓은 범주에서 보면 교류사업부와 문화사업부 2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류사업부의 지원사업 내용에는 세계 171개국의 각 지역별 한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과 한인 이주기념 사업에 대한 지원, 한인회관(교육, 문화 등 다용도 회관을 말함) 건립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문화사업부의 지원은 동포로 구성된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규모나 지원단체도 훨씬 적은 편이다. 실제로 문화사업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은 1억3천만원(2006년 기준)인데, 교류사업부의 지원 예산은 19억8천만원(2006년 기준)으로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각국 한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균 연 1회 이상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들은 대부분 공연을 조직하고 코디네이팅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논의 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연구는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문화예술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문화사업부의 지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가운데, 서구권 국가에 대해 이루어진 지원비율이 80%를 상회하며, 지원받은 서구권 단체의 비율은 90%를 넘는다. 이처럼 재외동포 문화예술지원사업도 서구권에 편중되어있다.

<표 II-21> 재외동포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

	국가				지원단체			
	서구권		비서구권		서구권		비서구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003	6	86%	1	14%	18	95%	1	5%
2004	8	80%	2	20%	23	92%	2	8%
2005	5	83%	1	17%	25	96%	1	4%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3~2005 문화사업부 지원실적」 재정리

그렇지만 비서구권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과는 별도로 특수지 민족문화보급유지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 연구에서 비서구권 지역으로 분류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단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표 II-22>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급유지 활동지원(2003)

(단위 : 천원)

국가명	관할공관	지원대상명	사업내용	지원액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	고려가무단	고려인동포예술인 지방방문공연	1,262
		우즈베키스탄 (대)	고려인동포화가 미술전시회	631
		우즈베키스탄 (대)	한국문화주간행사	8,865
중국	선양(총)	조선족민족문화발전위 원회	조선족가요대전출판	4,742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흑룡강성 동포사회 국악훈련반 개설	7,029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대)	카자흐스탄(대)	고려극장 시설 지원	10,01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	나호트카 고려인민족 문화자치회	연해주고려인 문화의날 축제	10,570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대)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	제8회 고려인 문화 페스티벌	4,100
계				47,212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3~2005 문화사업부 지원실적」

<표 II-23>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급유지 활동지원(2004)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지원대상명	사업내용	지원액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	고려문화협회	고려인 동포예술단 지방순회공연	2,374
		아리랑극단	극장장비 및 악기 구입	3,360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대)	국립고려극장	공연기자재 구입	3,477
		Lamplight Group of Art & Culture	<잊혀져가는 고려인 민속노래 모음집>발간	8,11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대)	키예프도라지무용단	전통무용기자재 구입	3,512
		하리꼬프시고려인협회	하리꼬프 고려인 문화행사	3,675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	하바롭스크 한인이주 140주년 준비위원회	하바롭스크 코리아주간	10,500
		한인러시아이주 140주년기념사업회	연해주고려인 문화의 날	21,000
중국	선양(총)	월간 연변문학사	월간'연변문학' 조선족학교 무료배포운동	8,036
		연변조선족문화발전 추진회	<중국조선족가요대전> 출판비	3,444
		중국연변불로송예술단	불로송예술단 창단 10주년 경축대회	2,296
국내	-	국립중앙극장	2004 재외동포 예술인 초청연수	7,000
		사)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 길마중 전국순회공연	20,000
		아이러브코리아	서울-길림성 함께하는 세상전	3,000
		윤 프로덕션	고려인사회 달력배부사업	5,288
계				105,075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3~2005 문화사업부 지원실적」

<표 II-24> 재외동포재단의 특수지 민족문화보존유지 활동지원(2005)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지원대상명	사업명	지원액
중국	선양(총)	요녕성 무순 조선족문화관	조선족문화관 촬영자재 지원	1,508
		중국연변 단풍수필회	수필집 발간	1,303
		연변조선족 서법가협회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서예제전	2,634
		조선족음악연구회	조선족 전통음악 연구 발간지원	2,634
		길림성연변 연극단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지원	5,244
		연변대예술학원 조선족민족악단	조선족 민족악단 민족음악활동 지원	2,622
		심양시조선족 연의회	조선족 예술절 행사지원	3,304
	상하이(총)	상해한인 음악동호회	제5회 교민어울마당 행사	3,14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	사할린예술단	러시아 사할린예술단 모국방문 공연	13,637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대)	고려문화협회	한국문화주간 행사	2,01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대)	고려인협회	제10회 고려인 문화 페스티벌	15,548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대)	국립고려극장	공연장 녹음실 설치	2,011
국내	국내	영북민속 문화연구회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53돌 기념 공연	3,900
		지식문화사	제4회 나라안팎 기록문화상	10,000
		지구촌 동포청년연대	제1회 재외동포 영화제	10,000
		통일문화예술원	창작오페라'메밀꽃 필 무렵'러시아 공연	7,000
		윌프로덕션	제16차 고려인사회 달력보내기 사업지원	9,217
계				95,722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3~2005 문화사업부 지원실적」

(6)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양과 다양성은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진행중인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진행된 전체 문화교류 가운데 비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30% 정도다.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비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 22건(29%), 2005년에 13건(15%)이다. 곧, 2004년의 71%, 2005년의 85%는 서구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 비서구권과 관련된 경우는 약 9%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의 지원사업 가운데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는 연간 3~5건 정도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비서구권 문화사업은 2003년 3회(13%), 2004년 16회(36%), 2005년 2회(9%)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서구권 문화사업은 2003년 15회(63%), 2004년 20회(44%), 2005년 15회(68%)이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비서구권지역은 2003년 1개국, 2004년 2개국, 2005년 1개국에 불과한 형편이다.

둘째, 교류형태도 공연예술단체가 외국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시 네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공연(무용, 타악, 전통공연)이 주된 교류장르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감(交感)하기 어려운 데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보면, 미술전시회도 마찬가지로 지이지만 미술작품의 수 부족과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공연위주의 교류가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공연 가운데서도 전통공연이 가장 많으며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는 전통문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통공연이 우리문화를 알리는 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외국에서 수행하는 공연전체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번째로 외국의 공연단체가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문화 알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문화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문화를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계기성 사업, 곧 ‘대상국가와의 수교 ○○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지역)와의 교류를 시작할 때는 현실적으로 계기성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계기성 사업으로 시작된 교류를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결국, 이 같은 교류비중, 교류형태, 그리고 교류주기가 지속된다면, 향후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비서구권 지역과의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의 실현이 요구된다. 덧붙여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은 대상지역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교류의 방향성이 1회성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대상지역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외국의 인력을 초청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연수를 실시하는 형식, 곧 교류가능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다. 인적자원이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인식의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비서구권 문화교류는 이처럼 인적자원의 충원과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류가 어느 정도 궤도(軌道)에 오른 서구권과는 달리, 비서구권과의 교류에서는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서구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 해외사례

우리보다 앞서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각기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자국 언어 보급, 국제협력, 문화교류 등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문화원, 독일문화원, 스웨덴 재단은 1900년대 초중반에 설립되어 이미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분포되어있는 해외지부를 거점으로 하여 왕성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표 II-25> 주요 국가의 국제문화교류 기관

구분	영국 British Council (영국문화원)	독일 Goethe Institute (독일문화원)	일본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
설립년도	1934년	1951년	1972년
기관성격 (소관부처)	공익법인 (외무성에서 재정지원)	공익법인(외무성과 업무대 행 계약 체결)	독립행정법인
설립목적	영국 및 영어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 외국과의 문 화·과학·기술·교육분야 상호 협력 촉진	해외에서의 독일어 보급 과 지원, 국제간의 문화교 류 증진	일본에 대한 제외국의 이 해를 심화하고, 국제상호 이해를 증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보급사업 - 초청, 파견 등 국제협력사업 - 예술 및 과학분야 교류 사업 - 영국 내 교육훈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어 보급사업 - 문화교류사업 (예술, 음악, 연극) - 독일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일본연구지원 (일본어보급 포함) - 인물교류 - 문화예술교류 - 출판자료사업 - 일·미협력사업
주요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57% - 자체수입 40% (영어교습비, 운용수익 등) - 민간기부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67% - 자체수입 33% (독어교습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85% - 자체수입 9% (운용수익, 기부금 등) - 민간기부금 6% (11억엔) ※적립금 1,110억엔
연간예산	4억 8천 5백만 파운드 (8억 8천 2백만불) *2004/05 예산 기준	2억 7천 8백만 유로 (3억 3천 5백만불) *2004년 예산 기준	162억엔 (1억 5,000만불) *2003년 예산 기준
인원 (해외근무인원)	5,400여명(3,800여명)	3,100여명	310여명(80여명)
해외지부/ 센터	110개국 220여개소 (사무소, 어학센터)	78개국 144개소 (사무소, 어학센터)	18개국 22개소(사무소, 일 본문화센터, 일본어센터)

구분	스페인 Cervantes Institute (스페인문화원)	포르투갈 Camoës Institute (까몽이스 재단)	스웨덴 Swedish Institute (스웨덴 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설립년도	1991년	1992년	1945년	1991년
기관성격 (소관부처)	외무부 산하 비영리 법인	외무부 산하 재단 법인	공익법인 (외무부에서 재정지원)	외교통상부 산하 특수법인
설립목적	스페인어 및 스페인 어권 문화의 보급	포르투갈어 언어와 문 화의 해외보급과 국제 통용어로서 포르투갈어 의 진흥	스웨덴에 관한 지식 을 보급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증진	국제사회에서 한국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어 보급 사업 - 스페인어어권 문화 소개(공연, 전시, 영화, 출판 등) - 도서관 운영(스페인어권 문화관련 최신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어 진흥 사업 - 문화 소개 사업 - 해외 포르투갈문화센터 관리, 지원 - 외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준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에 관한 지식 및 정보보급(출판, 인터넷 등) - 스웨덴연구 및 스웨덴어 교육 지원 - 문화교류사업 - 국제협력(중·동부 유럽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한국연구지원(한국어 보급 포함) - 연례포럼 - 인사교류 - 문화교류 - 출판자료사업
주요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40% - 자체수입 60% (스페인어교습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99% - 자체수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100% (주로 외무부 예산이며, 기타 교육부, 문화부 예산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기여금 64% - 기금 운용 수익 36%
연간예산	4천 7백만불 *2001년 예산 기준	30억 에스쿠두 (1천 3백 5십만불)	1억 8천 5백만 크로나 (1천 8백만불) *2003년 기준	223억원 (2천 6백만불) *2005년 예산 기준
인원 (해외근무인원)	985명	90여명	90여명	72명(3명)
해외지부/ 센터	28개국 37개소	14개국 20개소(포르투갈 문화센터, 포르투갈어센터)	1개소 (파리 스웨덴 문화센터)	2개소(설치) 3개소(설치예정)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2005),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 재정리

이 가운데 아시아지역과 유럽에서 각각 앞선 국제문화교류를 펼치고 있는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과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비서구권 교류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교류기관의 하나인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1972년 6월 공포된 국제교류기금법에 의거, 같은 해 10월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발족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와 문화예술교류를 3대 주요 업무로 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문화예술교류는 미술, 무대, 영상,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의 국제교류사업과 공동제작, 사람과 삶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외국의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현지 일본어 강사의 양성 등과 함께 해외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학습, 교육환경의 정비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는 해외에 있어서의 일본이해의 기초가 되는 일본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세계와 지역의 공동과제에의 이해를 높이고 그 해결을 향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적 교류 사업을 말한다. 2004년도 사업 실적의 지역별 내용별 구성은 아래 <표 II-26>와 같다.

<표 II-26> 2004년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역별 활동내용 구성비

(단위 : 백만 엔)

구분	활동 내용												총액	비중
서구	재외사업비		문화예술		일본연구, 지적교류		일본어교육		협력사업 필요 경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1,511	18.4%
	779	51.5%	419	27.7%	152	10.0%	122	8.0%	41	2.7%	0.9	0.1%		
대양주	재외사업비		일본어교육		문화예술		일본연구, 지적교류		조사연구, 정보제공		협력사업 필요 경비		536	6.5%
	279	52.1%	146	27.2%	76	14.1%	35	6.5%	0.8	0.1%	-	-		
북미	일본연구, 지적교류		재외사업비		협력사업 필요 경비		문화예술		일본어교육		조사연구, 정보제공		1,526	18.5%
	919	60.2%	211	13.8%	169	11.1%	144	9.5%	80	5.2%	-	-		
동아시아	일본연구, 지적교류		일본어교육		문화예술		협력사업 필요 경비		재외사업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1,085	13.2%
	418	38.5	265	24.4%	200	18.5%	102	9.4%	97	9.0%	3	0.2%		
동남아시아	일본어교육		문화예술		재외사업비		일본연구, 지적교류		조사연구, 정보제공		협력사업 필요 경비		1,250	15.2%
	619	49.4%	258	20.7%	205	16.4%	169	13.5%	0.08	0.01%	-	-		
동구	일본어교육		문화예술		일본연구, 지적교류		재외사업비		협력사업 필요 경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733	8.9%
	357	48.7	228	31.1%	113	15.4%	29	3.9%	5	0.7%	2	0.2%		
중동, 북아프리카	문화예술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지적교류		재외사업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협력사업 필요 경비		642	7.8%
	336	52.2%	157	24.4%	107	16.7%	43	6.6%	0.8	0.1%	-	-		

아프리카	문화예술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지적교류		협력사업 필요 경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재외사업비		104	1.3%
	65	63.5%	17	16.4%	15	15%	5	5.2%	-	-	-	-		
남아시아	문화예술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지적교류		재외사업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협력사업 필요 경비		350	4.3%
	160	45.8	109	31.2%	57	16.3%	23	6.6%	0.02	0.01%	-	-		
중남미	문화예술		재외사업비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지적교류		조사연구, 정보제공		협력사업 필요 경비		485	5.9%
	211	43.8%	124	25.7%	116	24.1%	30	6.3%	0.6	0.1%	-	-		

자료: 일본국제교류기금(2005), 「일본국제교류기금 연보」 재정리, 62~63쪽.

투입 예산의 크기별로 지역을 보면, 북미 15억 2천6백만 엔, 서구 15억 1천1백만 엔, 동남아시아 12억 5천만 엔, 동아시아 10억 8천5백만 엔, 동구 7억 3천3백만 엔, 중동, 북아프리카 6억 4천2백만 엔, 대양주 5억 3천6백만 엔, 중남미 4억 8천5백만 엔, 남아시아 3억 5천만 엔, 아프리카 1억 4백만 엔의 순이다. 이 가운데 연구에서 서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북미, 서구, 대양주, 동구)은 전체의 52.3%, 비서구권 지역은 34.5%다.¹¹⁾

이는 지난 5년간 사업실적액의 상위 20개국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표 II-27> 일본국제 교류기금의 사업실적액 상위 20개국, 2000-2004

(단위 : 백만 엔)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명	실적액	국명	실적액	국명	실적액	국명	실적액	국명	실적액
미국*	1,640	미국*	1,574	미국*	1,420	미국*	1,152	미국*	1,351
중국	734	중국	766	중국	1,084	프랑스*	678	프랑스*	558
프랑스*	648	한국	608	한국	583	중국	568	중국	529
러시아	563	영국*	582	프랑스*	548	인도네시아	417	한국	511
인도네시아	544	프랑스*	535	인도네시아	417	태국	365	호주*	453
영국*	461	인도네시아	494	영국*	386	한국	357	인도네시아	347
한국	444	말레이시아	364	태국	330	호주*	326	독일*	299
태국	418	태국	360	브라질	293	러시아	302	태국	256
독일*	399	독일*	335	말레이시아	285	말레이시아	300	브라질	235
말레이시아	370	브라질	333	호주*	282	영국*	265	러시아	219
브라질	359	호주*	329	인도	230	이탈리아*	234	말레이시아	218

11) 또한, 동아시아가 전체의 13.2%인데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의 국제교류지원도 서구권(65.5%)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호주*	321	러시아	288	러시아	230	독일*	232	이탈리아*	213
인도	275	인도	230	독일*	228	브라질	222	영국*	196
이탈리아*	266	이탈리아*	225	이탈리아*	200	인도	175	인도	193
필리핀	194	이집트	171	멕시코	139	필리핀	156	캐나다*	160
이집트	181	필리핀	155	필리핀	128	캐나다*	123	필리핀	156
캐나다*	177	캐나다*	139	캐나다*	125	이집트	119	이집트	150
멕시코	142	멕시코	107	이집트	101	베트남	81	베트남	97
네덜란드*	117	우즈베키스탄	96	헝가리	79	헝가리	80	그리스*	70
폴란드	110	베트남	93	스리랑카	75	싱가포르	77	헝가리	68
서구권 비중	48.2%	서구권 비중	47.8%	서구권 비중	44.5%	서구권 비중	48.4%	서구권 비중	55.6%

* 서구권 국가로 분류

지난 5년 간 사업실적액으로 본 상위 20개국에는 서구권 국가가 6~8개국에 불과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교류사업 예산이 44.5%~55.6%를 점하고 있어 서구권 중심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략 15위 이하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의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서구권 치중이라는 평가를 변하지시킬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서구권 중심의 교류는 그 형태에 있어서도 <표Ⅱ-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서구권 교류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곧, 서구와 대양주의 경우에는 재외사업비가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와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가 최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남아와 동구에서는 일본어교육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 순위에 있어서도 비서구권에서는 문화예술과 일본어교육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는 문화예술과 일본어교육에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창립된 이래 지역별 사업 실적액 비율은 아래 <표Ⅱ-28>와 같다.

<표 II-28> 일본국제 교류기금 1972-2004년도 지역별 실적액 비율의 추이¹²⁾

연도	서구권								소계 (%)	기타		소계 (%)
	e	f	g	h	k	l	m	r		s	t	
1972	•	•	12.2	•	19.5	•	•	•	31.7	28.7	•	28.7
1973	0.6	•	31.2	•	57.5	0.7	•	0.5	90.5	•	•	0
1974	1.5	•	40.1	0.3	7.9	0.9	0.1	1.5	52.3	2.1	•	2.1
1975	3.7	•	43.8	•	10.5	2.5	0.1	2.5	63.1	1.6	•	1.6
1976	4.9	•	30.2	•	12.9	2.6	•	3.1	53.7	3	•	3
1977	4.2	•	42.2	•	26.9	3	•	3.7	80	0.4	•	0.4
1978	3.2	•	40.7	•	15.9	1.6	•	2	63.4	2.8	•	2.8
1979	3.3	•	32.4	•	12.7	1.6	•	1.3	51.3	1.7	•	1.7
1980	8.5	•	25.6	•	17.4	1.4	•	2.1	55	2.3	•	2.3
1981	4.8	•	28.7	•	15.3	2	•	2.1	52.9	2.5	•	2.5
1982	4.5	•	28.6	•	11	2	•	1.9	48	2.3	•	2.3
1983	2.8	•	44	•	11.5	1.5	0.1	1.8	61.7	1.4	•	1.4
1984	3.4	•	33.5	•	14.5	2.6	•	1.7	55.7	1.8	•	1.8
1985	3	•	30	•	14.3	2	•	5.9	55.2	5.2	•	5.2
1986	2.9	•	26	•	17.4	2.1	0.2	3.8	52.4	5.5	•	5.5
1987	2.8	•	24.6	•	18	3	•	3.8	52.2	7	•	7
1988	1.8	•	16.5	•	15.9	1.6	•	2.3	38.1	5.7	•	5.7
1989	3.2	•	10.2	•	17.1	4.2	•	4.6	39.3	16.2	•	16.2
1990	4.6	•	15.1	•	14.8	4.5	0.7	6.5	46.2	9.8	•	9.8
1991	2.9	•	24.5	•	33.2	2	0.1	3.5	66.2	10.8	•	10.8
1992	3.2	•	21.9	•	21.5	4.2	•	6.8	57.6	14.5	•	14.5
1993	3.5	0.1	21	•	18.4	5.6	0.1	6.7	55.4	14.7	•	14.7
1994	3.3	•	20	•	10.6	6.6	0.3	4.2	45	21.6	•	21.6
1995	3.2	•	18.2	•	15.2	5.7	0.3	3.7	46.3	16.1	•	16.1
1996	4.3	•	13.7	•	13.3	6.1	0.3	19.4	57.1	4.5	•	4.5
1997	3.5	•	15.7	•	18	5.4	0.2	19	61.8	1.9	•	1.9
1998	3.8	•	14.4	•	18.8	5.7	•	17.4	60.1	4.6	•	4.6
1999	3.2	•	14.4	•	13.9	5.6	0.1	2.8	40	24.1	•	24.1
2000	2.6	•	11.6	•	13.9	7.9	0.1	15.4	51.5	14	•	14
2001	2.8	•	11.8	•	13.5	6.6	0.1	4.9	39.7	9.2	16.3	25.5
2002	2.7	•	11.7	•	11.5	5.7	0.1	6.1	37.8	8.2	17.6	25.8
2003	3.6	•	10.8	0.1	13.3	6	0.2	4.9	38.9	9.9	15.3	25.2
2004	4.3	•	16.2	•	12.2	5.9	0.3	•	38.9	32.9		32.9

12) a 동아시아, b 동남아시아, c 남아시아, d 아시아구분곤란, e 대양주, f 대양주구분곤란, g 북미, h 북미구분곤란, I 중남미, j 중남미구분곤란, k 서구, l 동구, m 구주구분곤란, n 중근동 북아프리카, o 중근동 북아프리카 구분곤란, p 아프리카, q 아프리카 구분곤란, r 일본, s 전세계 구분곤란, t 전세계 구분곤란

연도	아시아				소계 (%)	중남미		소계 (%)	중동 및 아프리카				소계 (%)	총액 (백만엔)
	a	b	c	d		i	j		n	o	p	q		
1972	•	39.6	•	•	39.6	•	•	0	•	•	•	•	0	183
1973	0.2	3.2	1.4	•	4.8	2.9	•	2.9	1	•	0.8	•	1.8	5,240
1974	3.1	10.9	2.1	0.2	16.3	26.5	•	26.5	2.1	•	0.6	•	2.7	2,541
1975	5.1	14.2	2.4	0.6	22.3	7.3	•	7.3	4.5	•	1.2	•	5.7	2,567
1976	4.8	13.6	5.3	•	23.7	8.4	•	8.4	9.1	0.4	1.7	•	11.2	3,270
1977	0.4	11.2	2.1	•	13.7	4.3	•	4.3	0.9	•	0.7	•	1.6	3,734
1978	6.9	9.5	2.8	0.5	19.7	8.4	•	8.4	4.7	•	0.9	•	5.6	5,031
1979	13.6	19.9	2.7	•	36.2	6	•	6	2.6	0.6	1.6	•	4.8	5,710
1980	7.8	14.8	3.4	4.4	30.4	7.2	•	7.2	3.4	0.1	1.5	•	5	5,237
1981	7.9	12.5	5.9	3.6	29.9	7.1	•	7.1	6.3	•	1.4	•	7.7	5,325
1982	9.9	18.6	4.7	•	33.2	9.3	0.2	9.5	5.6	•	1.4	•	7	5,045
1983	9.2	10.6	2.9	2.8	25.5	6.5	•	6.5	3.8	•	0.9	•	4.7	6,282
1984	8.6	13.1	3.2	4.1	29	6.5	•	6.5	5.1	•	2	•	7.1	6,634
1985	10.6	14.1	2.8	•	27.5	7.3	•	7.3	3.8	•	0.9	•	4.7	6,262
1986	11.6	14.3	3.1	0.9	29.9	7.3	•	7.3	3.4	•	1.5	•	4.9	6,446
1987	13.8	12.1	4.7	0.3	30.9	5.9	•	5.9	3	•	1	•	4	13,291
1988	36.5	7.8	1.8	0.5	46.6	5.6	•	5.6	2.2	•	1.9	•	4.1	11,204
1989	12.4	15.7	2.5	1.1	31.7	6.7	•	6.7	4.5	•	1.7	•	6.2	10,374
1990	10.2	15.6	2.5	6.2	34.5	6	•	6	2.3	•	1.2	•	3.5	13,880
1991	6.1	10.4	1.6	0.3	18.4	2.5	•	2.5	1.2	•	1	•	2.2	19,787
1992	6.8	12.2	1.9	0.3	21.2	3.2	•	3.2	2.6	•	0.9	•	3.5	17,646
1993	6.7	13.2	1.6	•	21.5	5.1	•	5.1	2.2	•	1.1	0.1	3.4	16,311
1994	8.8	13.7	1.9	0.3	24.7	5.1	•	5.1	2.5	•	1.1	•	3.6	14,995
1995	8.2	16.3	2.5	0.3	27.3	5.6	0.1	5.7	2.8	•	1.7	•	4.5	15,919
1996	8.1	16.8	3.1	0.4	28.4	5.7	•	5.7	3.1	•	1.4	•	4.5	15,470
1997	7.7	15.2	2.9	0.3	26.1	6.3	•	6.3	2.7	•	1.3	•	4	16,501
1998	7.4	14.2	3.3	0.2	25.1	5.5	•	5.5	2.8	•	1.8	0.3	4.9	15,091
1999	8.3	13.7	3	1.3	26.3	5.4	•	5.4	3.1	•	1.1	•	4.2	14,237
2000	8.3	12	3.1	0.9	24.3	5.5	•	5.5	3.1	•	1.6	•	4.7	15,621
2001	10	11.3	2.9	1.6	25.8	4.9	•	4.9	3.2	•	1	•	4.2	14,504
2002	13.2	10.9	3.3	1	28.4	4.8	•	4.8	2.6	•	0.8	•	3.4	13,157
2003	8.2	13	2.4	3.2	26.8	4	•	4	4	•	0.8	•	4.8	11,773
2004	8.8	10.1	2.8	0.5	22.2	3.9	•	3.9	5.2	•	0.8	•	6	12,398

<표 II-29>는 위 표의 내용을 지역별 비중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표 II-29> 일본국제교류기금 1972-2004년도 지역별 실적액 비율의 추이(재분류)

(단위 : 백만 엔)

연도	실적총액	서구	기타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1972	183	31.7%	28.7%	39.6%	0.0%	0.0%
1973	5,240	90.5%	0.0%	4.8%	2.9%	1.8%
1974	2,541	52.3%	2.1%	16.3%	26.5%	2.7%
1975	2,567	63.1%	1.6%	22.3%	7.3%	5.7%
1976	3,270	53.7%	3.0%	23.7%	8.4%	11.2%
1977	3,734	80.0%	0.4%	13.7%	4.3%	1.6%
1978	5,031	63.4%	2.8%	19.7%	8.4%	5.6%
1979	5,710	51.3%	1.7%	36.2%	6.0%	4.8%
1980	5,237	55.0%	2.3%	30.4%	7.2%	5.0%
1981	5,325	52.9%	2.55	29.9%	7.1%	7.7%
1982	5,045	48.0%	2.3%	33.2%	9.5%	7.0%
1983	6,284	61.7%	1.4%	25.5%	6.5%	4.7%
1984	6,634	55.7%	1.8%	29.0%	6.5%	7.1%
1985	6,262	55.2%	5.2%	27.5%	7.3%	4.7%
1986	6,446	52.4%	5.5%	29.9%	7.3%	4.9%
1987	13,291	52.2%	7.0%	30.9%	5.9%	4.0%
1988	11,204	38.1%	5.75	46.6%	5.6%	4.1%
1989	10,374	39.3%	16.2%	31.7%	6.7%	6.2%
1990	13,880	46.2%	9.8%	34.5%	6.0%	3.5%
1991	19,787	66.2%	10.8%	18.4%	2.5%	2.2%
1992	17,684	57.6%	14.5%	21.2%	3.2%	3.5%
1993	16,311	55.4%	14.7%	21.5%	5.1%	3.4%
1994	14,995	45.0%	21.6%	24.7%	5.1%	3.6%
1995	15,919	46.3%	16.1%	27.3%	5.7%	4.5%
1996	15,470	57.1%	4.5%	28.4%	5.7%	4.5%
1997	16,501	61.8%	1.9%	26.1%	6.3%	4.0%
1998	15,091	60.1%	4.6%	25.1%	5.5%	4.9%
1999	14,237	40.0%	24.1%	26.3%	5.4%	4.2%
2000	15,621	51.5%	14.0%	24.3%	5.5%	4.7%
2001	14,504	39.7%	25.5%	25.8%	4.9%	4.2%
2002	13,157	37.8%	25.8%	28.4%	4.8%	3.4%
2003	11,773	38.9%	25.2%	26.8%	4.0%	4.8%
2004	12,398	38.9%	32.9%	22.2%	3.9%	6.0%

<표Ⅱ-29>에서 기타의 항목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세계 전체와 관련되는 사업이거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주요 이슈의 경우 아무래도 서구권의 발언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서구권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경우 1988년의 서울올림픽 등 몇몇 특수 상황이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말까지도 서구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중국과 한국,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아세안을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의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 영국

(1) 영국문화원의 비서구권 문화교류

영국은 70여 년 전에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10개 국가에 영국문화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2,400만 명이상이 영국문화원을 이용할 정도로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양적 및 질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영국문화원은 조직의 미션이 영국 국민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영국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Creative Ideas)과 창의적인 업적에 대한 감상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① 문화교류 방향: 영국문화원의 ‘전략 2010 (Strategy 2010)’

영국문화원은 더욱 활발한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해 ‘전략 2010 (Strategy 2010)’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의 목적은, 첫째 전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둘째 영국과 타국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타국가간의 보다 강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영국문화원은 ‘전략 2010’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 계획 ‘Corporate Plan 2006-08’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면, ‘전략 2010’의 목적 아래에 일곱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첫째, ‘국제화(Internationalism)’인데 영국문화원이 중개(仲介)하여 발전시킨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영국이나 다른 국가 젊은이들의 시각을 국제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계(Long-term Relationships)’인데 이는 영국과 타국가간의 질적으로 수준 있는 관계의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 ‘호의적 교류(Positive Change)’로서 다른 국가들이 영국을 호의적인 사회교류의 대상국가로 점점 더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아발전(Self-Development)’으로 다른 국가 사람

들이 영국을 자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점점 더 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창의성(Creativity)'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창의적 생각을 낳고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 영국을 점점 더 선택할만한 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세계적 권위(World Authority)'인데 이것은 영국문화원이 영어 학습, 문화교류 및 예술과 교육의 국제적 측면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곳으로 점점 더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목표는 '효율성(Efficiency)'인데 유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영국문화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문화교류 성과지표 개발

영국문화원은 '전략 2010'의 목적인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성공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첫째, 관객(Audiences) 숫자로서, 2010년까지 예술, 과학, 교육 및 스포츠 등을 통해 영국의 창의적 생각(Ideas)을 경험하는 관객 수를 5,000만 명으로 늘린다고 계획하였다. 둘째, 교육(Education)으로 2010년까지 전 세계의 2,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지속적인 혜택을 입으며 영국을 자신의 자아발전을 위해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성과지표가 영어(English)인데, 이것은 전 세계의 영어학습자 및 영어 교사들이 영국으로부터 영어교육에 필요한 기술, 아이디어 및 자료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 간 대화 (Intercultural Dialogue)인데, 2010년까지 영국의 뛰어난 젊은이들 1만명 정도와 다른 국가들의 젊은이 1만명 정도가 문화교류와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성공지표는 'London 2012'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영국과 다른 국가출신 수백만의 젊은이들 간의 교류 및 상호 문화이해의 유산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③ 영국의 국가간 문화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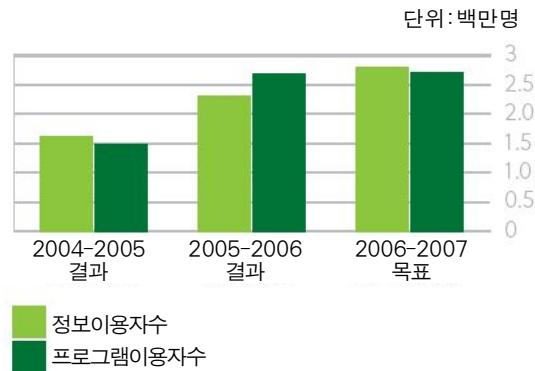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영국문화원 「2005-06 연간보고서」에서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국과 타국가간 문화교류 현황을 110개국에 위치해 있는 영국문화원의 방문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국문화원은 110개 국가를 크게 13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지역들은 ① 서유럽과 북미(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② 북유럽 및 중부유럽(North and Central Europe), ③ 동남부유럽(South-East Europe), ④ 러시아(Russia), ⑤ 중동(Middle East), ⑥ 근동 및 북아프리카(Near East and North Africa), ⑦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East

and West Africa), ⑧ 남아프리카(Southern Africa), ⑨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Central and Southern Asia), ⑩ 인도 및 스리랑카(India and Sri Lanka), ⑪ 동아시아(East Asia), ⑫ 중국(China), ⑬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Latin American and Caribbean)이다.

이들 13개의 지역 중, 이 연구가 조사하고 있는 ‘비서구권’ 국가들 중심으로 영국의 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비서구권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교류가 활발한 서유럽 및 북미지역과의 문화교류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0> 영국 문화원의 서유럽 및 북미지역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공화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문화교류 목표	자아발전(Self-Development)으로서 교류국가들이 영국을 자기성장을 위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교류를 목표로 함. 예를 들어 스페인 교육부와 함께 이중언어 프로젝트(Bilingual Project)를 계획하여 영국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스페인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전체 교과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문화교류 규모	관객 수(Audiences)를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영국문화원 정보(on-line과 off-line 정보 모두를 포함)를 이용한 사람 수(Reach)이며, 나머지는 영국문화원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 수 (Engagement)임. 서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영국문화원이 제공하는 정보 이용자 수는 2005-2006년 동안 약 225만명이며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60만여명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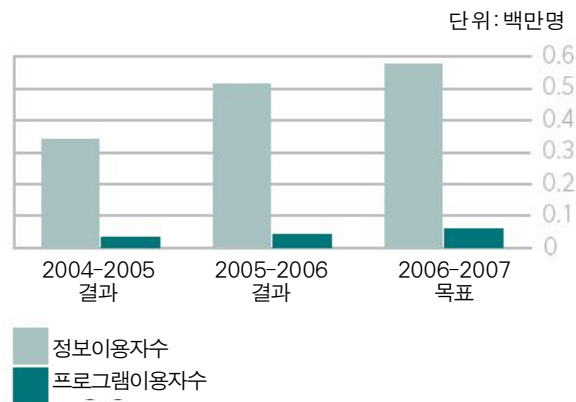
<그림 II-6> 서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㉔ 중동(Middle East)지역

문화교류를 실시한 중동국가는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예멘,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호의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진행이다. 이용자를 정보이용자(Reach)와 프로그램 이용자(Engagement)로 나눠보면 <그림 II-7>과 같다. 중동지역 국가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숫자는 서유럽 및 북미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비서구권 6개 권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곧, 중동지역 국가 사람들 중 영국문화원의 정보 이용자 수는 2005~2006년 동안 약 50여만 명이었으며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5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II-31> 영국문화원의 중동지역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예멘,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문화교류 목표	호의적인 교류 (Positive Change)를 목표로 국제정치적 갈등 및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국가, 특히 이라크가 영국을 사회교류를 하는 주요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라크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예를 들어, 캠브리지대학에 이라크출신의 박사후 과정 프로그램을 두는 것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60만 파운드 지원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그림 II-7> 중동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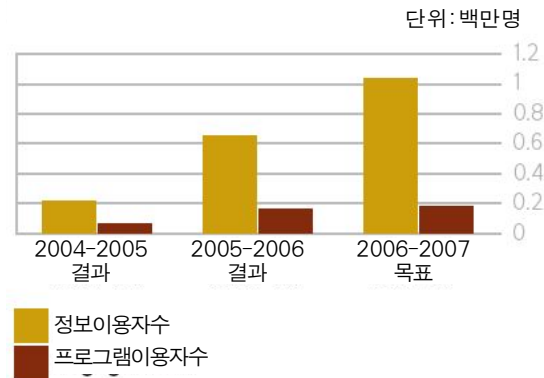
㉕ 근동 및 북아프리카 (Near East and North Africa)

문화교류를 실시한 근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영역, 시리아, 튀니지 등이다.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국

제화이며, 호의적인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진행이다. 이용자를 정보이용자(Reach)와 프로그램 이용자(Engagement)로 나뉘보면 <그림 II-8> 과 같다.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용자는 6개의 비서구권역에서 중동과 남아프리카보다는 많지만, 다른 권역보다는 낮은 편이다.

<표 II-32> 영국문화원의 근동 및 북아프리카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영역, 시리아, 튀니지
문화교류 목표	국제화(Internationalism)를 목표로 영국과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종교적 갈등(무슬림과 비무슬림들간의 갈등)을 극복하여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교류에 집중하고 있음. 예를 들어, 무슬림 및 비무슬림 젊은이들 중심의 음악, 미술, 대중매체 중심의 축제 개최를 통해 무슬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대한 논의를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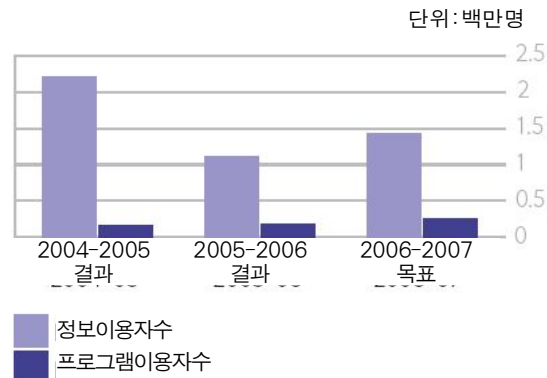
<그림 II-8>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㉔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East and West Africa)

문화교류를 실시한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국가는 카메룬,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다.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호의적인 교류(Positive Change)로 이 지역에서 영국을 사회교류를 하는 주요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서아프리카 지역의 이용자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곧, 정보이용자는 6개 권역 가운데 중남아시아에 이어 2순위, 프로그램 이용자는 남미/카리브, 중앙아시아/남아시아에 이어 3순위이다.

<표 II-33> 영국문화원의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카메룬,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문화교류 목표	호의적인 교류(Positive Change)를 목표로 이 지역에서 영국을 사회교류를 하는 주요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InterAction' 프로그램 운영.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영국의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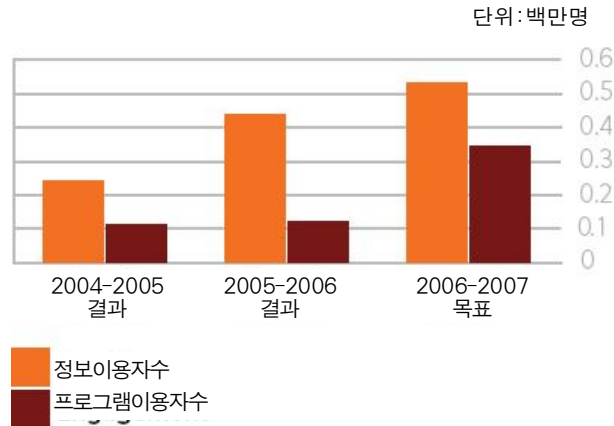
<그림 II-9>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㉞ 남아프리카 (Southern Africa)

문화교류를 실시한 남아프리카 국가는 보츠와나,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며,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장기적 관계(Long-term Relationships)의 설정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이용자는 중동과 마찬가지로 6개권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표 II-34> 영국문화원의 남아프리카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보츠와나,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문화교류 목표	장기적 관계(Long-term Relationships)를 목표로 남아프리카 국가의 인권, 민주화, 바람직한 합치(Governance), 그리고 경제 발전의 혜택이 아프리카 국가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문화원은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고,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에 힘쓰고 있음. 특히, 영국문화원은 짐바브웨를 주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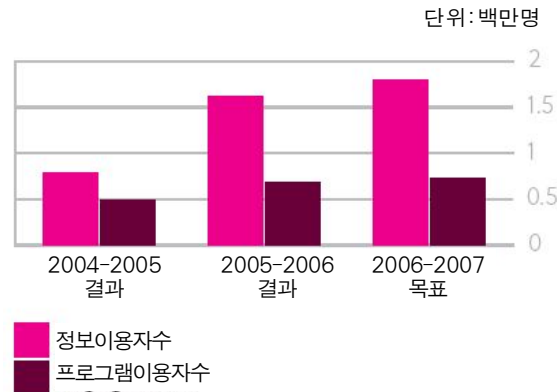
<그림 II-10>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㉞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Central and South Asia)

문화교류를 실시한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창의적 생각(Creative Ideas)으로 이란과 방글라데시의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중남아시아지역의 이용자는 남미/카리브 지역과 함께 6개 권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표 II-35> 영국문화원의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목표	창의적 생각(Creative Ideas)을 목표로 이 지역 국가들이 창의적 생각과 업적을 고취하기 위해 영국을 그 대상 국가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현대미술관에서 20세기 영국 조각 전시의 성공이 그것이며, 이란과 영국이 문화 및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류를 할 계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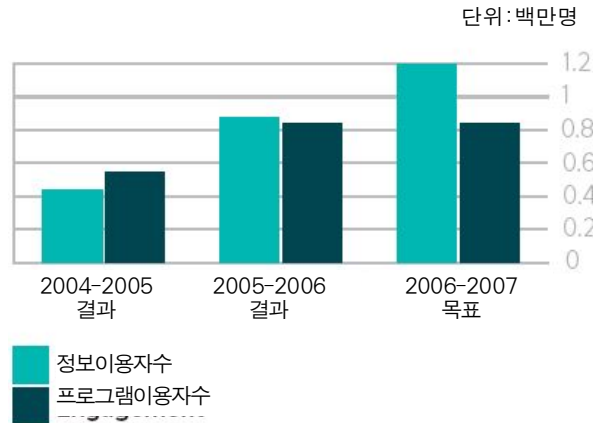
<그림 II-11>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㉞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서인도제도 지역)

문화교류를 실시한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등이다. 문화교류의 주요목표는 호의적 교류(Positive Change)다.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의 이용자는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와 함께 6개 권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표 II-36> 영국문화원의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문화교류

문화교류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문화교류 목표	호의적 교류(Positive Change)를 목표로 지난 세기동안 민주주의는 발달했으나 고인플레이션,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속적이지 못한 경제성장 등으로 고통 받은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서 영국문화원은 교육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호의적인 교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학교에서 성차별, 인종차별, 및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영국의 리즈대학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



<그림 II-12>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서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표 II-37> 2005-06 비서구권 지역의 영국문화원 정보 및 프로그램 이용자 실태

순서	정보 이용자 수(Reach)	프로그램 이용자 수(Engagement)
0순위	서유럽 및 북미	서유럽 및 북미
1순위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
2순위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3순위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4순위	근동 및 북아프리카	근동 및 북아프리카
5순위	중동	남아프리카
6순위	남아프리카	중동

(2) 예술방문원(Visiting Arts)

영국문화원이 문화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세계 110개의 국가에 있는 영국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 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반면, 예술방문원(Visiting Arts)은 해외 문화예술인들을 영국에 초청하여 상호국가간 문화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세워진 독립단체이다. 이 기관은 2006년 현재 영국의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Sport), 영국문화원, 잉글랜드예술원(Arts Council England), 스코틀랜드예술원(The Scottish Arts Council), 웨일즈예술원(The Arts Council of Wales), 북아일랜드예술원(The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에 의해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다.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은, 첫째 문화교류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문화교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장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예술방문원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학회 등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며, 혁신적이고 문화예술계에서 장차 리더가 될 만한 문화예술인들을 영국에 초청하는 등의 문화교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해외 문화예술인들을 영국에 초청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목록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별 및 분야별 문화예술인 목록, 초청에 필요한 재원을 얻는 방법, 초청서류양식과 작성법 등이 그것이다.

3) 해외사례 시사점

외국에서도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일찍이 시작한 일본과 영국에서는 권역별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교류에서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연구와 지적교류에, 동남아시아와 동구에서는 일본어교육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문화교류는 권역별로 목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동, 동아프리카/서아프리카, 남아메리카/카리브지역에서는 ‘호의적 교류’, 근동/북아프리카에서는 ‘국제화’, 남아프리카에서는 ‘장기적 관계’, 중앙아시아/남아시아에서는 ‘창의적 생각’을 문화교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II-38> 일본과 영국의 문화교류 중점사업/목표

일본		영국	
주된 지원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목표	지역
일본연구, 지적교류	북미, 동아시아	호의적 교류	중동, 동아프리카/서아프리카, 남아메리카/카리브
일본어 교육	동남아시아, 동구	국제화	근동/북아프리카
문화예술교류	기타 지역	장기적 관계	남아프리카
		창의적 생각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이처럼 권역별로 문화교류 수행 시, 목표 또는 중점사업이 다른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서구권이 단일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사례에서 보듯이 '동남아시아'와 '동구'에서는 일본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비서구권(동남아시아)과 서구권(동유럽)의 역점 프로그램이 같은 것이다. 반면에 영국사례에서는 같은 비서구권일지라도 북아프리카와 동/서아프리카에서 행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이 다르다. 지원사업의 목적이 북아프리카에서는 국제화이지만, 동/서아프리카에서는 호의적인 교류다. 이것은 동일한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문화권역이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외국에서도 교류가 비활성화된 지역과 문화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비활성화된' 지역(국가)이라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연구와 지적교류가 북미와 중국/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본어 교육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화교류가 일본의 국익창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교역이 활발하고 국제정치적 관계가 중요한 지역에는 자국연구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향후 교역이 늘어날 지역에는 언어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역시 대상국가가 영국과 앞으로 어떤 관련을 맺을지에 따라 문화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리 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비서구권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그것은 권역별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문화교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서구권은 단일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 또는 권역별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일본이나 영국도 국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사례를 볼 때, 비서구권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교류 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부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류의 비활성화 상태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동반하고, 관련 인적자원 부족은 고급정보의 획득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서구권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관련자료 수집은 관련 인적자원을 찾는 일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III.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실태와 교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조사명 :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단체와 개인이며,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조사 포함)로 진행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다. 조사대상 단체(개인)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재외동포재단, 각종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협조)한 국제 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를 수행한 단체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자 1차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단체) 목록을 검색하고 해당지역(비서구권) 전공자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자 1차 목록에 추가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 1차 목록(예술분야 관련단체 + 학술진흥재단 자료)을 검토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좇아, 비서구권과 문화교류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개인)를 추출하여 간략한 정보(이름, 연락처)가 수록된 2차 목록을 작성하였다.¹³⁾ 조사대상자에 단체와 개인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전문인력 자체는 개인이지만, 실제 교류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본정보를 통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교류 수행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단체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面接)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피조사자가 면접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팩스와 이메일로 조사표를 발송한 후, 답변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13) 1차 목록에 약 1,200개의 단체(개인)이, 2차 목록에 약 350개의 단체(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관련 전문가(관련 단체)를 추천하는 항목의 답변을 이용하여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이른바 스노우볼링(Snow Baling) 방법을 통해 표본을 확충해 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설문항 구성

설문항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관련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적성격, 설립연도, 설립목적, 주된활동, 상근직원, 회원구성, 회원(단원) 수, 예산, 주된 교류지역(국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관련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 연령, 학력(출신학교) 및 (세부)전공, 직업, 활동분야, 소속단체, 교류대상 지역(국가), 교류대상 국가 언어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단체(개인)의 교류행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행사명, 수행연도, 교류기간,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교류지역, 교류의 주기성, 교류 개시연도, 참여인원(참여자, 관람객), 예산구성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관련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교류수행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류이유, 교류효과, 정보취득원, 교류의 어려운 점, 얻기 어려운 정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력, 전문가 양성방안, 교류수행 이후 follow-up 프로그램 운영 등을 조사하였다.

<표 III-1> 설문조사 항목

조사내용		세부내용
일반정보	단체	법적성격, 설립연도, 설립목적, 주된활동, 상근직원, 회원구성, 회원(단원) 수, 예산, 주된 교류지역(국가)
	개인	성, 연령, 학력(출신학교) 및 (세부)전공, 직업, 활동분야, 소속단체, 교류대상 지역(국가), 교류대상 국가 언어사용 여부
교류행사(단체/개인)		행사명, 수행연도, 교류기간,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교류지역, 교류의 주기성, 교류 개시연도, 참여인원(참여자, 관람객), 예산구성 등
교류에 대한 의견(단체/개인)		교류이유, 교류효과, 정보취득원, 교류의 어려운 점, 얻기 어려운 정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력, 양성방안, 교류수행 이후 follow-up 프로그램 운영

3) 조사진행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한 단체와 개인이다. 이 가운데 응답한 단체는 97개, 개인은 199명, 그리고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단체(개인)는 200개(명)이다.¹⁴⁾ 또한, 응답단체(개인)가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수행한 교류행사는 모두 416건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단체 97개, 개인 199명, 교류행사 416건, 그리고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단체(개인) 200개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는 통계분석보다 오히려 개인과 개별단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교류행사에 대한 정보 역시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인력의 실태와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지, 교류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분석은 주로 교류에 대한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조사결과

1) 단체현황

응답단체 97개를 대상으로 일반사항(법적성격, 설립연도), 주된 활동분야, 구성원현황, 예산, 교류국가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III-2> 응답단체의 일반적 속성(97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백분율
[전 체]		97개	100.0
법인성격	법인	39	40.2
	비법인	56	57.7
	무응답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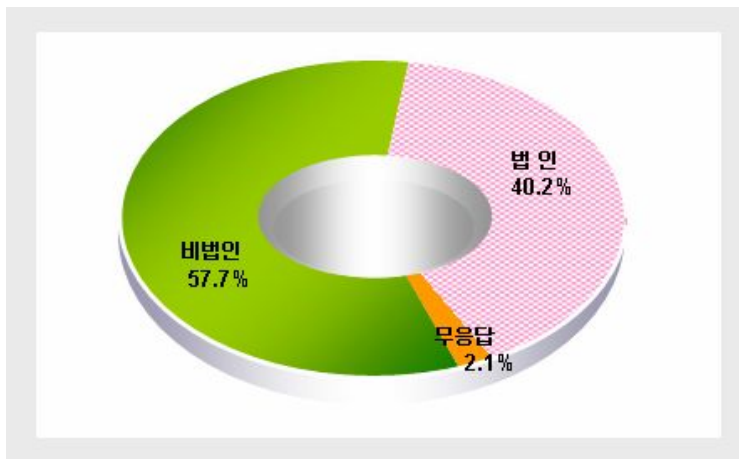
14) 응답단체 97개와 개인 199명을 합하면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응답 수는 296개(단체 또는 개인)가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에 인적 정보(성, 연령, 활동 분야 등)가 수록된 개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답변지가 296개일 수 없다.

주된 활동	예술창작	46	47.4
	예술기획/행정/교육	4	4.1
	학술	20	20.6
	문화일반	23	23.7
	무응답	4	4.1
회원구성	단원제	22	22.7
	회원제	57	58.8
	기타	14	14.4
	무응답	4	4.1
교류지역	아시아	71	73.2
	아프리카	1	1.0
	중남미	10	10.3
	기타/무응답	15	15.5

(1) 단체의 일반사항

① 단체의 법적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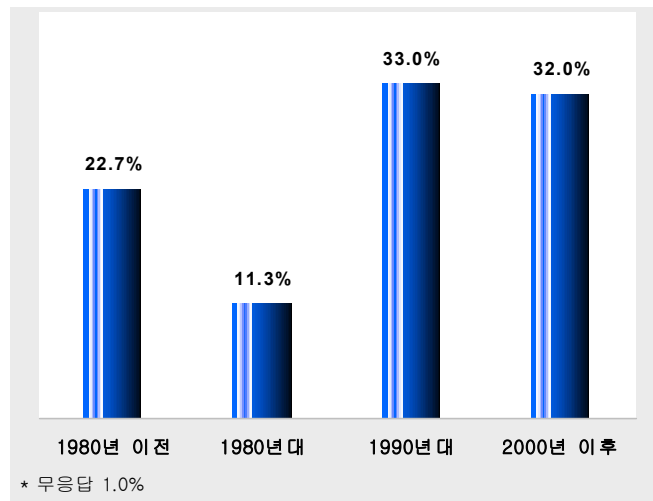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관(단체) 97개 가운데 ‘비법인’이 57.7%, ‘법인’은 40.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림 III-1> 단체의 법적 성격(97개 기준)

② 설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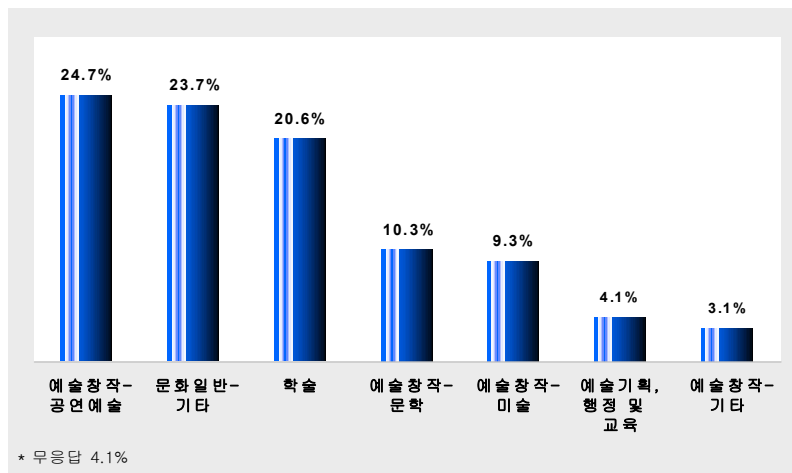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설립년도는 ‘1990년대’(33.0%) ‘2000년 이후’(32.0%), ‘1980년 이전’(22.7%), ‘1980년대’(11.3%)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2> 단체의 설립연도(97개 기준)

(2) 활동분야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주된 활동으로는 ‘예술창작-공연예술’(24.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일반-기타’(23.7%), ‘학술’(20.6%), ‘예술창작-문학’(10.3%), ‘예술창작-미술’(9.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단체는 공연예술단체가 가장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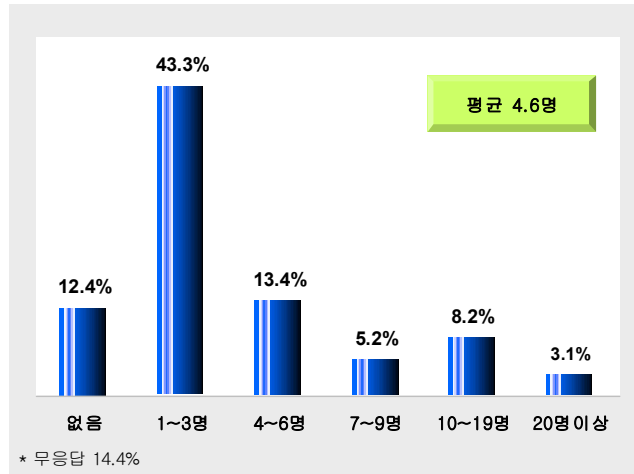


<그림 III-3> 단체의 활동분야(97개 기준)

(3) 구성원 현황

① 상근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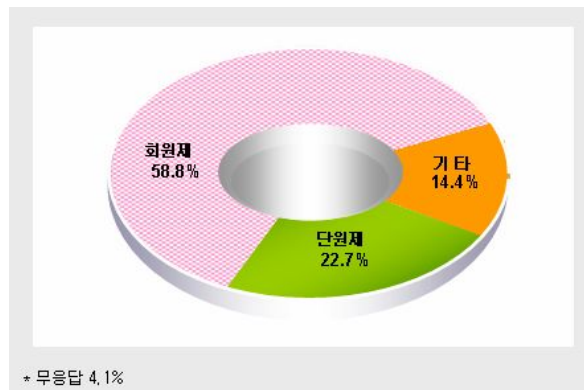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상근직원 수를 알아본 결과, 평균 상근직원 수는 4.6명 정도였다. 또한 상근직원이 전혀 없는 경우가 12.4%였다.



<그림 III-4> 단체의 상근직원 수(97개 기준)

② 회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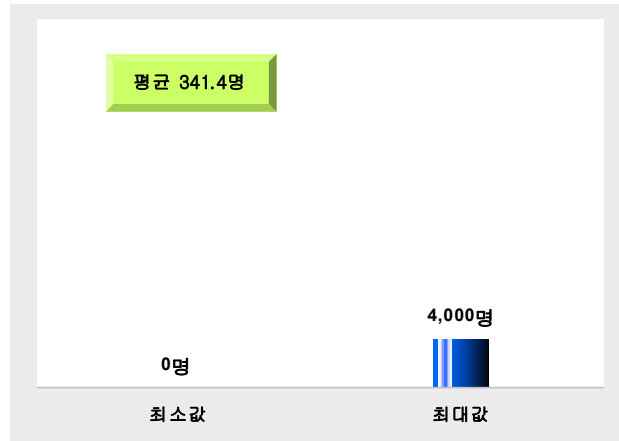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회원구성에서는 '회원제'(58.8%)가 '단원제'(22.7%)보다 많았다. 다만, 학술을 주된 활동분야로 삼는 단체에서는 단원제를 취하는 곳은 없었다.



<그림 III-5> 단체의 회원구성(97개 기준)

③ 회원·단원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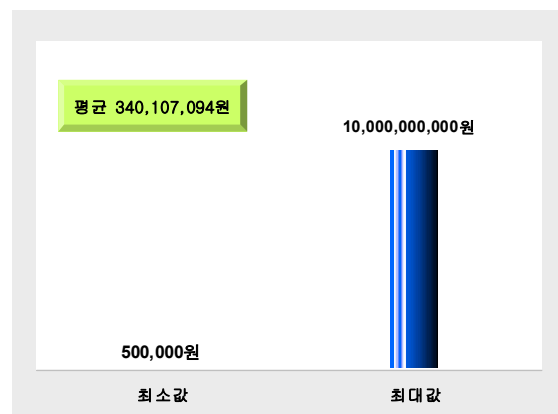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회원 및 단원의 총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1.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 0명에서 최대 4,000명 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단체의 구성원 수(97개 기준)

(4) 2005년 예산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2005년 예산평균은 3억4,011만원이었으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 까지 분포되어 편차가 매우 컸다. 학술을 주된 활동분야로 삼는 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이 평균 6,813만원으로 예술활동 단체보다 적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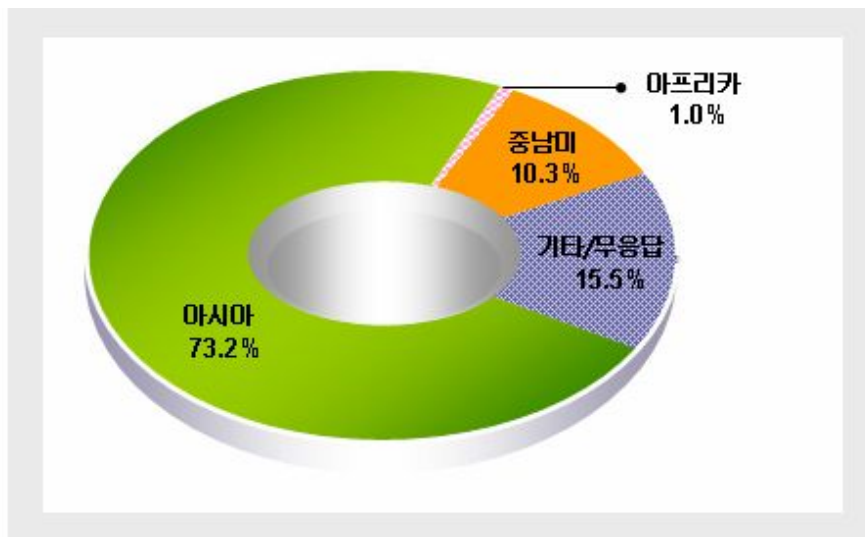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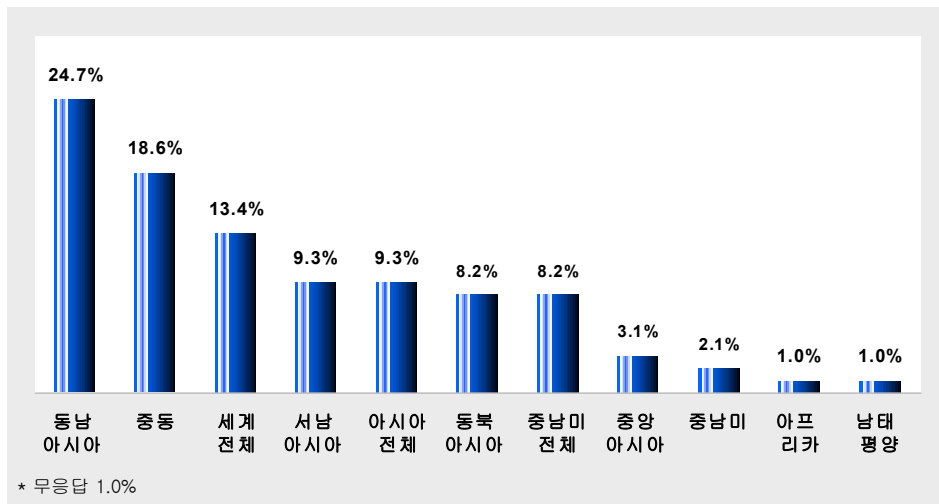


<그림 III-7> 단체의 2005년 예산(97개 기준)

(5) 문화교류 대상지역

전체 응답기관(단체)의 주된 문화교류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동'(18.6%), '세계 전체'(13.4%), '서남아시아'(9.3%), '아시아 전체'(9.3%), '동북아시아'(8.2%), '중남미 전체'(8.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을 대분류로 보면, '아시아'가 7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중남미'가 10.3%였으며, '아프리카'는 1.0%에 불과했다.



<그림 III-8> 단체의 문화교류 대상지역(97개 기준)

2) 전문인력현황

전문인력 199명의 사회경제적 속성(성, 연령, 학력, 직업), 활동분야, 교류국가, 언어구사 능력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전문인력은 비서구권과의 교류를 기획하거나 실제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실무담당자를 의미한다.

<표 III-3> 전문인력 응답자 속성(199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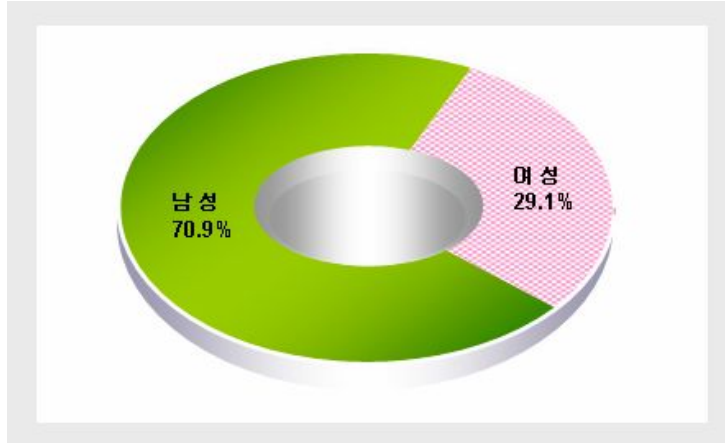
(단위 : %)

[전 체]		사례수	백분율
		199명	100.0
성별	남성	141	70.9
	여성	58	29.1
연령별	20대	15	7.5
	30대	42	21.1
	40대	72	36.2
	50대	41	20.6
	60대이상	15	7.5
	무응답	14	7.0
학력별	고졸	3	1.5
	대졸	93	46.7
	대학원이상	60	30.2
	무응답	43	21.6
직업별	학계	106	53.3
	예술계	34	17.1
	단체임원	19	9.5
	단체직원	20	10.1
	기타/무응답	20	10.1
활동분야	예술창작	75	37.7
	예술기획/행정/교육	22	11.1
	학술	67	33.7
	문화일반	18	9.0
	무응답	17	8.5
교류지역	아시아	154	77.4
	아프리카	6	3.0
	중남미	22	11.1
	기타/무응답	17	8.5

(1) 사회경제적 속성

① 성별

교류의 기획·실행자(199명)는 남성(70.9%)이 여성(29.1%)보다 많았다. 다만, 20대 연령층과 직업별로 단체직원(임원이 아님)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특성을 보였다.



<그림 III-9> 전문인력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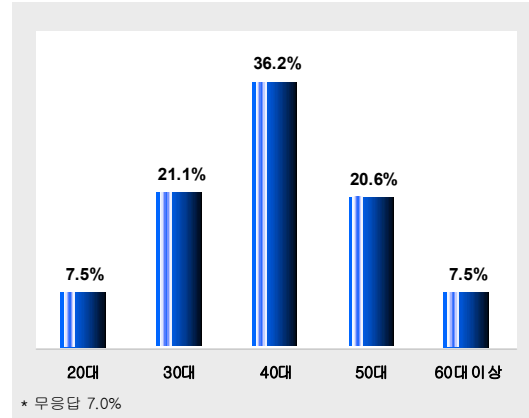
<표 III-4> 전문인력의 성별

(단위 : %)

		사례수	남성	여성	계
[전 체]		199명	70.9%	29.1%	100.0%
연령별	20대	15	20.0	80.0	100.0
	30대	42	66.7	33.3	100.0
	40대	72	76.4	23.6	100.0
	50대	41	78.0	22.0	100.0
	60대이상	15	93.3	6.7	100.0
	무응답	14	64.3	35.7	100.0
직업별	학계	106	77.4	22.6	100.0
	예술계	34	64.7	35.3	100.0
	단체임원	19	84.2	15.8	100.0
	단체직원	20	35.0	65.0	100.0
	기타/무응답	20	70.0	30.0	100.0

② 연령

교류 기획·실행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21.1%), '50대'(20.6%), '20대'(7.5%), '60대이상'(7.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10> 전문인력의 연령

상대적으로 여성, 단체직원, 예술기획·행정·교육 담당자의 연령대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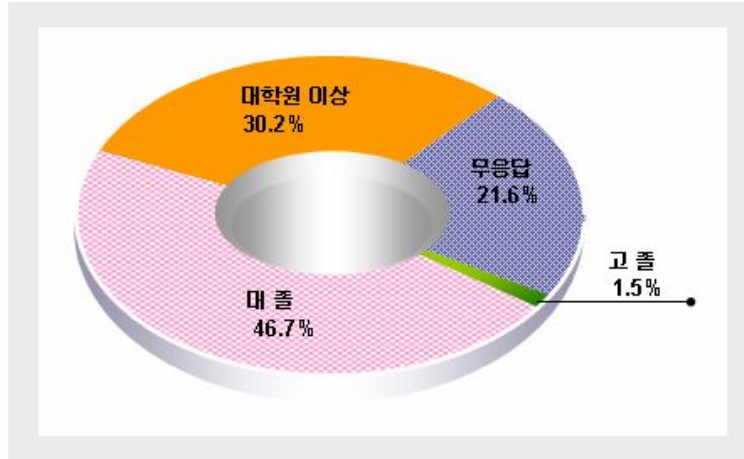
<표 III-5> 전문인력의 연령

(단위 : %)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무응답	계
[전 체]		199명	7.5%	21.1%	36.2%	20.6%	7.5%	7.0%	100.0%
성별	남성	141	2.1	19.9	39.0	22.7	9.9	6.4	100.0
	여성	58	20.7	24.1	29.3	15.5	1.7	8.6	100.0
직업별	학계	106	0.9	16.0	44.3	25.5	4.7	8.5	100.0
	예술계	34	2.9	26.5	35.3	17.6	8.8	8.8	100.0
	단체임원	19	5.3	21.1	36.8	10.5	21.1	5.3	100.0
	단체직원	20	30.0	40.0	15.0	10.0	0.0	5.0	100.0
	기타/무응답	20	30.0	20.0	15.0	20.0	15.0	0.0	100.0
활동분야	예술창작	75	6.7	17.3	40.0	20.0	10.7	5.3	100.0
	예술기획/행정/교육	22	36.4	40.9	22.7	0.0	0.0	0.0	100.0
	학술	67	1.5	19.4	40.3	23.9	3.0	11.9	100.0
	문화일반	18	0.0	27.8	22.2	27.8	22.2	0.0	100.0
	무응답	17	5.9	11.8	35.3	29.4	5.9	11.8	100.0

③ 학력

교류 기획·실행자의 학력은 '대졸자'가 46.7%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30.2%) 학력자가 다음으로 많아서 비교적 학력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III-11> 전문인력의 학력

상대적으로 학계 종사자(학술교류자)와 중남미지역 교류자의 경우 대학원 이상 학력층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중남미지역 교류자의 학력이 높은 것은 중남미 지역과 상대적으로 학술교류가 많은 데서, 다시 말해서 학술계 종사자가 많은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표 III-6> 전문인력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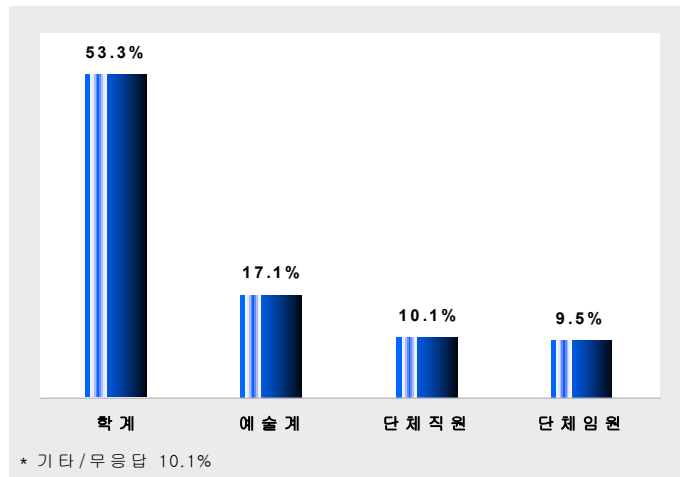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계
[전 체]		199명	1.5%	46.7%	30.2%	21.6%	100.0%
직업별	학계	106	0.0	49.1	40.6	10.4	100.0
	예술계	34	2.9	55.9	14.7	26.5	100.0
	단체임원	19	0.0	31.6	31.6	36.8	100.0
	단체직원	20	5.0	25.0	25.0	45.0	100.0
	기타/무응답	20	5.0	55.0	5.0	35.0	100.0
활동분야	예술창작	75	2.7	52.0	20.0	25.3	100.0
	예술기획/행정/교육	22	4.5	36.4	18.2	40.9	100.0
	학술	67	0.0	44.8	47.8	7.5	100.0

	문화일반	18	0.0	55.6	22.2	22.2	100.0
	무응답	17	0.0	35.3	29.4	35.3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54	1.3	44.8	29.2	24.7	100.0
	아프리카	6	0.0	66.7	16.7	16.7	100.0
	중남미	22	0.0	40.9	50.0	9.1	100.0
	기타/무응답	17	5.9	64.7	17.6	11.8	100.0

④ 직업

교류 기획·실행자의 직업을 분류해본 결과 ‘학계’ 종사자가 53.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17.1%), ‘예술단체 직원’(10.1%), ‘예술단체 임원’(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전문인력의 직업

학계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남성, 40~50대, 중남미지역 교류자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예술기획·행정·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인력들은 단체 직원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7> 전문인력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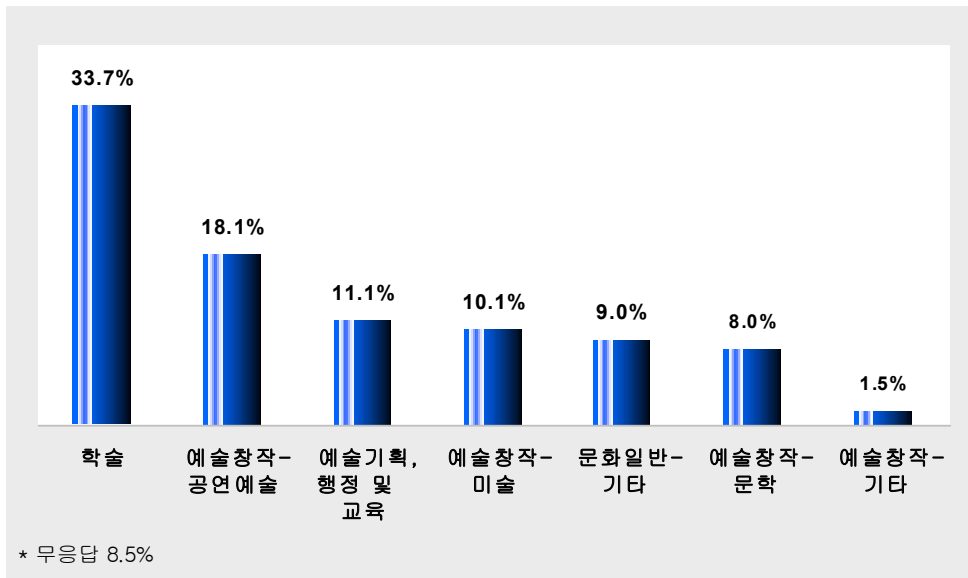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학계	예술계	단체임원	단체직원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199명	53.3%	17.1%	9.5%	10.1%	10.1%	100.0%
성별	남성	141	58.2	15.6	11.3	5.0	9.9	100.0
	여성	58	41.4	20.7	5.2	22.4	10.3	100.0
연령별	20대	15	6.7	6.7	6.7	40.0	40.0	100.0
	30대	42	40.5	21.4	9.5	19.0	9.5	100.0
	40대	72	65.3	16.7	9.7	4.2	4.2	100.0
	50대	41	65.9	14.6	4.9	4.9	9.8	100.0
	60대이상	15	33.3	20.0	26.7	0.0	20.0	100.0
	무응답	14	64.3	21.4	7.1	7.1	0.0	100.0
활동 분야	예술창작	75	32.0	42.7	12.0	8.0	5.3	100.0
	예술기획/행정/교육	22	13.6	9.1	9.1	40.9	27.3	100.0
	학술	67	94.0	0.0	3.0	1.5	1.5	100.0
	문화일반	18	22.2	0.0	27.8	11.1	38.9	100.0
	무응답	17	70.6	0.0	5.9	11.8	11.8	100.0
교류 지역	아시아	154	53.9	18.2	7.1	9.7	11.0	100.0
	아프리카	6	50.0	16.7	33.3	0.0	0.0	100.0
	중남미	22	77.3	4.5	9.1	4.5	4.5	100.0
	기타/무응답	17	17.6	23.5	23.5	23.5	11.8	100.0

(2) 활동분야

전문인력의 주된 활동분야는 '학술'(33.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창작-공연예술'(18.1%), '예술기획·행정·교육'(11.1%), '예술창작-미술'(10.1%), '문화일반-기타'(9.0%), '예술창작-문학'(8.0%)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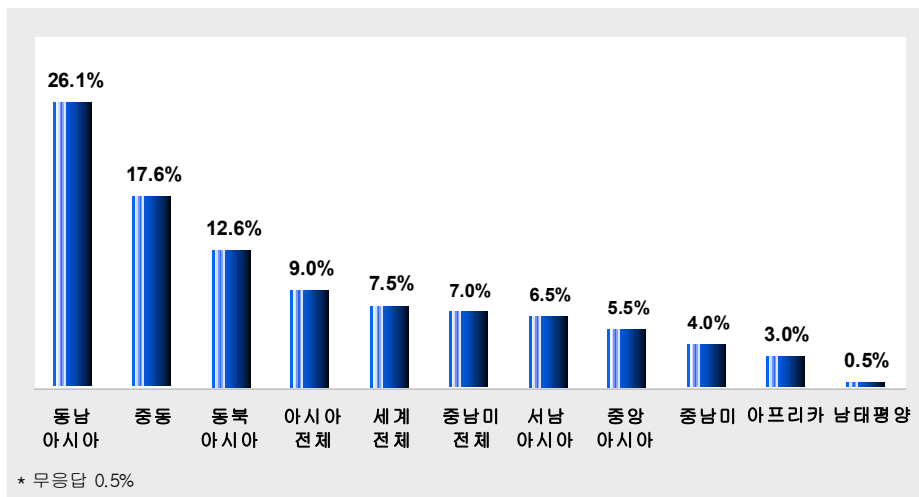
단체의 활동분야(97개 대상)에서 '예술창작-공연예술', '문화일반-기타', '학술'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학술' 교류가 단체가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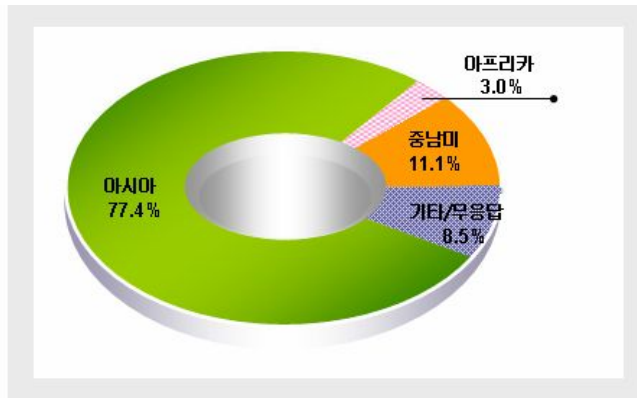


<그림 III-13>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3) 교류지역

전문인력이 주로 교류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17.6%), '동북아시아'(12.6%), '아시아 전체'(9.0%), '세계 전체'(7.5%), '중남미 전체'(7.0%)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류 대상지역을 큰 권역으로 묶어보면, '아시아'가 77.4%였다.





<그림 III-14> 전문인력의 교류지역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동남아시아지역과 교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아시아 전체 또는 세계 전체와 교류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계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시아와 교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계 종사자들이 중동지역과 교류하는 비율(25.5%)이 동남아시아 교류(24.5%)보다 약간 높았으며, 중남미지역과 교류하는 비율(5.7%)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예술계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와 교류하는 비율(14.7%)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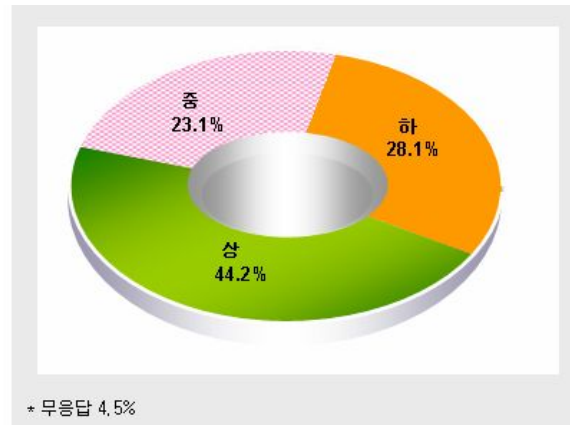
<표 III-8> 전문인력의 교류지역

(단위 : %)

		사례수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중동	아프 리카	중남 미	남태 평양	아시아 전체	중남미 전체	세계 전체	무응 답	계
[전 체]		199명	26.1%	12.6%	6.5%	5.5%	17.6%	3.0%	4.0%	0.5%	9.0%	7.0%	7.5%	0.5%	100.0%
성별	남성	141	31.2	11.3	5.7	6.4	18.4	3.5	3.5	0.7	5.7	7.8	5.7	0.0	100.0
	여성	58	13.8	15.5	8.6	3.4	15.5	1.7	5.2	0.0	17.2	5.2	12.1	1.7	100.0
직업 별	학계	106	24.5	13.2	9.4	2.8	25.5	2.8	5.7	0.0	2.8	10.4	2.8	0.0	100.0
	예술계	34	23.5	17.6	2.9	14.7	11.8	2.9	2.9	0.0	11.8	0.0	8.8	2.9	100.0
	단체임원	19	26.3	5.3	0.0	0.0	15.8	10.5	0.0	0.0	10.5	10.5	21.1	0.0	100.0
	단체직원	20	30.0	10.0	10.0	10.0	0.0	0.0	5.0	0.0	15.0	0.0	20.0	0.0	100.0
	기타/무응답	20	35.0	10.0	0.0	5.0	5.0	0.0	0.0	5.0	30.0	5.0	5.0	0.0	100.0
활동 분야	예술창작	75	21.3	16.0	5.3	10.7	10.7	1.3	4.0	0.0	10.7	5.3	13.3	1.3	100.0
	예술기획/ 행정/교육	22	31.8	0.0	4.5	4.5	13.6	0.0	4.5	0.0	31.8	0.0	9.1	0.0	100.0
	학술	67	22.4	16.4	6.0	3.0	29.9	4.5	4.5	0.0	1.5	10.4	1.5	0.0	100.0
	문화일반	18	50.0	5.6	5.6	0.0	0.0	11.1	5.6	0.0	11.1	5.6	5.6	0.0	100.0
	무응답	17	29.4	5.9	17.6	0.0	23.5	0.0	0.0	5.9	0.0	11.8	5.9	0.0	100.0

(4) 언어구사 능력

교류 기획·실행자의 해당국가 언어구사 능력을 알아본 결과, '상'(44.2%), '하'(28.1%), '중'(23.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전문인력의 언어구사 능력

직업별로는 학계 종사자의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가 61.3%였으나, 예술계 인사들에서는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가 2.9%에 불과했다. 또한 교류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과 교류하는 인력의 언어구사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전문인력의 언어구사 능력

(단위 : %)

		사례수	상	중	하	무응답	계
[전 체]		199명	44.2%	23.1%	28.1%	4.5%	100.0%
직업별	학계	106	61.3	20.8	14.2	3.8	100.0
	예술계	34	2.9	23.5	73.5	0.0	100.0
	단체임원	19	42.1	42.1	15.8	0.0	100.0
	단체직원	20	30.0	25.0	35.0	10.0	100.0
	기타/무응답	20	40.0	15.0	30.0	15.0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54	40.3	24.0	30.5	5.2	100.0
	아프리카	6	50.0	16.7	33.3	0.0	100.0
	중남미	22	81.8	9.1	9.1	0.0	100.0
	기타/무응답	17	29.4	35.3	29.4	5.9	100.0

3) 교류행사 실태

비서구권 문화교류행사 416개의 교류분야, 교류형태, 교류국가, 교류주기, 행사 결과(참여인원, 관람인원, 행사기간), 예산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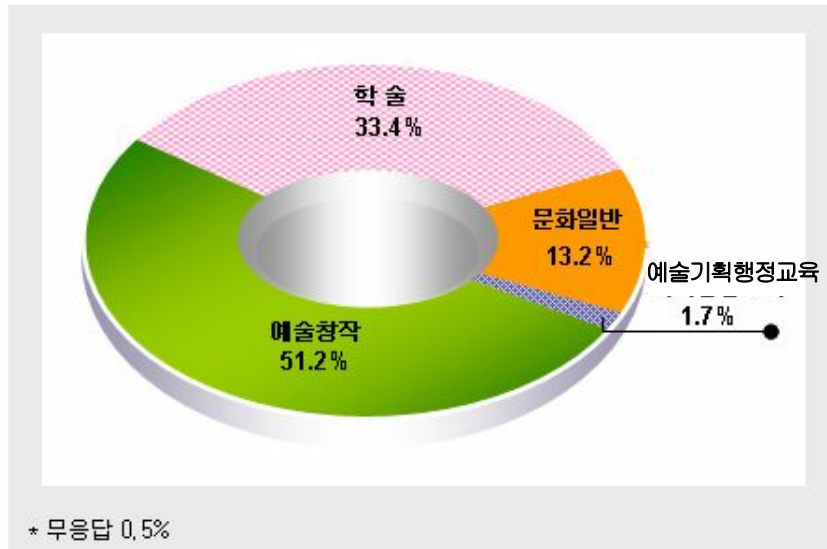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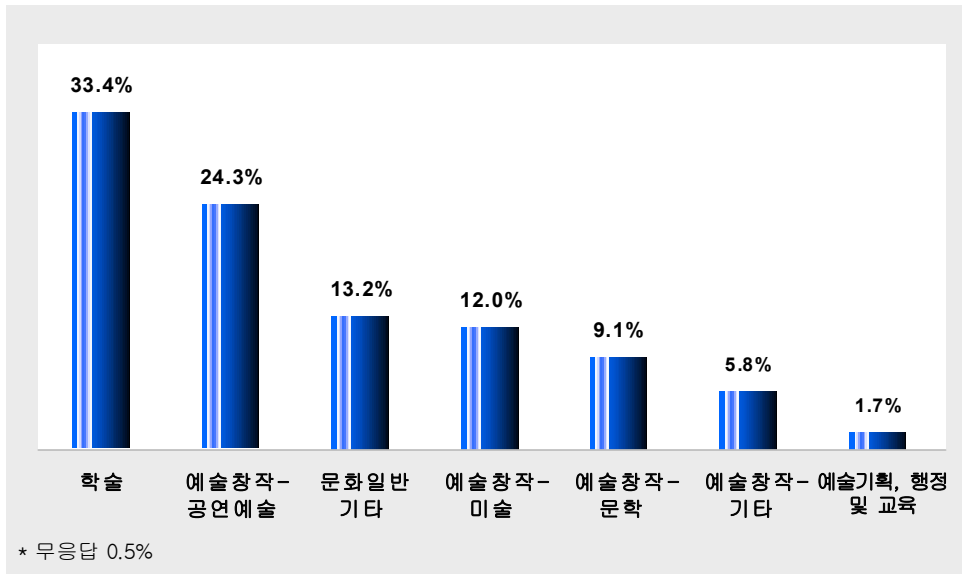
<표 III-10> 교류행사 수행단체의 일반적 속성

(단위 : %)

		사례수	백분율
[전 체]		416개	100.0%
교류분야	예술창작	213	51.2
	기획행정교육	7	1.7
	학술	139	33.4
	문화일반	55	13.2
	무응답	2	0.5
교류형태	문화예술활동	176	42.3
	국제회의	182	43.8
	기타/무응답	58	13.9
교류지역	아시아	297	71.4
	아프리카	25	6.0
	중남미	59	14.2
	기타/무응답	35	8.4

(1) 교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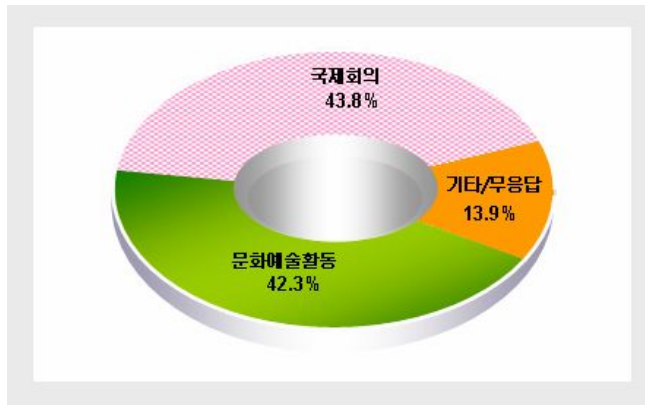
비서구권과의 교류행사는 ‘학술’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창작-공연예술’(24.3%), ‘문화일반-기타’(13.2%), ‘예술창작-미술’(12.0%), ‘예술창작-문학’(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교류행사의 분야

(2) 교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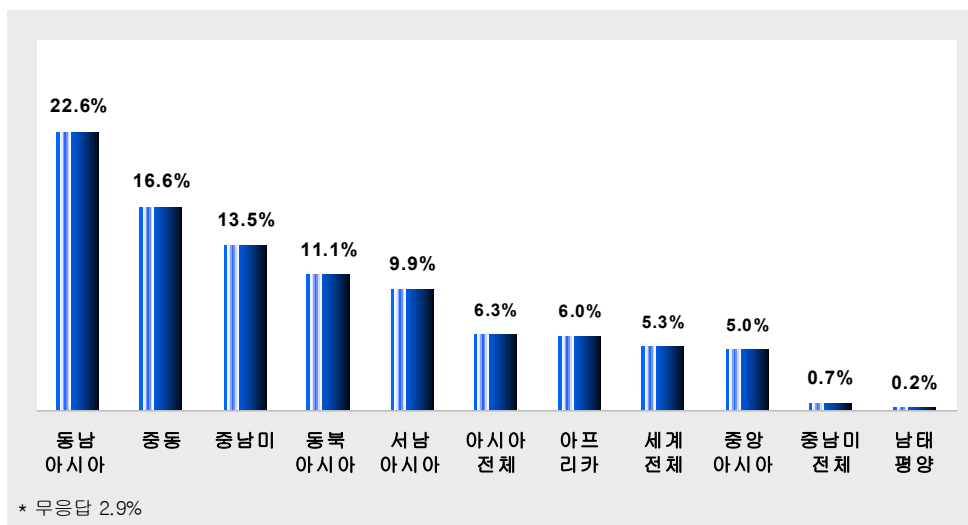
비서구권과의 교류형태는 '문화예술활동'과 '국제회의'가 각각 42.3%, 43.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기타/무응답'은 13.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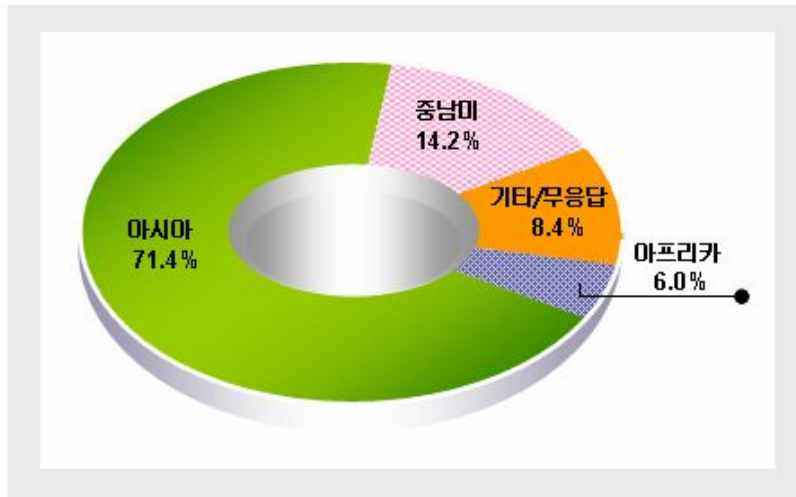


<그림 III-17> 교류행사의 형태

(3) 문화교류 대상지역

문화교류의 대상지역은 '동남아시아'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 (16.6%), '중남미' (13.5%), '동북아시아'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류 대상지역을 대권역으로 보면, '아시아'가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각각 14.2%, 6.0%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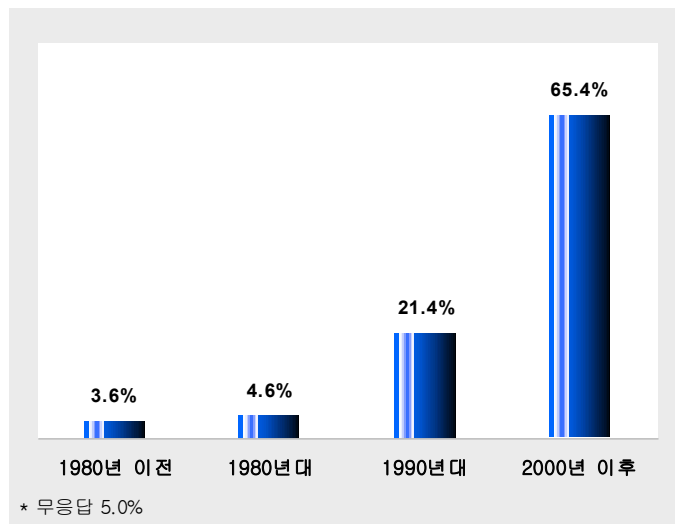


<그림 III-18> 교류행사 대상지역

(4) 교류주기

① 교류시작 연도

비서구권과의 교류시작 연도는 '2000년 이후'가 6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990년대'(21.4%), '1980년대'(4.6%), '1980년 이전'(3.6%)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교류행사의 시작연도

문화예술활동에 비하여 국제회의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류는 2000년 이후 시작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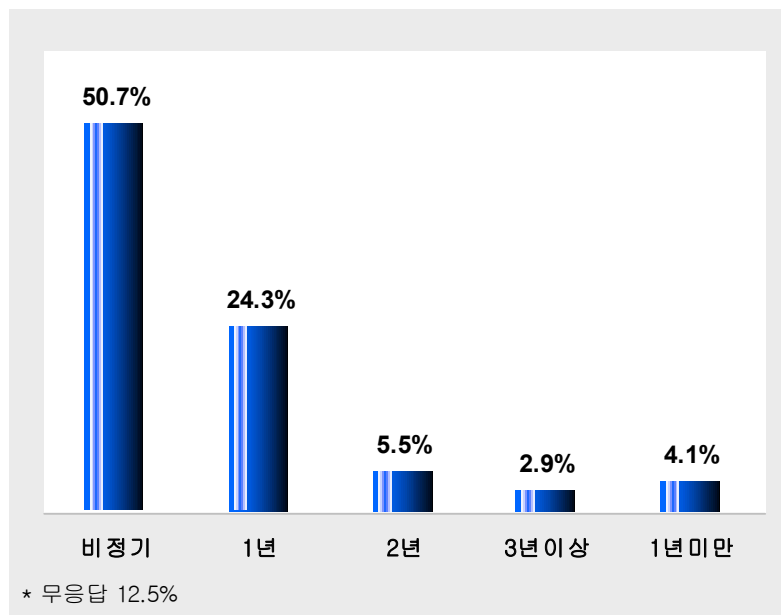
<표 III-11> 교류행사의 시작 연도

(단위 : %)

		사례수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무응답	계
[전 체]		416개	3.6%	4.6%	21.4%	65.4%	5.0%	100.0%
교류형태	문화예술활동	176	3.4	5.1	18.8	69.9	2.8	100.0
	국제회의	182	4.9	4.9	26.4	57.1	6.6	100.0
	기타/무응답	58	0.0	1.7	13.8	77.6	6.9	100.0
교류지역	아시아	297	3.4	4.7	21.5	65.7	4.7	100.0
	아프리카	25	4.0	0.0	12.0	80.0	4.0	100.0
	중남미	59	1.7	8.5	16.9	64.4	8.5	100.0
	기타/무응답	35	8.6	0.0	34.3	54.3	2.9	100.0

② 교류주기

비서구권과의 교류주기는 '비정기적'인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1년주기'(24.3%)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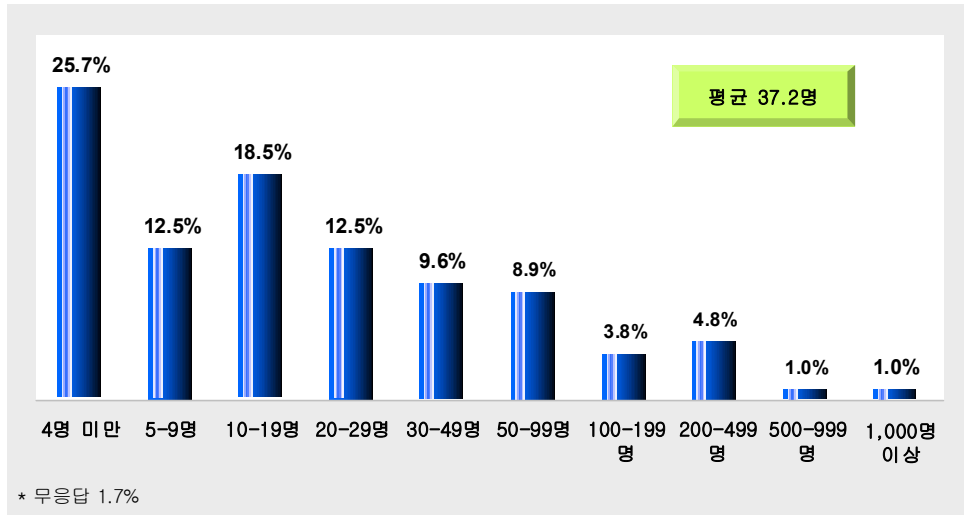


<그림 III-20> 교류행사의 주기

(5) 행사결과

① 행사참여 인원

비서구권과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인력은 '4명 미만'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9명'(18.5%), '5-9명'(12.5%), '20-29명'(12.5%), '30-49명'(9.6%), '50-99명'(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참여인력은 37.2명이었다.



<그림 III-21> 교류행사 참여인원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행사에 참여인원이 비교적 적고(11.4명), 중남미지역과의 교류에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45.3명)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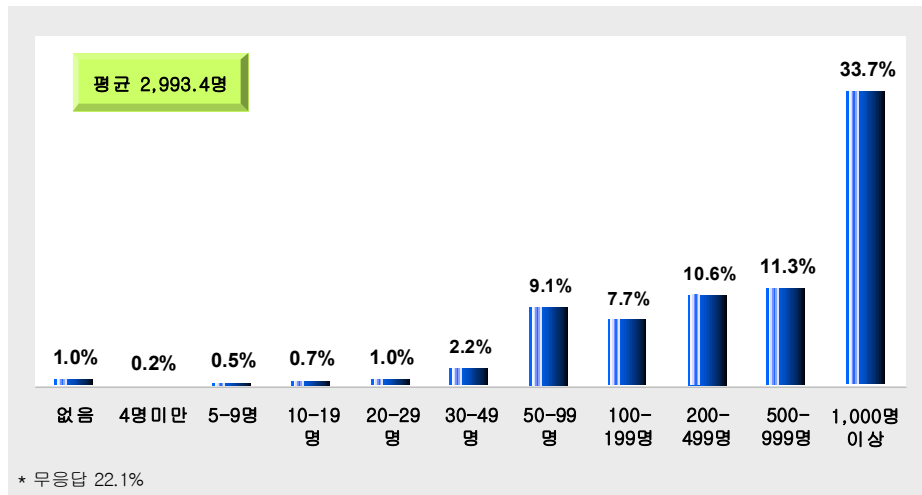
<표 III-12> 교류행사 참여인원

(단위 : %)

		사례수	4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무응답	계	평균 (명)
[전 체]		416개	25.7%	12.5%	18.5%	12.5%	9.6%	8.9%	3.8%	4.8%	1.0%	1.0%	1.7%	100.0%	37.2명
교류 지역	아시아	297	24.2	12.5	16.8	13.1	12.1	10.4	3.0	5.1	0.7	0.7	1.3	100.0	36.4
	아프리카	25	48.0	8.0	32.0	0.0	8.0	4.0	0.0	0.0	0.0	0.0	0.0	100.0	11.4
	중남미	59	30.5	18.6	20.3	5.1	1.7	5.1	8.5	5.1	1.7	0.0	3.4	100.0	45.3
	기타/무응답	35	14.3	5.7	20.0	28.6	2.9	5.7	5.7	5.7	2.9	5.7	2.9	100.0	50.3

② 행사관람 인원

비서구권과 관련한 행사를 관람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1000명 이상'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00-999명'(11.3%), '200-499명'(10.6%), '50-99명'(9.1%), '100-199명'(7.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행사관람 평균인원은 2,993.4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III-22> 교류행사 관람인원

학술교류와 중남미와의 교류에 비교적 관람인원이 적고, 아프리카와의 교류에 관람인원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13> 교류행사 관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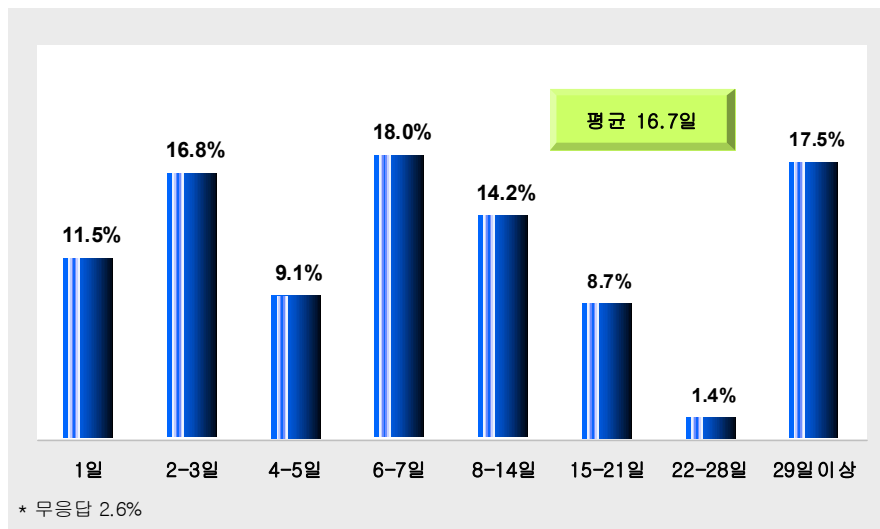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없음	4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무응답	계	평균 (명)
[전 체]		416개	1.0%	0.2%	0.5%	0.7%	1.0%	2.2%	9.1%	7.7%	10.6%	11.3%	33.7%	22.1%	100.0%	2,993.4명
교류 장르	예술창작	213	0.5	0.0	0.5	0.0	0.5	1.9	4.7	4.2	9.9	15.5	53.1	9.4	100.0	2,516.5
	예술기획/행정/교육	7	0.0	0.0	0.0	0.0	0.0	0.0	0.0	14.3	0.0	28.6	28.6	28.6	100.0	760.0
	학술	139	2.2	0.7	0.7	1.4	2.2	3.6	14.4	12.9	15.1	7.2	2.9	36.7	100.0	663.2
	문화일반	55	0.0	0.0	0.0	1.8	0.0	0.0	12.7	7.3	3.6	3.6	38.2	32.7	100.0	11,612.1
	무응답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100.0	50.0

교류 형태	문화예술활동	176	0.0	0.6	0.0	0.0	0.6	1.1	2.3	0.6	9.1	15.9	60.8	9.1	100.0	2,803.9
	국제회의	182	2.2	0.0	1.1	0.5	1.6	3.8	15.9	14.8	12.1	9.3	11.5	26.9	100.0	2,896.2
	기타/무응답	58	0.0	0.0	0.0	3.4	0.0	0.0	8.6	6.9	10.3	3.4	20.7	46.6	100.0	4,373.5
교류 지역	아시아	297	0.3	0.3	0.7	0.3	0.3	2.4	8.1	7.1	10.8	13.1	34.0	22.6	100.0	2,598.8
	아프리카	25	8.0	0.0	0.0	4.0	0.0	0.0	0.0	8.0	4.0	4.0	24.0	48.0	100.0	4,028.1
	중남미	59	0.0	0.0	0.0	1.7	5.1	3.4	18.6	10.2	11.9	10.2	23.7	15.3	100.0	824.7
	기타/무응답	35	2.9	0.0	0.0	0.0	0.0	0.0	8.6	8.6	11.4	2.9	54.3	11.4	100.0	8,890.1

③ 행사기간

비서구권과 관련한 행사의 기간은 '6-7일'이 1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29일 이상'(17.5%), '2-3일'(16.8%), '8-14일'(14.2%), '1일'(11.5%)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평균행사 기간은 16.7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23> 교류행사 기간

문화예술교류가 평균 20.0일인데 반하여 국제회의는 평균 11.7일로 조사되었다.

<표 III-14> 교류행사 기간

(단위 : %)

		사례수	1일	2-3일	4-5일	6-7일	8-14일	15-21 일	22-28 일	29일 이상	무응답	계	평균 (일)
[전 체]		416개	11.5%	16.8%	9.1%	18.0%	14.2%	8.7%	1.4%	17.5%	2.6%	100.0%	16.7일
교류 형태	문화예술활동	176	4.5	13.1	10.8	22.7	19.9	7.4	1.7	17.6	2.3	100.0	20.0
	국제회의	182	16.5	24.7	9.9	15.4	8.8	9.3	0.0	12.6	2.7	100.0	11.7
	기타/무응답	58	17.2	3.4	1.7	12.1	13.8	10.3	5.2	32.8	3.4	100.0	22.5

(6) 행사관련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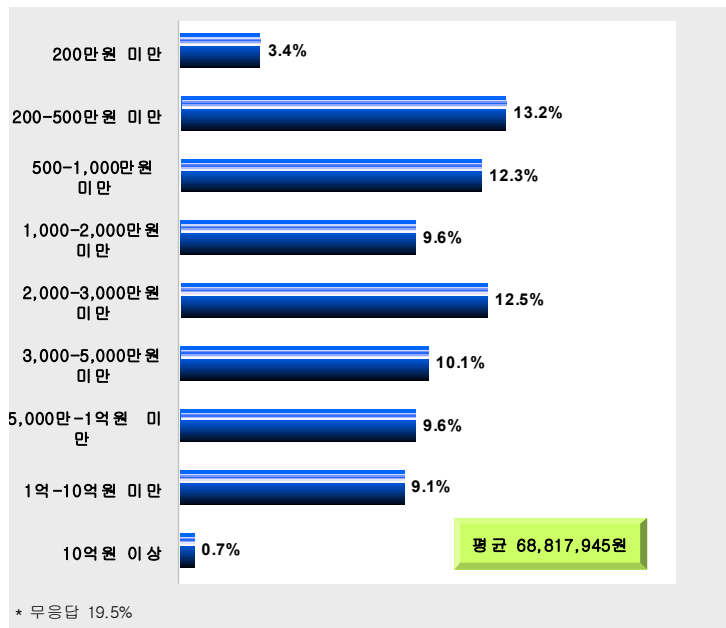
① 예산총액

비서구권과 관련한 행사의 예산총액을 알아본 결과, '200-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0-3,000만원 미만'(12.5%), '500-1,000만원 미만'(12.3%), '3,000-5,000만원 미만'(10.1%), '1,000-2,000만원 미만'(9.6%), '5,000만원-1억원 미만'(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행사의 예산평균은 6,882만원으로 산출되었다. 학술교류와 중남미와의 교류예산이 (학술 1,884만원, 중남미 1,722만원으로) 적고, 아프리카지역과의 교류예산이 많은(10,479만원) 특성을 보였다.

<표 III-15> 교류행사 예산총액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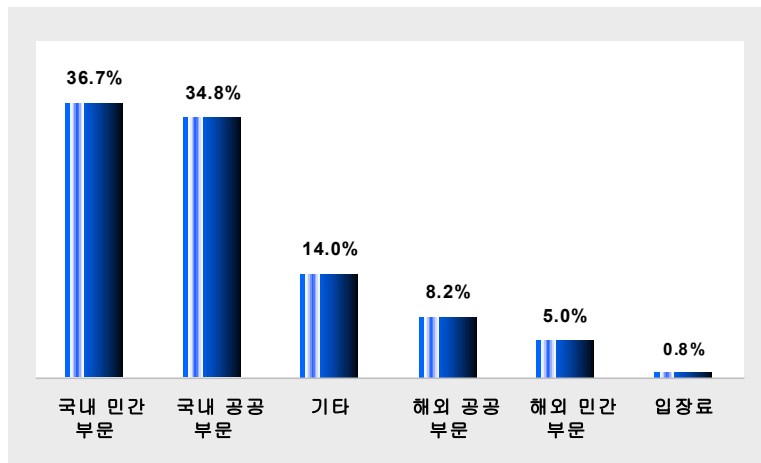
	사례수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무응답	계	평균 (만원)
[전 체]	416개	3.4%	13.2%	12.3%	9.6%	12.5%	10.1%	9.6%	9.1%	0.7%	19.5%	100.0%	6,882만원
교류 장르	예술창작	213	1.9	11.3	7.5	10.3	16.0	12.2	15.0	12.2	0.9	12.7	9,991
	예술기획/행사/교육	7	0.0	42.9	0.0	14.3	0.0	14.3	0.0	28.6	0.0	0.0	3,800
	학술	139	5.0	15.8	23.0	9.4	5.8	7.2	2.9	3.6	0.0	27.3	1,884
	문화일반	55	5.5	10.9	5.5	7.3	18.2	7.3	7.3	9.1	1.8	27.3	5,633
	무응답	2	0.0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4,900
교류 형태	문화예술활동	176	0.0	9.7	8.0	7.4	19.3	13.1	15.3	13.1	0.6	13.6	5,231
	국제회의	182	6.0	16.5	17.0	11.0	7.7	7.7	2.7	6.6	0.5	24.2	3,620
	기타/무응답	58	5.2	13.8	10.3	12.1	6.9	8.6	13.8	5.2	1.7	22.4	22,461
교류 지역	아시아	297	4.0	14.1	10.4	10.4	12.5	9.8	9.4	10.8	0.3	18.2	4,021
	아프리카	25	4.0	4.0	16.0	8.0	8.0	0.0	12.0	0.0	4.0	44.0	10,479
	중남미	59	1.7	16.9	20.3	11.9	16.9	3.4	5.1	1.7	0.0	22.0	1,722
	기타/무응답	35	0.0	5.7	11.4	0.0	8.6	31.4	17.1	14.3	2.9	8.6	34,447



<그림 III-24> 교류행사 예산총액

② 예산비중

비서구권과 관련한 행사의 예산비중을 조사한 결과, '국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평균 3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공공부문'(34.8%)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에 '해외 공공부문'(8.2%), '해외 민간부문'(5.0%), '입장료'(0.8%) 등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그림 III-25> 교류행사 예산비중

4) 비서구권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의 응답단체(97개)와 전문인력(199명)을 대상으로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질문하였다. 설문문항은 교류의 일반현황(단체성격, 교류지역, 교류형태, 교류빈도, 교류장소, 교류 시작시기 등)과 교류에 대한 의견(교류이유, 교류효과, 정보획득 방법, 교류의 어려운 점, 정보취득이 어려운 부문,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단체(개인)는 모두 200개(명)였다. 이때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체의 일원으로 교류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인력이므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설정하였다.

응답단체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단체성격별로는 문화예술단체 73개(36.5%), 학술단체 71개(35.5%), 문화예술협회 21개(10.5%)다. 둘째, 주된 교류지역은 아시아 146개(73.0%), 중남미 26개(13.0%), 아프리카 19개(9.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된 교류형태는 문화예술활동 93개(46.5%), 국제회의 90개(45.0%)였다.

<표 III-16> 문화교류 응답단체 속성(200개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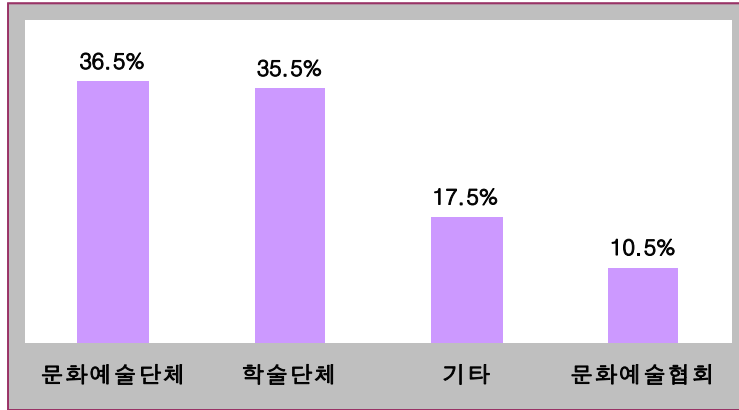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00개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36.5
	학술단체	71	35.5
	문화예술협회	21	10.5
	기타	35	17.5
교류지역	아시아	146	73.0
	아프리카	19	9.5
	중남미	26	13.0
	기타/무응답	9	4.5
교류형태	문화예술활동	93	46.5
	국제회의	90	45.0
	기타	17	8.5

(1) 교류단체의 일반현황

① 단체의 성격

전체 응답기관(단체) 200개 가운데 ‘문화예술단체’ 73개(36.5%)와 ‘학술단체’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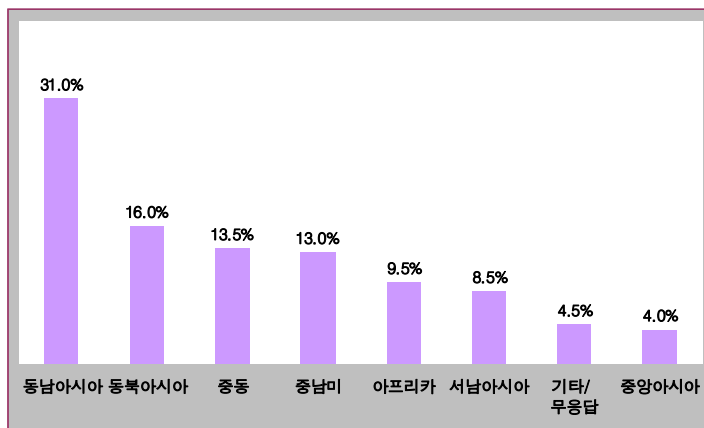
개(35.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협회’는 21개(10.5%)였다. 한편, ‘기타 기관(단체)’이 35개(17.5%)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성격(200개 기준)

② 단체의 주된 (교류)대상지역

주된 문화교류 대상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가 3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시아’(16.0%), ‘중동’(13.5%), ‘중남미’(13.0%), ‘아프리카’(9.5%), ‘서남아시아’(8.5%), ‘중앙아시아’(4.0%)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주된 교류지역(200개 기준)

주된 교류지역은 응답단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가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학술단체에서는 동남

아시아(22.5%)뿐 아니라 중남미(22.5%)의 비중이 높았으며, 문화예술협회는 중동이 23.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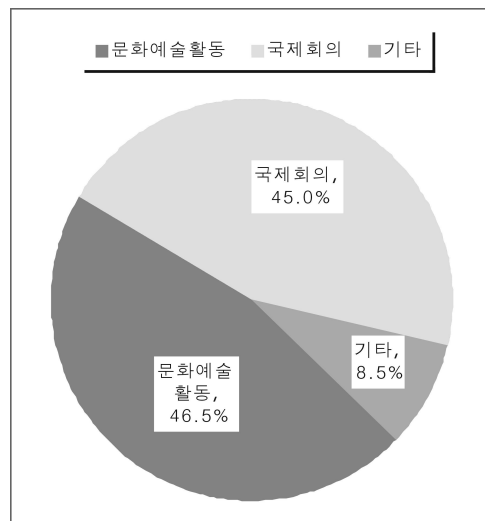
<표 III-1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주된 교류지역(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 리카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200개	31.0%	16.0%	13.5%	13.0%	9.5%	8.5%	4.0%	4.5%	100.0%
단체 성격	문화예술단체	73	43.8	17.8	11.0	2.7	5.5	8.2	4.1	6.8	100.0
	학술단체	71	22.5	15.5	15.5	22.5	14.1	7.0	2.8	0.0	100.0
	문화예술협회	21	19.0	14.3	23.8	14.3	4.8	19.0	4.8	0.0	100.0
	기타	35	28.6	14.3	8.6	14.3	11.4	5.7	5.7	11.4	100.0

③ 교류형태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형태로는 '문화예술활동'(46.5%)과 '국제회의'(45.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답단체 가운데 문화예술단체(73개)와 문화예술협회(21개)가 학술단체(71개)보다 많았음에 불구하고, '문화예술활동'과 '국제회의'가 비슷한 분포로 나온 것은, 문화예술단체(협회)에서도 국제회의(심포지엄, 세미나 등)를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다. 실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활동(82.2%) 이외에 국제회의(12.3%)도 개최하고 있었다.



<그림 III-2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형태(200개 기준)

한편, 주된 교류대상 지역으로 보면, 아시아를 주된 교류지역으로 삼은 단체에서는 문화예술교류가 많은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주된 교류지역을 삼은 단체에서는 국제회의가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1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형태(200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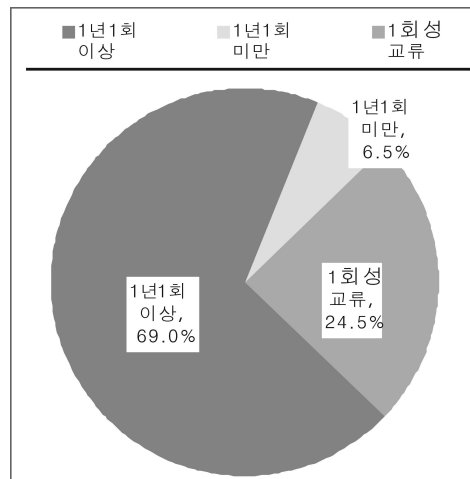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문화예술활동	국제회의	기타	계
[전 체]		200개	46.5%	45.0%	8.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82.2	12.3	5.5	100.0
	학술단체	71	4.2	87.3	8.5	100.0
	문화예술협회	21	71.4	19.0	9.5	100.0
	기타	35	42.9	42.9	14.3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50.0	41.8	8.2	100.0
	아프리카	19	36.8	52.6	10.5	100.0
	중남미	26	19.2	69.2	11.5	100.0
	기타/무응답	9	88.9	11.1	0.0	100.0

④ 교류빈도

④-① 교류의 주기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빈도는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미만'이란 응답이 6.5%였다. 또한, '1회성 교류'가 2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곧, 정기적인 교류가 75.5%(연 1회 이상 69.0%, 연 1회 미만 6.5%)이며, 비정기 교류가 24.5%인 것이다.



<그림 III-29> 문화교류의 주기

단체성격과 관계없이 '연 1회 교류'가 가장 많았지만, 문화예술협회에서는 '연 1회 미만' 교류가 19.0%로 다소 많은 특성을 보였다. 대상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교류하는 단체에서 '연 1회 이상'(89.5%)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19>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주기(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1년 1회이상	1년 1회미만	1회성 교류	계
[전 체]		200개	69.0%	6.5%	24.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72.6	5.5	21.9	100.0
	학술단체	71	71.8	4.2	23.9	100.0
	문화예술협회	21	52.4	19.0	28.6	100.0
	기타	35	65.7	5.7	28.6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68.5	6.2	25.3	100.0
	아프리카	19	89.5	0.0	10.5	100.0
	중남미	26	65.4	7.7	26.9	100.0
	기타/무응답	9	44.4	22.2	3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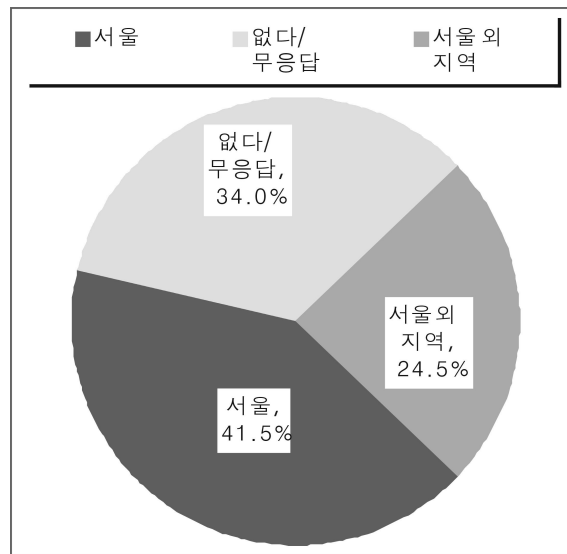
④-② 교류빈도

'1년에 1회 이상' 교류를 실시하는 단체(138개)의 교류빈도는 '연 1회'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 2회'(34.8%), '연 3회'(13.8%), '연 4회'(9.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5회다.

⑤ 교류장소

⑤-① 국내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국내)를 질문한 결과, '서울'(41.5%)이 '비서울'(24.5%)보다 많아서 문화교류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기입하는 형태의 설문이라 무응답률이 34.0%에 달했다.



<그림 III-30>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교류장소

응답단체의 속성별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교류는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가 30.1%, 서울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33.3%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비율이 높은(51.1%)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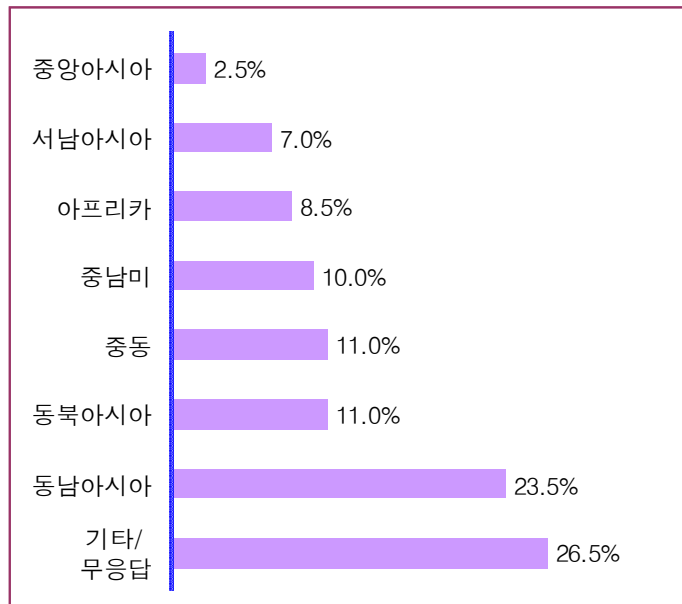
<표 III-20>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교류장소(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서울	서울외 지역	없다/ 무응답	계
[전 체]		200개	41.5%	24.5%	34.0%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41.1	28.8	30.1	100.0
	학술단체	71	43.7	15.5	40.8	100.0
	문화예술협회	21	38.1	28.6	33.3	100.0
	기타	35	40.0	31.4	28.6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43.8	24.7	31.5	100.0
	아프리카	19	26.3	21.1	52.6	100.0
	중남미	26	46.2	19.2	34.6	100.0
	기타/무응답	9	22.2	44.4	33.3	100.0
교류형태	문화예술활동	93	30.1	33.3	36.6	100.0
	국제회의	90	51.1	14.4	34.4	100.0
	기타	17	52.9	29.4	17.6	100.0

⑤-② 국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외국)를 질문한 결과, 권역별로 '동남아시아'(23.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시아'(11.0%), '중동'(11.0%), '중남미'(10.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도시는 '올란바트라'(8.5%, 17개), '카이로'(5.5%, 11개), '타쉬켄트'(5.0%, 10개)가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도시였다.



<그림 III-31>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외국 교류장소(200개 기준)

<표 III-21>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외국 교류장소(200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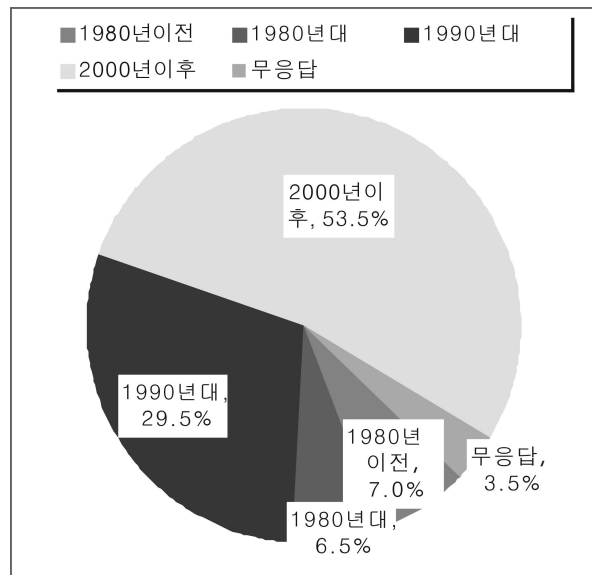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 리카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200개	23.5%	11.0%	11.0%	10.0%	8.5%	7.0%	2.5%	26.5%	100.0%
단체 성격	문화예술단체	73	35.6	6.8	11.0	2.7	5.5	6.8	4.1	27.4	100.0
	학술단체	71	16.9	14.1	12.7	18.3	14.1	4.2	1.4	18.3	100.0
	문화예술협회	21	9.5	14.3	14.3	4.8	4.8	23.8	0.0	28.6	100.0
	기타	35	20.0	11.4	5.7	11.4	5.7	2.9	2.9	40.0	100.0
교류 형태	문화예술활동	93	25.8	8.6	14.0	5.4	5.4	7.5	3.2	30.1	100.0
	국제회의	90	22.2	12.2	10.0	15.6	11.1	6.7	2.2	20.0	100.0
	기타	17	17.6	17.6	0.0	5.9	11.8	5.9	0.0	41.2	100.0

⑥ 교류 시작 연도

비서구권 지역과 문화교류를 처음 시작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 '2000년 이후'가 5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990년대'(29.5%), '1980년 이전'(7.0%) , 1980년대'(6.5%)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화교류단체(200개 기준)의 비서구권 교류 개시연도가 국제교류행사(416개 기준)의 시작 연도보다 다소 빠르게 나타난 것은, 1회성 국제행사가 상대적으로 2000년 이후에 많이 개최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2>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시작연도(200개 기준)

응답단체 속성별로는, 학술단체와 중남미와 교류를 실시하는 단체의 교류 개시연도가 빠른 특성을 보였다. 한편, 문화예술단체(협회)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교류를 개시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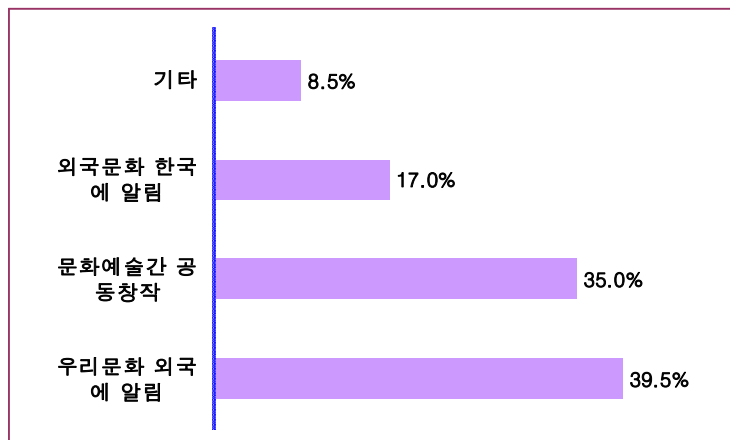
<표 III-22>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시작연도(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무응답	계
[전 체]		200개	7.0%	6.5%	29.5%	53.5%	3.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4.1	2.7	30.1	61.6	1.4	100.0
	학술단체	71	11.3	8.5	29.6	46.5	4.2	100.0
	문화예술협회	21	4.8	9.5	23.8	61.9	0.0	100.0
	기타	35	5.7	8.6	31.4	45.7	8.6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6.2	3.4	30.8	56.2	3.4	100.0
	아프리카	19	5.3	10.5	21.1	63.2	0.0	100.0
	중남미	26	11.5	15.4	34.6	30.8	7.7	100.0
	기타/무응답	9	11.1	22.2	11.1	55.6	0.0	100.0

(2) 교류수행 이유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를 수행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39.5%)라는 응답과 '공동창작/공동연구를 위해서'(35.0%)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7.0%였다.



<그림 III-33>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이유(200개 기준)

응답단체 속성에서 특이한 사항은 문화예술협회에서 '공동창작/공동연구'란 응답률(52.4%)이 '우리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33.3%)보다 높은 점, 그리고 아프리카와 주로 교류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응

답률이 36.8%로 높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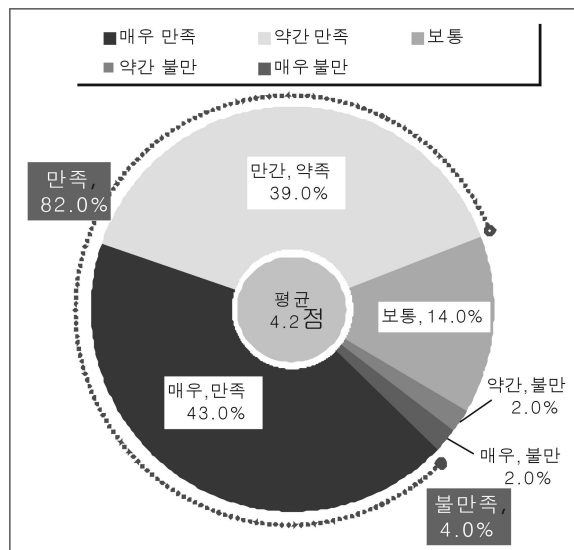
<표 III-23>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이유(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우리문화 외국에 알림	문화예술간 공동창작	외국문화 한국에 알림	기타	계
[전 체]		200개	39.5%	35.0%	17.0%	8.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54.8	31.5	6.8	6.8	100.0
	학술단체	71	21.1	45.1	23.9	9.9	100.0
	문화예술협회	21	33.3	52.4	14.3	0.0	100.0
	기타	35	48.6	11.4	25.7	14.3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35.6	39.7	15.1	9.6	100.0
	아프리카	19	42.1	15.8	36.8	5.3	100.0
	중남미	26	46.2	30.8	15.4	7.7	100.0
	기타/무응답	9	77.8	11.1	11.1	0.0	100.0

(3) 문화교류의 효과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0%(매우 만족 43.0% + 약간 만족 39.0%)인데 반하여, '불만이다'는 의견은 4.0%(매우 불만 2.0% + 약간 불만 2.0%)에 불과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4.0%였으며, 평균은 5점 만점에 4.2점이었다.



<그림 III-34>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 효과(200개 기준)

(4) 관련정보의 취득

문화교류를 수행하면서 관련정보를 네 가지 영역(국내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관/개인, 해당지역 공공기관, 해당지역 민간기관/개인)에서 얼마나 얻었는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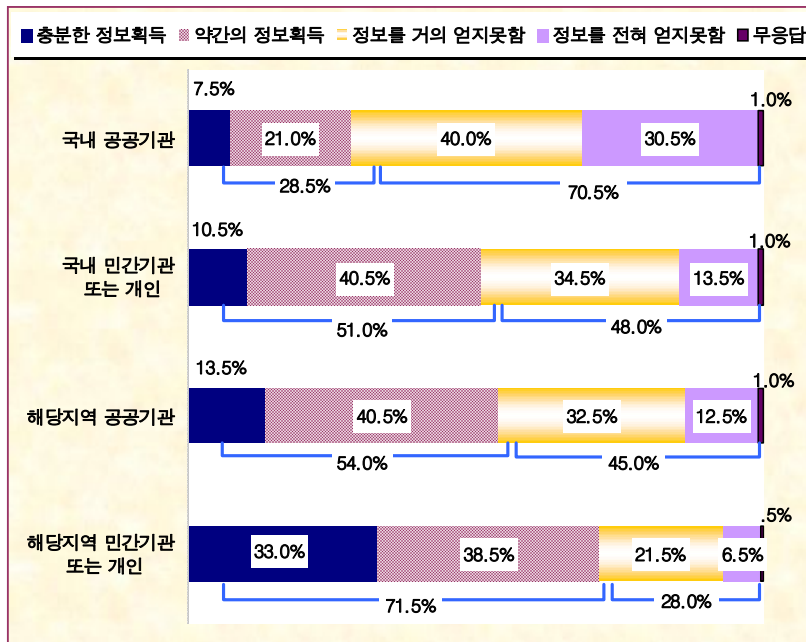
첫째, 국내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28.5%(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7.5% +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21.0%)에 불과하였다.

둘째, 국내 민간기관/개인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51.0%(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10.5% +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40.5%)였다.

셋째, 해당지역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54.0%(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13.5% +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40.5%)였다.

넷째, 해당지역 민간기관/개인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71.5%(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33.0% +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38.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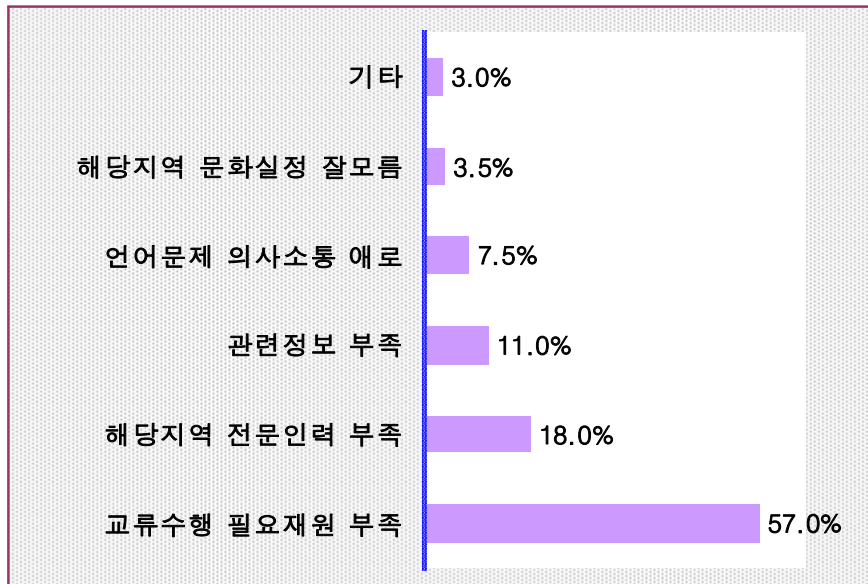
이처럼 문화교류를 실시할 때,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개인에게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제공률이 28.5%에 불과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III-35>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정보취득(200개 기준)

(5) 문화교류 수행의 어려운 점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교류수행에 필요한 자원 부족'(57.0%)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문제점은 '해당지역에 밝은 전문인력 부족'(18.0%), '관련정보 부족'(11.0%),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의 어려운 점(200개 기준)

재원부족이란 응답은 응답단체의 속성과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다만, 문화예술협회에서는 '재원부족'(33.3%)이란 응답과 '관련정보 부족'(33.3%)이란 응답률이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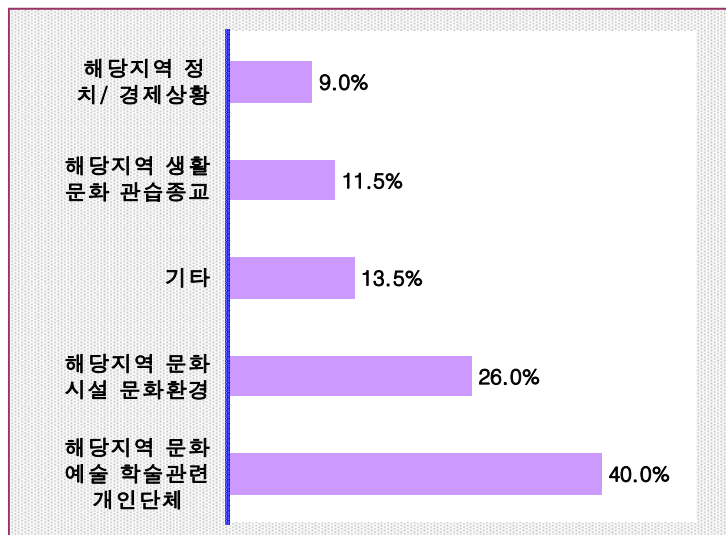
<표 III-24>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의 어려운 점(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교류수행 필요자원 부족	해당지역 전문인력 부족	관련정보 부족	언어문제 의사소통 애로	해당지역 문화실정 잘모름	기타	계
[전 체]		200개	57.0%	18.0%	11.0%	7.5%	3.5%	3.0%	100.0%
단체 성격	문화예술단체	73	50.7	21.9	6.8	11.0	6.8	2.7	100.0
	학술단체	71	64.8	16.9	11.3	2.8	1.4	2.8	100.0
	문화예술협회	21	33.3	23.8	33.3	4.8	0.0	4.8	100.0
	기타	35	68.6	8.6	5.7	11.4	2.9	2.9	100.0
교류 지역	아시아	146	54.8	19.9	11.0	7.5	4.1	2.7	100.0
	아프리카	19	63.2	21.1	5.3	5.3	5.3	0.0	100.0
	중남미	26	65.4	7.7	15.4	3.8	0.0	7.7	100.0
	기타/무응답	9	55.6	11.1	11.1	22.2	0.0	0.0	100.0

(6) 문화교류 수행 시 취약한 정보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을 질문하였다. '해당지역 문화예술·학술관련 개인/단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지역의 문화시설·문화환경'(26.0%), '해당지역의 생활문화·관습·종교'(11.5%), '해당지역 정치·경제상황'(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3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취약한 정보(200개 기준)

거의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아프리카와 주된 교류를 하는 단체에서는 '문화시설과 문화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의견(31.6%)이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의견(26.3%)보다 많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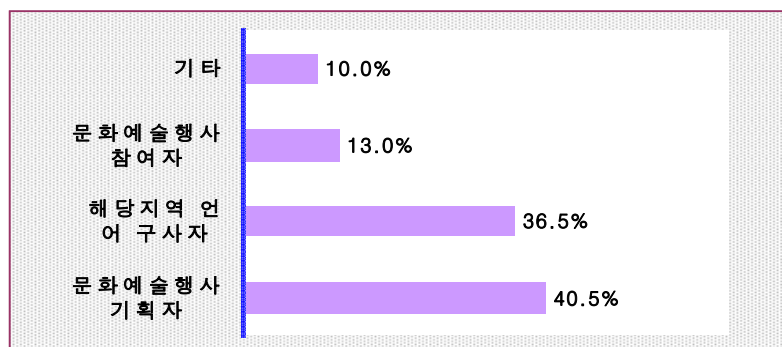
<표 III-25>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취약한 정보(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해당지역 문화예술 학술관련 개인단체	해당지역 문화시설 문화환경	해당지역 생활문화 관습종교	해당지역 정치/ 경제상황	기타	계
[전 체]		200개	40.0%	26.0%	11.5%	9.0%	13.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39.7	37.0	8.2	11.0	4.1	100.0
	학술단체	71	42.3	18.3	16.9	2.8	19.7	100.0
	문화예술협회	21	42.9	28.6	0.0	14.3	14.3	100.0
	기타	35	34.3	17.1	14.3	14.3	20.0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40.4	28.8	9.6	8.2	13.0	100.0
	아프리카	19	26.3	31.6	26.3	5.3	10.5	100.0
	중남미	26	46.2	7.7	15.4	15.4	15.4	100.0
	기타/무응답	9	44.4	22.2	0.0	11.1	22.2	100.0

(7) 문화교류 시 부족한 인력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시 가장 부족한 인력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행사 기획자'란 응답(40.5%)과 '해당지역 언어 구사자'란 응답(36.5%)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문화예술행사 참여자/예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13.0%였다.



<그림 III-38>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200개 기준)

‘문화예술행사 기획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학술단체보다 문화예술단체(협회)에서 의견이 많았고, 아프리카와 주된 교류를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해당지역 언어구사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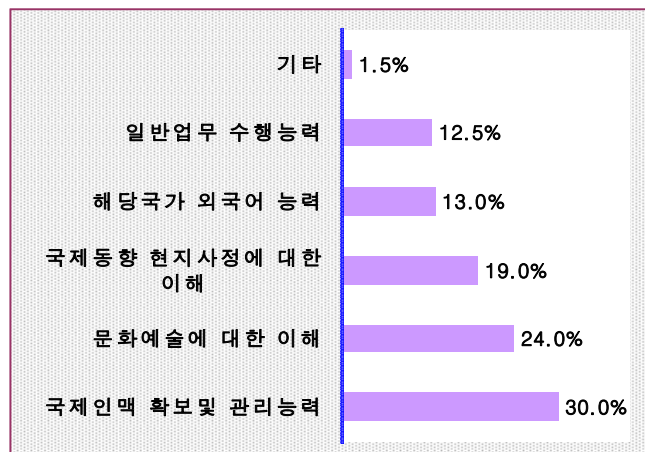
<표 III-26>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200개 기준)

(단위 : %)

		사례수	문화예술행사 기획자	해당지역 언어 구사자	문화예술행 사 참여자	기타	계
[전 체]		200개	40.5%	36.5%	13.0%	10.0%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49.3	34.2	8.2	8.2	100.0
	학술단체	71	31.0	39.4	12.7	16.9	100.0
	문화예술협회	21	47.6	33.3	19.0	0.0	100.0
	기타	35	37.1	37.1	20.0	5.7	100.0
교류지역	아시아	146	41.1	33.6	13.7	11.6	100.0
	아프리카	19	36.8	63.2	0.0	0.0	100.0
	중남미	26	42.3	34.6	15.4	7.7	100.0
	기타/무응답	9	33.3	33.3	22.2	11.1	100.0

(8) 문화교류 기획 시 필요한 능력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기획 시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국제인맥 확보 및 관리 능력’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24.0%), ‘국제동향 및 해당국가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19.0%), ‘해당국가 외국어 능력’(13.0%), ‘일반 업무 수행 능력’(1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39>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기획 시 필요한 능력(200개 기준)

문화예술협회에서는 ‘국제인맥확보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42.9%), 아프리카와 주된 교류를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국제동향 및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1.6%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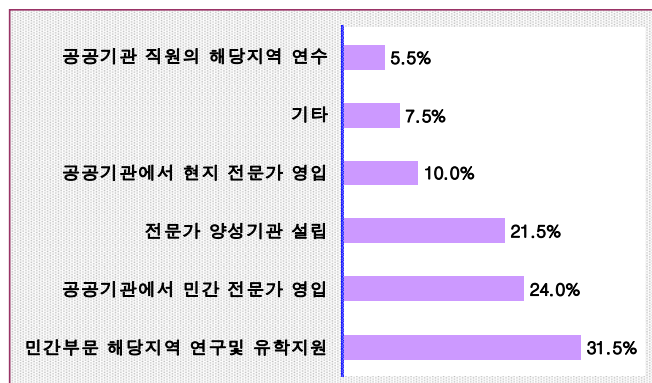
<표 III-27> 문화교류 기관(단체)의 교류기획 시 필요한 능력(200개 기준)

(단위 : %)

		사례 수	국제인맥 확보 및 관리 능력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국제 동향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해당 국가 외국어 능력	일반 업무 수행 능력	기타	계
[전 체]		200개	30.0%	24.0%	19.0%	13.0%	12.5%	1.5%	100.0%
단체 성격	문화예술단체	73	27.4	34.2	19.2	8.2	9.6	1.4	100.0
	학술단체	71	33.8	12.7	19.7	16.9	14.1	2.8	100.0
	문화예술협회	21	42.9	14.3	4.8	14.3	23.8	0.0	100.0
	기타	35	20.0	31.4	25.7	14.3	8.6	0.0	100.0
교류 지역	아시아	146	28.8	23.3	19.2	11.0	15.8	2.1	100.0
	아프리카	19	21.1	31.6	31.6	15.8	0.0	0.0	100.0
	중남미	26	42.3	15.4	11.5	26.9	3.8	0.0	100.0
	기타/무응답	9	33.3	44.4	11.1	0.0	11.1	0.0	100.0

(9)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방안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질문하였다. ‘민간부문의 해당지역 연구 및 유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영입’(24.0%),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21.5%), ‘공공기관에서 현지 전문가 영입’(10.0%), ‘공공기관 직원의 해당지역 연수’(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0>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200개 기준)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민간부문 해당지역 연구 및 유학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9.7%), 학술단체와 아프리카와 주로 교류하는 단체에서는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각각 26.8%, 31.6%), 문화예술협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47.6%).

<표 III-28>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200개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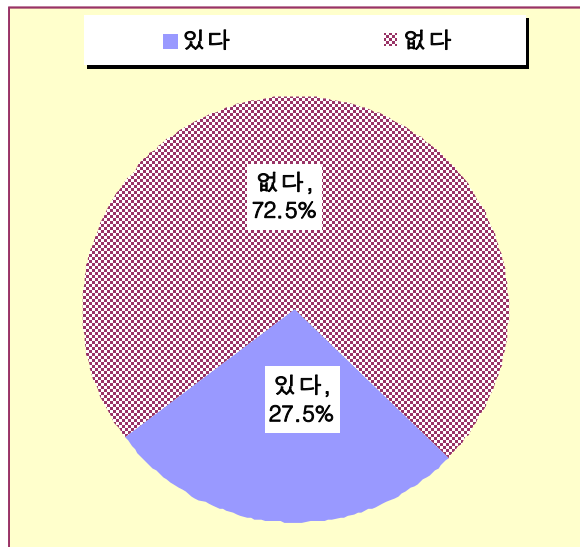
		사례수	민간부문 해당지역 연구및 유학지원	공공기관 에서 민간 전문가 영입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	공공기관 에서 현지 전문가 영입	공공기관 직원의 해당지역 연수	기타	계
[전 체]		200개	31.5%	24.0%	21.5%	10.0%	5.5%	7.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39.7	13.7	21.9	13.7	4.1	6.8	100.0
	학술단체	71	23.9	22.5	26.8	11.3	8.5	7.0	100.0
	문화예술협회	21	28.6	47.6	19.0	0.0	0.0	4.8	100.0
	기타	35	31.4	34.3	11.4	5.7	5.7	11.4	100.0
교류국가	아시아	146	34.2	24.7	20.5	11.0	3.4	6.2	100.0
	아프리카	19	31.6	21.1	31.6	5.3	0.0	10.5	100.0
	중남미	26	11.5	23.1	26.9	3.8	19.2	15.4	100.0
	기타/무응답	9	44.4	22.2	0.0	22.2	11.1	0.0	100.0

(10) 문화교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자기기입식),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았다.

(11) 문화교류 시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

문화교류 후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시행한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그림 III-41> 문화교류 시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

Follow-up 프로그램은 학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학술단체 32.4%, 문화예술단체 26.0%), 문화예술협회에서는 4.8%만이 수행하고 있었다.

<표 III-29> 문화교류 시 follow-up 프로그램 시행 여부

(단위 :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 체]		200개	27.5%	72.5%	100.0%
단체성격	문화예술단체	73	26.0	74.0	100.0
	학술단체	71	32.4	67.6	100.0
	문화예술협회	21	4.8	95.2	100.0
	기타	35	34.3	65.7	100.0
교류국가	아시아	146	26.0	74.0	100.0
	아프리카	19	26.3	73.7	100.0
	중남미	26	30.8	69.2	100.0
	기타/무응답	9	44.4	55.6	100.0

5)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① 교류실태

조사대상 단체, 개인, 교류행사, 그리고 비서구권과의 교류에 대한 단체(개인)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교류지역은 아시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남미가 10~14%, 그리고 아프리카가 1~10% 정도로 나타났다. 아시아 가운데서도 동남아시아와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30> 교류지역 요약 I

단체(97개)	아시아 73.2% > 중남미 10.3% > 아프리카 1.0%	기타/무응답(15.5%)
개인(199명)	아시아 77.4% > 중남미 11.1% > 아프리카 3.0%	기타/무응답(8.5%)
교류행사(416개)	아시아 71.4% > 중남미 14.2% > 아프리카 6.0%	기타/무응답(8.4%)
단체/개인 200개(명)	아시아 73.0% > 중남미 13.0% > 아프리카 9.5%	기타/무응답(4.5%)

<표 III-31> 교류지역 요약 II

단체(97개)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4.7%, 중동 18.6%, 서남아시아 9.3%, 아시아전체 9.3%, 동북아시아 8.2%, 중앙아시아 3.1% 중 남 미 : 중남미전체 8.2%, 중남미 2.1% 아프리카 : 1.0% 남태평양 : 1.0% 세계전체 : 13.4% 무 응 답 : 1.0%
개인(199명)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6.1%, 중동 17.6%, 동북아시아 12.6%, 아시아 전체 9.0%, 서남아시아 6.5%, 중앙아시아 5.5% 중 남 미 : 중남미 전체 7.0%, 중남미 4.0% 아프리카 : 3.0% 남태평양 : 0.5% 세계전체 : 7.5% 무 응 답 : 0.5%
교류행사(416개)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22.6%, 중동 16.6%, 동북아시아 11.1%, 서남아시아 9.9%, 아시아 전체 6.3%, 중앙아시아 5.0% 중 남 미 : 중남미전체 0.7%, 중남미 13.5% 아프리카 : 6.0% 남태평양 : 0.2% 세계전체 : 5.3% 무 응 답 : 2.9%

단체/개인 200개(명)	아 시 아 : 동남아시아 31.0%, 동북아시아 16.0%, 중동 13.5%, 서남아시아 8.5%, 중앙아시아 4.0% 중남미 : 13.0% 아프리카 : 9.5% 기타/무응답 : 4.5%
---------------	---

둘째, 교류분야는 학술에 비해 예술창작활동(공연, 미술, 문학, 기타)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예술창작을 부문별로 분류해서 보면, 단체의 경우에는 공연예술, 문학, 미술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서구권과 교류하는 단체는 학술단체보다 공연단체가 많은 데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표 III-32> 문화교류 분야 I

단체(97개)	예술창작 47.4% > 문화일반/기타 23.7% > 학술 20.6% > 예술기획/행정/교육 4.1% > 무응답 4.1%
개인(199명)	예술창작 37.7% > 학술 33.7% > 예술기획/행정/교육 11.1% > 문화일반/기타 9.0% > 무응답 8.5%
교류행사(416개)	예술창작 51.2% > 학술 33.4% > 문화일반/기타 13.2% > 예술기획/행정/교육 1.7% > 무응답 0.5%

<표 III-33> 문화교류 분야 II

단체(97개)	예술창작 : 공연예술 24.7%, 문학 10.3%, 미술 9.3%, 기타 3.1% 학술 : 20.6% 예술기획/행정/교육 : 4.1% 문화일반/기타 : 23.7% 무응답 : 4.1%
개인(199명)	예술창작 : 공연예술 18.1%, 미술 10.1%, 문학 8.0%, 기타 1.5% 학술 : 33.7% 예술기획/행정/교육 : 11.1% 문화일반/기타 : 9.0% 무응답 : 8.5%
교류행사(416개)	예술창작 : 공연예술 24.3%, 미술 12.0%, 문학 9.1%, 기타 5.8% 학술 : 33.4% 예술기획/행정/교육 : 1.7% 문화일반/기타 : 13.2% 무응답 : 0.5

셋째, 교류형태는 문화예술활동과 국제회의가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학술단체가 문화예술단체(협회)에 비하여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문화예술단체(협회)에서도 회의형태(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교류를 수행한 데서 기인한 결과다.

<표 III-34> 교류형태

교류행사(416개)	국제회의 43.8% > 문화예술활동 42.3% > 기타 13.9%
단체/개인 200개(명)	문화예술활동 46.5% > 국제회의 45.0% > 기타 8.5%

넷째, 교류수행 시기는 2000년 이후 시작된 게 과반수를 넘어서, 비서구권 지역과 교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유사 이래 최대로 비서구권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구권과의 교류가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에는 오히려 2002년 한일월드컵이 계기를 제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35> 교류수행 시작 시기

교류행사(416개)	2000년 이후 65.4% > 1990년대 21.4% > 1980년대 4.6% > 1980년 이전 3.6%
단체/개인 200개(명)	2000년 이후 53.5% > 1990년대 29.5% > 1980년 이전 7.0% > 1980년대 6.5%

다섯째, 교류주기는 단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기적 교류가 75.5%였지만, 교류행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기적 교류가 36.8%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교류단체가 정기 교류행사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비정기 교류를 상당한 정도로 수행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6> 문화교류 주기 및 빈도

교류행사(416개)	비정기 50.7% > 정기 36.8%(연간 24.3%, 격년 5.5%, 연 1회 미만 4.1%, 3년에 1회 2.9%)
단체/개인 200개(명)	정기 75.5%(연간 1회 이상 69.0%, 연 1회 미만 6.5%) > 비정기 24.5%

② 교류에 대한 의견

첫째, 비서구권과 교류이유는 외국문화 수용보다는 우리문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교류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림'(39.5%), '공동창작/공동연구'(35.0%),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림'(17.0%)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교류에 필요한 정보는 국내보다는 외국,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취

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7> 관련정보 취득

	정보 얻음	정보 얻지 못함	무응답	계
국내 공공기관	28.5%	70.5%	1.0%	100.0%
국내 민간기관/개인	51.0%	48.0%	1.0%	100.0%
외국 공공기관	54.0%	45.0%	1.0%	100.0%
외국 민간기관/개인	71.5%	28.0%	0.5%	100.0%

셋째, 교류수행 시 가장 부족한 정보는 ‘해당지역 관련단체와 개인’에 대한 것이었고, 부족한 인력은 ‘문화예술기획자’와 ‘해당지역 언어구사자’로 나타났다. 또한 교류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부족’이었다.

<표 III-38> 교류진행의 어려움

교류수행 시, 부족한 정보	해당지역 관련단체 및 개인 40.0% > 해당지역 문화시설/문화환경 26.0% > 해당지역 생활문화/관습 11.5% > 해당지역 정치/경제 9.0%
교류수행 시, 부족한 인력	문화예술 기획자 40.5% > 해당지역 언어구사자 36.5% > 문화예술행사 참여자 13.0%
교류수행 시, 어려운 점	재원부족 57.0% > 전문인력 부족 18.0% > 관련정보 부족 11.0% > 언어문제 7.5% > 해당지역 문화실정 잘 모름 3.5%

넷째, 문화교류를 기획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국제인맥 확보 및 관리능력’이란 응답(30.0%)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민간부문 연구 및 유학지원’(31.5%)이 가장 많았다.

(2) 실태조사 시사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과의 문화교류가 가장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문화교류가 지리적 근접성과 물가수준의 차이 등 교류비용의 저렴성과 경제 교역과의 연관성을 변수로 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교류분야에서는 (전통)공연예술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II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교류,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한 교류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연예술이 미술(전시회)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비교적 현지 협력기관의 도움 없이 추진하기 쉬운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서구권과의 교류가 2000년 이후 비로소 활성화되었다. 서구권 지역과는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겠지만, 이들 지역과의 교류는 시작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부정기교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교류행사의 50.7%), 아직까지 교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류의 목적이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리기’보다는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있었다. 곧, 외국단체를 초청하거나 외국문화를 국내에 알리기보다는 우리의 (공연)단체가 외국에서 (전통) 문화예술을 알리는 것이 가장 많은 형태이다.

이 같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실태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교류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취득이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국내 민간기관/개인’보다 낮고, ‘국내 민간기관/개인’은 ‘외국 공공기관’보다 낮고, ‘외국 공공기관’은 ‘외국 민간기관/개인’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공영역보다 민간영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점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가 정책적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된 교류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류지원책은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현재의 교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다. 서구권 지역과의 교류와 비교하여 비서구권 지역과의 교류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종합화하여 교류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내용은 해당지역 문화예술계 현황(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문화시설 및 환경), 해당지역 정치·경제 환경, 사회·문화환경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해당지역 교류실태, 전문인력 실태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와 국외의 정보(기초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축되어, 맞춤형으로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지역), 교류분야 등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구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교류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류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 언어연수를, 아니면 해당국가 언어구사자를 대상으로 예술기획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교류대상 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획자'와 '언어구사자'이다. 해당지역 언어를 구사하면서 동시에 예술을 기획하는 인력이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나머지 조건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단 비서구권과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조사에서도 언제나 지원의 제1순위는 '재원'문제이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비서구권 교류와 관련해서는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권과 달리 해당국가에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거나 하는 형식의 교류는 당분간 힘들 것이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교류, 그리고 나아가 해당국가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형태의 교류가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서구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교류 여건과 실태가 다를뿐더러 아시아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제공에서부터 재정지원까지 지원정책 시,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V.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 인력 양성 및 교류활성화 방안

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1)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유관 인력 DB 구축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전문인력 내지 전문인력 예비군에 대한 유용한 DB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인 전문인력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 곧 비서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지역에 접근 가능한 통로를 지니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 확보 작업은 이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대상자들과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심층 인터뷰, 중복 접촉을 통해 비서구권으로 분류되는 국가 및 지역의 다양성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충분히 소화하여 DB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작업 과정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관심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전문인력 양성방안의 개발에도 유용할 것이다.

(1) 단계별 추진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구축 작업은 그 대상의 다양성에 비해 실제 대상 숫자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 방대하지는 않다. 문제는 DB의 충실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며, 각 단계별로 세심한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화 단계별 주요내용

단계	주요 내용	결과 활용	비고
사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및 DB 운용 주체 결정 - 기초자료 검토, 사업추진계획 성안 - 파일럿 조사, 실시 계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 DB 설계에 반영 	
DB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구성 항목 결정 - 고정항목 및 유동항목 구분 - On-Line 운용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에 지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를 위한 전문인력 DB 통합 운용을 전제로 개발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면담, 복수 실시 - SnowBalling 활용, 재면담 등 - 필요시 소그룹 면담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항목 보완 - 조사의 충실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면담자의 다른 피면담자 소개 장려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별 - 지역, 권역, 국가별 - 기획, 자료, 실연 등 영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발 지원 - 국제교류 정보 - 연구 자료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Off 검용 - 유동항목에 대한 보완 체계 - 유관 DB와의 보완, 활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관 활용 - 교류기관 활용 - 연구기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 인력양성 등을 위한 종합 DB 지향

그런데 DB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국제교류 전문인력 DB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그런 점을 감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추진주체

DB화 사업의 주체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종료 후의 활용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문화교류를 전제로 하는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체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기관, 단체가 분립되어 있는 실정인데다가 비서구권의 생소성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주체를 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제문화교류 자체가 산발적이며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센터 사업의 경우¹⁵⁾, 국내에서 전 세계의 코리아센터들을 지원하는 코리아센터 본부의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논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활용연관성 측면에서의

15) 문화관광부(2006), 「코리아센터 및 코리아플라자 설립 운영 방안」 참조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자면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의 구축을 담당할 주체의 선정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의 구축은 우선 문화예술 정책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장차 국제문화교류 지원본부나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구가 정해지면 사업을 이관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3) DB의 업데이트 체계화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새로이 DB에 등재되어야 할 자원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이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의 활동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DB의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하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DB는 유관 기관의 동향 파악(예컨대 유관학과의 신규 임용자 등), 유관 매체의 정기적 점검(예컨대 전문지 등의 기사, 논문 등), 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 등 전담자에 의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처음부터 메뉴얼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메뉴얼은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작성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문화예술 분야별 비서구권 문화권역 탐구모임 장려, 지원

상기 DB 구축 사업을 통해 파악되는 비서구권 전문인력 내지 전문인력 예비군(대학원생, 실무 지원자 등)이 활동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서구권 문화권역에 관한 탐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구 프로그램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시하여, 주한 공관과의 대화, 방한 문화예술계 인사와의 대화 등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초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예술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¹⁶⁾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정례적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운영 방안 연구」 참조

으로 초청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아시아 이외의 비서구권까지 확장하려고 검토하고 있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탐구 프로그램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탐구모임은 문화예술계에서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학계에서 지역학을 중심으로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 및 사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으로서 교육 아카데미 역할을 하는 정도로 발전될 수도 있다.

(1) 탐구모임의 결성과 운영

탐구모임은 온라인상의 카페 운영방식을 참고하면서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곧, 상기 DB 구축 과정에서 파악되는 활동적 단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분야와 권역을 설정하고, 관련되거나 관심을 가지는 전문인력들에게 탐구모임의 문호를 개방, 참가를 권장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성과를 축적해나가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모임에 중복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결코 크지 않은 현재 인력 규모로 볼 때 불가피하기도 하다. 또한 탐구모임의 참가 대상은 연관되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진 학계, 언론계 종사자는 물론 관계, 업계 인사들까지도 발굴하여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탐구모임은 해당 권역과 연관되는 전문인력의 수나 우리나라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활성도가 다르게 마련이겠지만, 모임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열성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며, 일관성 있는 장려, 지원방안에 바탕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2) 장려, 지원 방안

장려, 지원방안은 탐구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사에 대한 장려와 지원 이외에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탐구모임 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정책적 선택에 따른 역점 권역이나 분야와 관련되는 탐구모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지원방안들은 경우에 따라 중복, 집중되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탐구모임 전체의 활성화와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촉매가 되는 모범 사례를 찾고, 다른 모임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여 탐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복,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구모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장려, 지원방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주도적 인사에 대한 장려, 지원

탐구모임의 모범적 운영을 주도하는 인사에 대한 장려, 지원은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그간의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고 하여 논란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부작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려, 지원의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절차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등 장려, 지원 사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되는 사무처리는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관련자들의 합의와 동의를 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장려, 지원의 내용으로는 문화교류 참가 기회 제공, 현지 방문 및 주요 국제회의의 연속참석 지원, 유관 분야의 정책 개발에의 참여 초빙, 유관 해외 인사의 초청 추천 우선 고려 등이 있다.

<표 IV-2> 탐구모임 주도 인사에 대한 장려,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문화교류 참가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과의 문화교류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 -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 제안, 우선 수용 - 해당 권역 관련 문화교류사업 선정 자문 등 	
현지 방문 등 연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현지 방문 정례적으로 지원 - 해당 권역, 분야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석 지원 - 해당 권역 관련 문화교류사업 현지 평가 참여 	
정책개발 참여 초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 분야의 문화교류 등 정책개발 참여 - 문화교류 주요 행사 등 기획, 추진 참여 - 해당 권역과 지자체의 문화교류 자문, 참여 	
해외인사 초청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동반자사업 등에 초청 대상자 추천 - 초청이 필요한 해당 권역의 주요인사 추천 	

② 모범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

탐구모임 가운데 역동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과감한 장려,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모임의 활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탐구모임에 일종의 활동 모델을

제시하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려, 지원은 해당권역 전문인력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여 해당 권역과의 문화교류를 보다 충실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은 보통 재정적 지원을 우선 생각하기 쉽지만, 재정적 지원이 탐구모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충실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부른 재정적 지원이 오히려 모임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저하시키거나 구성원 간의 반목과 대립을 증폭시키게 되는 사례는 빈번히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모임의 구성원, 모임의 운영 양식 등이 모임 마다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행에 융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표 IV-3>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하드웨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의 장소 제공 -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활동에 필요한 운송수단 등의 지원 	- 직접 지원 보다는 연결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의 통, 번역 발간 지원 - 유관 사이트 링크 서비스 지원 - 학술발표, 지방축제 등 참가, 연계 - 모임의 성과물 발간, 배포 등 지원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방문 활동 경비 보조 - 국제행사, 대회 등의 개최 보조 - 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 경비 보조 	

③ 역점 대상 권역 및 분야에 대한 장려, 지원

비서구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앞으로 상당히 제고될 전망이다, 그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인지도의 경우, 그간 우리가 역점을 두어왔던 서구보다 오히려 비서구권에서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화영역에서도 상승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비서구권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서구권이라는 분류에 속하는 문화권역, 지역, 국가들은 너무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비서구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다고 해도 권역과 분야별로 역점을 달리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방침은 탐구모임에 대한 장려, 지원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장려, 지원은 그것을 수용할 탐구모임 자체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해당 권역을 주제로 하는 대형 이벤트의 기획과 진행, 해당 권역에 관련 되는 조사·연구사업의 수행, 해당 권역 주요 인사의 초청 사업 기획·관리 대행, 해당 권역에 대한 교류 전략 정책 개발 등은 위탁하는 형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문화예술 인력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장학 프로그램

문화예술분야의 인력 역량(Capability)은 크게 비즈니스 역량(Business Capability), 예술적 역량(Artistic Capability) 및 기술적 역량(Technical Capability)의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¹⁷⁾ 비즈니스 역량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기획·조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시장을 개척하고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라면, 예술적 역량은 대상이나 객체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술적 역량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기획에서 문화예술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제반 기술의 보유, 활용 및 개발을 담당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력 역량에 못지 않게 비서구권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화교류는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안의 하나는 문화예술의 각 분야 전문인력이 대학(대학원)의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4년을 요하는 정규 과정보다는 편입을 통한 집중 과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관학교 등의 수료생이 대학에 편입,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에 준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 등이 정비된다면, 문화예술의 분야에 따라 비서구권의 문화예술 해당 분야와 권역의 사정을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체계의 적실성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자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연구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7) 김주호, 용호성(2002), 「예술경영」, 김영사

<표 IV-4> 비서구권 지역연구학과 및 과정 개설 대학 현황

학교	과정	과정명	학과 및 전공
건국대	대학	문화정보학부	EU문화정보학/커뮤니케이션학/히브리중동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기대	대학	국제대학	국제산업정보학과/국제관계학전공/러시아학전공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협동과정	국제관계학과
경희대	대학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국제학/국제관계학/지역학), 국제경영학부(국제경영/기업회계세무)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국제대학원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Latin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고려대	대학	국제학부	International Relations/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International Law/Korean and Area Studies
	대학원	국제대학원	International Studies/Korean Studies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광운대	대학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중국학과/일본학과)
국민대	대학	국제학부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동국대	대학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사회과학대학	국제학과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대학원	협동과정	국제통상
		국제정보대학원	정보보호학과/IT-Business학과/영어통번역학과
명지대	대학	인문대학	아랍지역학과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대학원	일반대학원	아랍지역학과
		국제대학원	문화교류선교학과 /엔지니어링 경영 및 설계학과
서강대	대학원	국제대학원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Finance, East Asian Studies (including Korean Studies)
서울대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서울여대	대학	연계전공	국제학전공
성균관대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비교문화협동과정/동아시아학협동과정
연세대	대학	언더우드 국제학부	Comparative Literature
		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국제학대학원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a Studies, International Management
이화여대	대학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한국학
		일반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중앙대	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학부(국제관계학전공)/상경학부/경제학부
	대학원	국제대학원	ISP(국제경영 및 금융 (GB&F)학과/국제문제 및 무역 (GA&T)학과), AITP
		국제경영대학원	마케팅/재무금융/회계세무/MS,MIS/인사,조직,전략/국제경영,통상,물류/엔터테인먼트
한국외국어대	대학	국제학부	국제협력/국제통상
	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동남·남아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 러시아·동유럽학과 / 유럽연합학과/북미학과/ 중남미학과(석사),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박사)
한성대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국제지역정보학과/국제마약학과
한양대	대학	국제학부	
		국제문화대학	인문학부/중국학부/일본언어문화학부/영미언어문화학부/유럽언어문화학부
	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일본학과, 한국학과
홍익대	대학	상경대학	국제경영학과
	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경영학과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연구학과 과정을 수료한 인력에게는 해당 권역 탐구모임을 통한 활동 이외에도 다음에서 소개하는 ‘문화동반자 II’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활동의 기회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 대상

본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전공자로서, 비서구권의 문화 권역에 속하는 지역연구를 선택하고자 지원하여 대학(대학원)의 해당 지역연구학과 과정에 입학 허가를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장학 내용

장학 내용은 학비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의 소속 기관 혹은 단체와

매칭 펀드식 지원을 통해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총액의 절반은 차후 반제하도록 하여 지원규모의 유지, 확대를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계절 학기제 등의 활용

이 장학 프로그램의 구조는 탐구모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계기를 맞아 필요한 경우, 특정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기제, 특강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현장에 투입하여 훈련시키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개발과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4) 최고위과정 개발, 시행 병행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서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류에 관심과 식견을 가지는 고위 정책결정자의 존재 여부이다. 이 경우, 고위 정책결정자는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경영, 예술행정, 문화산업, 국제교류 등 유관 공공영역과 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비서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식견이 필요한 영역은 문화예술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최고위과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비서구권 문화예술을 폭넓게 다루는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최고위과정 개발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겠으나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과정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비서구권 고위 정책결정자를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과정 자체가 비서구권 문화예술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는 것일 수 있다.

4) 문화동반자 II (비서구권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현재 문화관광부는 2005년부터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¹⁸⁾ 우리나라는 세계화, 지역화, 국제기구 중심의 지역간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높은 경제적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이미지

1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운영방안연구」

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변 국가들에서는 한류의 확산에 따른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한국문화산업의 유입에 대한 경계심리가 등장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식민지 역사의 경험과 경제적 고난을 겪은 국가로서의 공통점을 나누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민주의 대 피식민주의라든지 중심국가 대 주변국가 사이의 일방적인 문화적 지배관계는 지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은 문화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평등한 교환관계를 전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교류의 촉매자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미 개시된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틀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이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국내로 초청하는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인 반면, 문화동반자 II 프로그램의 경우는 우리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비서구권 지역으로 내보내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특히 문화교류 코디네이터(Cordinator)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대상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과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다만 문화동반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담당자 등 가운데 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교류 관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선정이 공개경쟁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전문인력 DB 구축과정이나 탐구모임의 활동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적격자에 대해서는 응모를 권유하는 등 장래성이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훌륭한 코디네이터야말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시행

이 프로그램은 전문인력 DB 구축이 일단락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DB 구축을 위한 조사활동(심층 면담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이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도 정착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유익한 경험과 자료들을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서구권 현지로 파견되는 참가자는 자신의 전문영역과 관련되는 현지의 실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방문국가만이 아니라 방문국가가 속한 문화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기획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과제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개인의 기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서구권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제안 공모경기의 정기적 개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비서구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는데 유효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우 실무적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행위에서 비롯되고 창조적 결과물로 결실되는 것이며, 문화교류 역시 창조성에 의거한다. 문화예술은 또한 공개적 경쟁을 통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던 많은 전례를 보여준다. 조형예술 공모전, 문학과 음악 콩쿠르, 건축 설계경기 등을 통해 새로운 표현기법이 발명되거나 뛰어난 예술가가 등장하고, 문화예술의 사조가 바뀌기도 한다.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풀이 빈약한 우리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폭과 질을 함께 제고하면서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자면, 비서구권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공모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비서구권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장려, 유인해야 할 것이다.

(1) 공모경기의 방법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모경기의 외형은 콩쿠르 형식보다는 설계 공모경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공모하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규모, 시한 등 제 조건을 주최 측에서 제시하면 응모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반 조사 및 콘셉트의 설정, 프로그램의 구성과 수행 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을 창안, 제안하도록 한다.

이 공모경기에는 합당한 포상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인 바, 상금 이외에도 선정된 프로그램의 수행 위탁, 현지 파견, 시찰 등의 특전 제공이 고려될 수 있다.

(2) 입선자의 관리

프로그램 공모경기의 입선자는 문인의 등단과 같은 개념으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공인(公認)하고, 비서구권 문화교류에 있어 이들의 참여를 필수적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증대시켜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관

탐구모임에 참가하도록 하여 국내 전문인력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선 프로그램의 정례화 추진

입선 프로그램 가운데 순회 개최, 정례 개최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정례화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유관 인력들의 전문성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러한 정례화는 해당 권역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의 공고화를 가져와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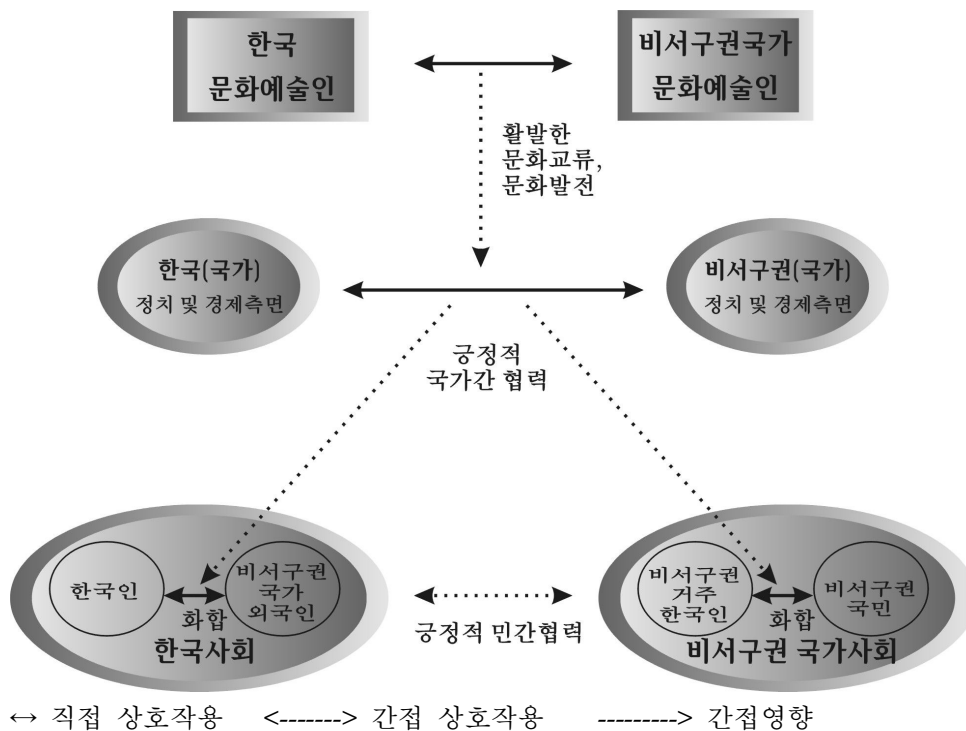
2. 비서구권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방안

1) 교류의 기본방향

정부 수립이후 199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국제문화교류 경향은 국내외적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목표는 신생국으로서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알리는 공보중심의 홍보정책 위주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적 및 민족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Diversity)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2005년 10월 UNESCO가 통과시킨 국제문화다양성 협약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전지구화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주민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약 660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여 세계적으로 중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을 송출한 국가가 되었다(2005,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1995년 27만 명에서 2005년 74만 명으로 174%증가하고, 국제결혼 건수도 1995년 13,000건에서 2005년 43,000건으로 220% 증가하는 등(2006, 여성가족부), 한국인들은 국내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거나 문화충돌 경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방향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라 홍보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보다 많은 국가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여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은 기존의 선진국과의 문화교류를 유지하되 비교적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는 다음과 같은 목표 또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서구권 국가와 한국은 상호자극을 통해 자국의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 수준에서 비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이 상호 문화적 이해를 높여 더욱 긍정적인 국가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비서구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해당국가 국민의 문화적 이해를 높여 재외 한국인들과 비서구권 국민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 거주하는 비서구권 국가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또는 결혼이주자들)과 한국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기본방향

2) 교류 활성화 방안

전지구화 및 국제이주민 증가 추세에서 비서구권 국가와 우리나라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비서구권 국가와 긍정적인 국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비서구권 국가사회와 한국사회간의 민간 수준에서 화합하는 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의 지향 목표를 고려할 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문화교류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서 이것은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활성화이다. 이것은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의 구축, 가동을 포괄한다. 셋째, 국제기구 등을 이용한 다자간 교류의 활성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기구 안에서 비서구권 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1) 문화교류 관리 및 운영 방안

(1) 문화교류 집중 대상국가 선정 (양적 팽창 방안)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의 양적 규모를 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의 양적 규모와 상세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증 자료의 축적은 미비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교류 가운데 비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내외적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는 증가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980년 이전에 자신의 문화예술 단체(개인)가 비서구권 국가와 문화교류를 시작했다고 한 단체(응답자)는 3.6%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에 비서구권 국가와 문화교류를 시작했다는 응답자(기관)는 약 65.4%였다는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규모가 성장해 간다고 추정할 때,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양적 팽창을 지원 및 협력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직면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원(협력)할 때, 비서구권 국가의 모든 나라들과의 문화교류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정부의 재원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지향 목적을 고려하면, 그 우선순위 기준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먼저, 대상국가가 정치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국가와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한국은 베트남 전쟁 참여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베트남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정부가 이런 특징을 가진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문화교류보다 더 지원 및 협력하는 것이 문화교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한국인 이주민이 많이 송출된 비서구권 국가일수록 재외동포와 그 비서구권 국민과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문화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 대상 국가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과의 교류는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문화교류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자)들의 출신국가와 문화교류 규모를 늘려 한국인들이 이들 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서구권 국가와 문화교류를 수행한 이유를 보면 외국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목적에서 수행한 경우는 17%로서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 수행된 문화교류 39.5%에 비하여 훨씬 적게 나타났다. 향후 폐쇄적 민족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다민족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될 한국사회에서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2) 비서구권 국가 문화교류 (질적 성장 방안)

① 추수(follow-up) 프로그램의 강화

비서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에서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방안 역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문화교류의 실태는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빈도에서 평균적으로 기관(응답자)당 연간 2.5회 정도이며, 교류 후에 follow-up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는 것(72.5%)으로 나타났다. 사실 문화교류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은 상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의 형성이라는 의미가 크며, 효율적인 follow-up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교류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간 교류실적이 부진했던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follow-up 프로그램의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바람직한 follow-up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속, 반복, 실익, 유용성 그리고 자발, 참여성의 구현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류의 교류 주기가 부정기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바(50.7%), 이는 비서구권의 문화교류가 비주기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류 자체가 비주기적으로 일회성에 그친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follow-up 프로그램은 그리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류에 이은 follow-up 프로그램이야말로 교류 목적의 달성에 있어 관건이 된다.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교류행사 등이 다소 불만스러운 경우라 하더라도 follow-up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교류성공을 거양할 수도 있다.

또한 follow-up 프로그램은 관련자나 단체 등에게 실익과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례적인 소식이나 일방적인 홍보에 치우친 follow-up 프로그램은 비록 지속, 반복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follow-up 프로그램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교류에 참여했던 기관과 개인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곧, 문화교류와 관련되는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관이나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의 소스를 매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동하게 한다거나, 교류, 초청, 파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추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follow-up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follow-up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자발, 참여성의 문제이다. 교류 이벤트를 통해 follow-up 프로그램의 소구 대상으로 편입되는 개인 혹은 기관의 경우, 오직 특정 교류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follow-u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구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follow-up 프로그램의 내용이 채워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엘리트 위주의 교류 외에 풀뿌리 교류 확대

비서구권 문화교류 실태조사에서 문화교류 형태를 살펴보면 국제회의 형태가 43.8% 및 문화예술활동이 42.3%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화교류 성격이 문화예술(학술)분야의 전문가간의 교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문화예술교류가 지향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풀뿌리 교류 곧, 일반대중이 주

체가 되고 주된 대상이 되는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질적 성장의 전략 지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첫째, 풀뿌리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는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요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서구권의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심화, 확산을 기해야 한다. 비서구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문화예술 전문인력만이 풀뿌리 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풀뿌리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사회의 정서, 커뮤니케이션 방식, 매체와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교류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한류(韓流)라 하더라도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선호하거나 수용하는 내용, 양식, 콘텐츠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비서구권이라고 하면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2)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1) '올해의 문화동반국가' 선정, 집중 교류

비서구권 문화권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를 해마다 '올해의 문화동반국가'로 지정, 문화예술의 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서구권 해당 문화권역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계기로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도록 한다.

'올해의 문화동반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다양한 비서구권 문화권역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친숙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뿐더러 우리 문화를 해당 권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데도 유용하다. '올해의 문화동반국가'는 한 두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당 권역의 여러 국가를 함께 지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탐구모임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탐구모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현재 재외동포는 664만 여명으로 추계되며, 이 가운데 비서구권 거주 재외동포

는 60여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숫자는 재외동포 전체에서 약 9% 정도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비서구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대단히 소중한 문화교류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서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이들은 비서구권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화예술인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한민족 축전, 세계 한인대회 등 행사나 개별 공연 혹은 전시 등으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 일 뿐, 비서구권 문화교류라는 맥락의 교류 프로그램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비서구권 문화교류를 함께 연구하고 추진하는 주요 자원으로서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3) 다자(多者) 국제교류의 확대

비서구권은 단일한 권역이 아니다. 국가와 지역별로 문화,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르면 문화교류는 대체로 상대국과의 (한국과 외국 1개국의) 양자관계가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대국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별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는 자칫 일방적인 문화홍보 내지는 문화선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둘째, 양자관계가 호혜적 교류를 항상 보증하지는 않는다. 셋째, 여러 상대국의 다양한 교류수요에 대응하는 데 투입이 중복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자면 양국관계에 근거한 문화교류 전략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문화교류 전략을 개발하고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자간(多者間) 교류이다. 다자간 교류는 교류활성화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욱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자간 문화교류란 비서구권 개별국가들과의 교류를 양자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상대국들과 동시에 문화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다자간 국제기구나 제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류 프로그램 주도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교류까지 지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우리의 국제문

화교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교류의 대부분이 한국과 상대국과의 일대일 교류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새로이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라는 넓은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양자교류와 다자교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곧, 참가자의 선발과 운용은 양자교류의 방식에 따르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은 다자교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근본적으로 참가국들 사이의 교류까지 기획하거나 지향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격적인 다자교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자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곧, 현재 많은 국제기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문화교류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략화·특화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비서구권은 대체로 저개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며, 저개발국들에게 있어 한국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정치민주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학습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의의 문화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 확대가 문화교류 영역에서의 주도적 위치 확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자간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자교류는 일단 시작되면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이미 발족시킨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프로그램은 다자교류의 방법과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모체로서 유용하다. 대상국가의 과감한 확대, 사업추진의 조직과 체계 전문화, 프로그램 모델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다자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우리나라의 비서구권 문화교류 현황은 앞선 자료에서 제시한대로 서구권의 그것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고 폐허 위에서 국가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보잘 것 없던 우리의 과거 입장에서는 우리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더욱이 냉전체제 하에서 세계 열강(列強)을 상대로 우리를 알리려 했던 노력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이해를 원칙으로 하는 문화교류가 서구권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알리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화교류 경향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간접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의 여건이라고 할 만한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서구권 지역에 20% 내외가 설치(운영) 중이고, 실제 국제 문화교류 지원 사업에서도 비서구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여건과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은 과거의 그것이 아니며 세계도 우리에게 수준과 능력에 버금가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류(韓流)와 같은 문화현상은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며, 반드시 한류가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 우리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원 증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중국을 비롯하여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트남 등에 새로운 문화원을 조성하여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하고 있다. 신규 조성되는 문화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서구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중심의 문화교류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소위 제3세계에 속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남미의 국가에 문화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정부의 비서구권 지역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서구권과의 교류 사업이 일회성 행사 위주인데 반하여, 이 사업은 지속적이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효과와 의미가 크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서구권 문화교류 모델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하나만으로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순히 교류의 확대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사업을 아무리 반복하여도 서로에 대한 문화이해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대에 따른 전략적 접근과 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관건이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따져보아 그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비서구권 문화교류의 확대를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어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현상의 심화이다. 이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의 여성과 결혼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으며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 이들의 자녀가 한 학급의 40% 이상 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의 여러 차원의 교류는 우리의 미래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몰이해와 언어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문제이지만 그 배경은 철저하게 문화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곧, 아시아 등 비서구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차별이나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한데 이 역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이들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이들 국가의 잠재력에 있다. 문화교류가 단지 문화교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의 심화를 통해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비서구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이들 지역과의 문화교류 강화는 서구권 중심의 문화교류를 지향해온 우리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이들 지역이 우리의 방송 영상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보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대되는 효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비서구권 지역과의 교류의 확대뿐 아니라 교류수준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비서구권이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접근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비서구권은 하나의 문화권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비서구권 내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권역이 다시 구분된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권역에 따라 다른 목표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듯이, 우리의 비서구권 문화교류 전략도 이 같은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문화권역별 접근에 따른 문화교류 성공의 핵심 요인은 각 문화권과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와 개인이 얼마나 있는냐의 문제다. 왜냐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와 인력이 있어야 그러한 개별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관련 개인과 단체의 존재를 파악하였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높지는 못하였다. 학술 측면의 교류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단체가 존재하였지만,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교류하게 되는 기회를 통해 그 지역을 알게 되는 정도였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학술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획득해 가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그만큼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전문성 획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교류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살려,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는 특히 2000년 이후 활발해졌고, 교류의 이유 가운데 1순위는 외국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었고, 2순위는 교류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문화예술 간 공동창작이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본래의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것이 교류단체나 개인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어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재정지원보다는 오히려 관련 정보와 기초 자료의 제공에 있다.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및 학술에 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문화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기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가 향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처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과가 많은 교류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자료와 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은 사업을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이

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비서구권과의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역량과 이해 및 수용능력이 향상되고 동시에 그들에게도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 방안 보고자료
- 김장호 편저(2005), 「한국의 인적자원-도전과 새 패러다임」, 법문사
- 김주호, 용호성(2002), 「예술경영」, 김영사
- 문화관광부(2004),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 _____ (2006), 「코리아센터 및 코리아플라자 설립 운영 방안」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4 문화정책백서」
- _____ (2006), 「2005 문화정책백서」
- 박영대(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 외교통상부(2004), 「재외동포단체조직현황」
- _____ (2005), 「재외동포현황(2005년도)」 (www.mofat.go.kr)
- 출입국관리국(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www.immigration.go.kr)
- 한국국제교류재단(2003), 「2003년도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 _____ (2003), 「2003년도 업무현황 보고」
- _____ (2004), 「2004년도 업무현황 보고」
- _____ (2004), 「국정감사 서면 답변자료」
- _____ (2005), 「2004년도 국제교류기금 결산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_____ (2005),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운영 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5), 「200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_____ (2005), 「200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3), 「2003년도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 _____ (2003), 「2003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_____ (2004), 「2004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_____ (2004), 「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_____ (2004),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서 I」
- _____ (2005),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서」
- 홍기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의 중간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 일본국제교류기금(2005), 「일본국제교류기금 연보」
- British Council(2006), *Annual Report 2005-2006: Measuring Success*
 (<http://www.britishcouncil.org/bc-annual-report-2005-2006.pdf?mtklink=bc-annual-report-2005-2006>)
- British Council(2006),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Cultural Relations in 2010*
 (<http://www.britishcouncil.org/home-about-us-strategy-2010.htm>)
- Visitng Arts(영국 예술방문원) 홈페이지 <http://www.visitingarts.org.uk>
- 문화관광부 www.mct.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출입국관리국 www.immigration.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www.kosnet.go.kr

붙임 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설문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비서구권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전문 인력 실태 연구’를 위해 민간단체(기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비서구권(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과의 교류(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과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국제회의를 직접 개최하거나 주체측으로 참여한 경우)** 실태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현성 (Tel) 02-2669-9843
 (주)월드리서치 연구1팀장 신호철 (Tel) 02-583-5371

주 소 : 137-87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7-5 벽천빌딩 2층 (주)월드리서치
 (Tel) 02-561-9009 (Fax) 02-563-4004 (E-mail) post@wrc.co.kr

응답자	성	명		전화번호	—	—
	소	속				

검증원	성	명		검증결과	
-----	---	---	--	------	--

단체의 일반사항

단체명(한글)			단체명(영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법적성격	① 법인 ② 비법인		설립년도		
설립목적					
주된 활동	보기1)	상근직원	없 으 면 0 명 _____명	회원구성	보기2)
회원(단원) 총수		2005년 예산		주된 교류지역	권역: 보기4)
					국가:
특이사항	예) 해당 지역 유학 등				

▣ 비서구권과의 교류 실태

[2003년 - 2006년 9월까지 연도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2003년 - 2006년 9월까지 교류								
행사명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대상도시	교류시작연도	교류주기	행사 참여인원	행사 관람인원
	보기1)	보기3)				보기5)	()명	()명
행사 연도	행사 기간	예산 총액	예산 비중(합계 100%)					
			국내지원		외국지원		입장료	기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2003년		_____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행사명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대상도시	교류시작연도	교류주기	행사참여인원	행사관람인원
	보기1)	보기3)				보기5)	()명	()명
행사 연도	행사 기간	예산 총액	예산 비중(합계 100%)					
			국내지원		외국지원		입장료	기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_____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행사명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대상도시	교류시작연도	교류주기	행사참여인원	행사관람인원
	보기1)	보기3)				보기5)	()명	()명
행사 연도	행사 기간	예산 총액	예산 비중(합계 100%)					
			국내지원		외국지원		입장료	기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_____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행사명	교류장르	교류형태	대상국가	대상도시	교류시작연도	교류주기	행사참여인원	행사관람인원
	보기1)	보기3)				보기5)	()명	()명
행사 연도	행사 기간	예산 총액	예산 비중(합계 100%)					
			국내지원		외국지원		입장료	기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_____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 위의 행사 중 귀 기관(단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류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행사명: _____)

□ 교류의 기획/실행자 일반사항

- ※ 2003년 - 2006년 9월까지 교류의 기획/실행자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교류의 기획/실행자는 실제 교류를 기획/실행한 사람으로, 다른 기관(단체) 소속원, 단순 개인 또는 단장이나 협회장이 될 수도 있음.

이름(한글)			이름(한문)			이름(영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성별	남, 여	연령	1990년생	학력(출신학교) 및 전공				
직업			활동분야	보기1)		소속단체		
주된 교류지역	권역: 보기4) 국가:					대상국가 언어구사	상, 중, 하	
특이사항	예) 해당 지역 유학 등							

이름(한글)			이름(한문)			이름(영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성별	남, 여	연령	1990년생	학력(출신학교) 및 전공				
직업			활동분야	보기1)		소속단체		
주된 교류지역	권역: 보기4) 국가:					대상국가 언어구사	상, 중, 하	
특이사항	예) 해당 지역 유학 등							

■ 보 기

보기 1)		
① 예술창작 - 문학	② 예술창작 - 미술	③ 예술창작 - 음악
④ 예술창작 - 전통예술	⑤ 예술창작 - 연극	⑥ 예술창작 - 무용
⑦ 예술창작 - 대중예술	⑧ 예술창작 -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⑨ 예술기획 및 행정	⑩ 예술교육	⑪ 학술
⑫ 문화일반(구체적으로: _____)		

보기 2)		
① 단원제	② 회원제	③ 기타

보기 3)		
① 문화예술활동	② 국제회의(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③ 기타

보기 4)	
① 동남아시아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② 동북아시아	- 마카오, 몽골, 대만, 홍콩
③ 서남아시아	-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티베트, 파키스탄
④ 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⑤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터키
⑥ 북서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적도 기니,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콩고공화국
⑦ 남동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세이셸,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지부티, 케냐,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⑧ 중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⑨ 남미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⑩ 남태평양	-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보기 5)	
0. 비정기	교류주기 ____년

▣ 비서구권 지역 문화예술 교류단체의 일반현황

문 1. 귀 기관(단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단체
- ② 학술단체(학회)
- ③ 문화예술협회
-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2. 귀 기관(단체)의 주된 문화교류 국가는 어디입니까? 보기 3)을 참조하여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문 3. 귀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에 1회 이상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회를 실시합니까? ____회)
- ② 1년에 1회 미만 (구체적으로 몇 년에 1회를 실시합니까? ____년)
- ③ 1회성 교류

문 4. 귀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는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보기 중에서 한가지 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활동 (공연, 전시 등)
- ②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5. 귀 기관(단체)에서 수행한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1) • 우리나라 도시명 : ()
(2) • 해당국가 국가명 : () • 도시명 : ()

문 6. 귀 기관(단체)은 언제부터 비서구권 지역과 문화교류를 수행하였습니까? ()년

문 7. 귀 기관(단체)은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를 수행한 후, 어떤 follow-up 프로그램을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7-1로

② 없다 ➡ 문8로

문 7-1. (문7의 ① 응답자만) 귀 기관(단체)이 시행한 follow-up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 8. 귀 기관(단체)이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를 수행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우리문화(학술포함)를 해외에 알림
- ② 외국문화(학술포함)를 한국에 알림
- ③ 해외동포에게 우리문화 알림
- ④ 문화예술가 간 (혹은 학자 간) 공동창작 (혹은 공동연구)
- ⑤ 수익성 추구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9. 귀 기관(단체)은 비서구권 지역(국가) 문화교류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2.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② 해당지역(국가)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다
- ③ 해당지역에 밝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④ 해당지역의 문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 한다
- ⑤ 교류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3. 비서구권 지역(국가)과 문화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해당지역의 문화시설 · 문화환경
- ② 해당지역의 문화예술 · 학술관련 개인 및 단체
- ③ 해당지역의 생활문화 · 관습 · 종교
- ④ 해당지역의 정치 · 경제상황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 비서구권 지역(국가)과의 문화교류 시, 가장 부족한 인력은 누구입니까?

- ① 문화예술행사 기획자
- ② 문화예술행사 참여자(예술인)
- ③ 해당지역 언어 구사자
-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5. 비서구권 지역 문화교류를 기획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당국가(지역) 외국어 능력
- ②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 ③ 국제인맥 확보 및 관리 능력
- ④ 국제동향 및 해당국가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 ⑤ 기획, 행정, 조직관리 등 일반 업무 수행 능력

문16.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
- ②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한국인) 영입
- ③ 공공기관에서 현지 전문가(외국인 또는 교포) 영입
- ④ 공공기관 직원의 해당지역 연수 프로그램
- ⑤ 민간부문의 해당지역 연구 및 유학 지원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7. 마지막으로 비서구권 지역과의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라도 좋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발 행 일	2006년 12월
발 행 인	김 명 곤
발 행 처	문화관광부
인 쇄 처	크리홍보(주)

© 2006 · 문화관광부